DAI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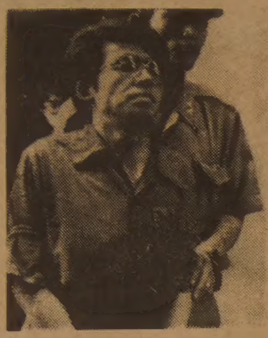
The Korea Times Toront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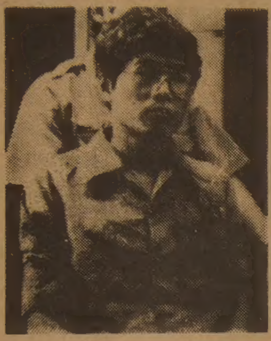
No. 899 1982년 8월 12일(목)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Thursday, August 12, 1982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명규
편 집 인 : 이석현
인 쇄 인 : 박정서
광 고 국 장 : 송광호

문부식·김현장 사형


◆문부식(사형)


◆김현장(사형)

◆최기식신부(징역3년)

미문화원 방화사건 선고공판

최기식신부 3년 징역

김은숙등은 2년~종신형

(부산11일=연합)부산미국문화원 방화사건 피고인 문부식(23)과 김현장(23) 2명이 구형량대로 사형을 선고 받았다.

이들은 지난3월18일 발생한 미문화원 방화사건의 주동인물로 체포되어 북한에 동조하고, 살인을 목적으로 한 방화혐의를 받았다.

방화사건으로 학생 1명이 피살, 3명이 부상당했고, 사고현장부근에서는 반정부및 반미구호가 적힌 전단이 발견됐다.

카톨릭원주교구 최기식신부(40)는 문과 김에게 피신처및 생활자금 지원 혐의로 3년 징역형에 처해졌다.

부산지방법원은 이밖에 13명의 피고들에게 최하2년, 최고 종신형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즉각 항소할 뜻을 비쳤다.

부산지검공안부 김두수 부장검사는 지난2일 결심공판에서 최신부에게 국가보안법·범인은닉죄등을 적용,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문과 김에게는 국가보안법,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 사형을 구형했다.

기타 방화범행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주장된 김은숙, 유승렬, 이미옥, 최인순, 김지회등 5명은 무기징역형을 구형 받았다.

지난 3월18일 하오2시 부산시 중구2가 미문화원에서 불이나, 1층 사무실 2백평을 전소하고, 1시간만에 진화됐다. 피해액은 2천만원. 도서관열람자 동아대 상경과2년 장덕술씨가 소사했다. 2층의 직원들은 사다리를 타고 피신, 무사했으나, 경찰은 이 사건이 80년12월 전남 광주 미문화원 방화사건의 범인들의 소행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다.

사건자체는 작았으나, 한

〈미 문화원 사건이란?〉

작은 사건으로 큰 파문줘

·미관계에 큰 파문을 던진 사건이었다. 비록 방화라는 극단적 파괴행동으로 표현되긴 했지만, 이들이 뿌린 반미전단에서 주장한 것은 (1)미국은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기 위해 미군을 주둔시키는게 아니다. (2)80년 광주사태 당시 미국의 태도는 큰, 실망을 주었다는 것 이었다.

사건발생 다음날 미국국무성은 성명을 발표,"미국정부는 어떠한 형태의 정치적 테러행위도 규탄한다. 이번사건에도 불구, 양국의 우호관계는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사건에 대해 뉴욕타임즈지가 "한국정부가 이 사건을 소수 극단주의자들에 의한 탈선 정도로 보고 있지만, 많은 한국의 지식인들이나, 교회 지도자들및 전대통령의 비판자들은 사건을 점증하고 있는 한국내 반미감정의 신호로 본다"고 분석한 것은 의미심장 했었다.

이번에 사형선고를 받은 문부식은 체포당시 전대통령 암살음모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받은 토론토 교민 문지식의 사촌이었다는데서 두 사건의 상관 관계가 밝혀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낳았었지만, 현재까지 두 사건의 관련이 드러난 것은 없다.

문부식은 예수교 장로회 소속인 부산 고려신학대 4년생으로서 무기형을 선고받은 김은숙과 함께 카톨릭 원주교구 교육청에 피신중 검거됐고, 그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한 이유로 최기식신부는 성직자의 신분임에도 불구, 3년 징역형을 받았다.

고려신학대 졸업생인 김현장은 사건 관련자들에게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 배후 조종의 혐의로서 사형을 선고 받았다. 김은 사건이 있기 전부터 문이 낀 학생서클의 "학습"을 맡아 "불순사상"을 주입시켰으며, 광주사태 관련으로 지명 수배됐던 인물이다. 역시 원주 교청에 숨어있다가 문·김은숙 두사람이 검거돼자 뒤따라 체포되었다.

화염에 휩싸인 釜山美문화원

석유 비축량늘어 56일간 사용분확보

(서울11일=연합)6월말 현재 한국의 석유비축량은 2,890만 배럴로 56일간 사용분이다. 이중 720만 배럴은 정부보유이다. 한국은 제2차 석유파동이 일었던 79년에 24일분에 불과한 1,200만 배럴을 확보, 불안한 상태에 있었다.

정부는 83년도 말 현재 석유업체들의 비축량이 총 30일분이 되도록 계획했다.

유창순 전 총리 적십자총재 지명

(서울11일=연합)유창순 전 국무총리는 한국 적십자사 총재로 지명됐다.

서울 올림픽조직위원장을 겸직한 현 김용식총재는 앞으로 서울올림픽에만 전념하기 위해 총재직을 떠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기가 기를 능력은 없으므로 입양기관에 넘기겠다고 말했다.

교포·본국인 결혼 문제있다

(시카고지사)신성한 결혼을 영주권획득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나 상대방의 정신적 타격은 물론 주위 사람들의 이맛살까지 찌푸리게 하고 있다.

시카고에서 장거리 트럭드라이버를 하고 있는 C모씨(27)는 부인과 산지 불과 두달도 채 못돼 부인이 가출, 지난6월17일자로 법정으로 부터 이혼소송 통고를 받았다.

C씨에 따르면 작년 10월 중순에 방문차 한국을 나가 사촌누나의 소개로 부인인 박모씨(25·은행원)와 선을 본뒤 서울 C예식장에서 결혼하여 부인이 지난4월 초순경 미국에 들어왔다. 들어온지 한달 반만에 영주권을 받은 부인은 남편모르게 징병에 응모하는가 하면 때로는 "답답해서 못살겠다"는 등 뚜렷한 이유없이 투정을 부려 C씨가 화가나 따귀를 때렸다는 것.

이틀뒤 짐을 챙긴 부인은 말리는 남편에게 임시로 이하던 직장 유니폼을 갖다주고 오겠다면서 짐을 놓아둔채 나간뒤 두달이 넘도록 소식이 없다가 갑자기 이혼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것.

그동안 부인의 거처를 알려고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팜플렛사진까지 만들어 주위사람들에게 돌렸다는 C씨는 "지난 두달간 이일 때문에 일도 제대로 못하고 실성을 할 뻔 했다"고 말했다.

비단 C씨의 경우외에도 쌍방의 시비를 가리기 애매하지만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급증하고 있어 변호사와 카운슬러들의 교포-본국인간의 결혼에 대한 문제점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영주권·지참금 노린 경우도

상호몰이해속 비정상적 결합

첫째,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서로를 모르고 결혼할 수 있다.

둘째, 시간제약. 한국에 나가 오래 머무를 수 없으므로 단시간내에 결정하게 되며, 따라서 인격보다 외적조건에 치중하게 된다.

셋째, 이곳에서 오래산 교포여성들은 자연적으로 남녀평등 의식을 갖게된다.

넷째, 한국에서 상대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지참금조로 돈을 바라는 경우가 있다.

다섯째, 순수한 결혼을 영주권 획득의 창구로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이같이 결혼 몇달만에 헤어지는 경우, 결혼을 계기로 얻은 영주권은 어떻게 되는가.

결혼을 토대로 영주권을 얻은자가 비영주권자와 재혼할 경우에만 이민국의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만일 원래의 영주권소지가가 결혼무효를 주장, 법원의 인정을 받는 경우, 결혼자체가 무효화되기 때문에 영주권자와 결혼으로 얻은 영주권은 빼앗기고 추방당하게 되며, 이혼수속 신청시 꼭 이혼사유를 대지 않아도 되나, 결혼무효수속 신청에는 꼭 법적이유를 대야한다.

결혼무효의 법적이유는 이중결혼, 정신이상자, 사기결혼등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인정받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인회관 모금 $42,370

자문위원 259명으로 늘어나

조한철 토론토한인회관 확장이전 모금위원장을 비롯, 임원진의 꾸준한 순방노력등 열성으로 기금은 $4만선에 올라섰다. (본보 8월4일자, 1면)

본보 8월7일자(8면)에 발표된(7월29일 현재)이후, 8월9일 현재 이전 기금 납부자는 아래와 같다.

$1,200=김영규·서춘봉
$700=이동일
$600=유영목·김상연
$500=최동주·이정석·변의섭·김영석·고정배·송기섭·강기원·박건우
$300=이양섭·조지섭
$200=김정석·김덕기·김춘탁·김신우·신동운·안국태·김오석
$150=양정우
$100=김광철·최영길·주재철·조흥래·익명씨·이명구
$50=김병선·마보훈
이상 소계 410,750(31명)

누계 94명의 $42,370이 된다.

또한 8월7일자로 발표된 이후의 43명 자문위원(추가분)은 아래와 같다.

◆모금위원회 자문위원(추가분)

신영식·함병섭·홍승해·김용일·이대환·오현구·이장성·장필규·김태진·명노길·박순교·박주삼·서만수·나덕현·구본무·최희권·오기환·유좌석·장기철·김이배·옥성빈·김문고·다니엘장·송기선·장추신·박광철·고순복·장영채·김옥자·정창헌·최동호·이광민·하주용·김문량·김정곤·홍기만·심재환·김명규·이근우·이병권·박문웅·송남섭·김계남.

이로써 자문위원수는 259명으로 늘었다.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W
(B) 536-1692
(R) 245-3539

강찬영 변호사
537-3171
537-3174
484 BLOOR ST. W.
(Bloor & Bathurst)

캐나다한국외환은행
본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지점: 627 Bloor St. W. 533-8593

김화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Merrill Lynch Royal Seurities Ltd.
금·은·증권·Bonds·RRSP에 대한 투자는
361-3428(B), 447-1374(R) : 김상욱
증권은 경기변동에 따라 움직이는 특성이 있는데 경기회복 6개월 전부터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많은 투자 전문가들은 "말하기를"일, 이십년만에 한번 올수있는 절호의 기회가 증권투자에 오고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 시는 무엇인가?

은하 보석
란제리 화장품 대리점
ROLEX
가장 믿고 살수있는 로렉스지정판매대리점
귀국선물
☎ 534-9977, 7791 620A Bloor St. W.

한번오시면 계속 오시게 됩니다
★★★★ 서울식품서부지점 ★★★★
개업특별세일
배추김치·총각무·파김치·부추김치·오이소백이 ●큰 병 $6.99 ~~$9.50~~
●작은병 $4.50 ~~$6.90~~

	SPEC	REG.
♧ 북어포	1.25	~~1.65~~
♧ 마른미역	1.99	~~2.50~~
♧ 돌미역	.99	~~1.29~~
♧ 소 면	.89	~~.99~~
♧ 냉 면	.99	~~1.29~~
♧ 도라지	2.49	~~2.95~~
♧ 물오징어	.85	~~.99~~

※ 갈비·불고기·배추·무우는 도매가격으로 제공
신품 대한 쌀 가주미 장미표 국보 경기미 쌀
사실때 는 삼양라면이나 삼양칼국수 3봉지씩 무료제공합니다. 쌀도 최저가격으로 팝니다.
박영조
주소 : 1391 WESTON RD. ☎ : 243-9544

LOEB
CASH "N" CARRY
※ 온타리오주에 10개소의 도매상(토론토에는 3개소)들이 당신의 비즈네스를 위해 성심성의껏 친절 봉사코 있읍니다.
매주 광고전단을 만들어 각 소매상에 우편으로 보내드리오니, 원하시는분은 저희 도매상에 오셔서 신청을 하시면, 스페샬품목의 광고전단을 즉시 보내드리겠읍니다.(예 : Allen's Pure Apple Juice 48온스 $13.77 8월16일 ~ 8월28일)
★★★★ 당신의 M.Loeb Cash & Carry ★★★★
3 CONVENIENT TORONTO LOCATIONS
TORONTO 20 Orfus Road Mgr. Dennis Schulz 782-8892
TORONTO 160 Evans Ave. Mgr. Frank Arnone 255-6366
SCARBOROUGH 55 Bertrand Ave. Mgr. Norm Carmichael 752-7292
LONDON 304 Adelaide St. S Mgr. Ernie Kormendi 686-7590
WINDSOR 2629 McDougall St. Mgr. Gary Villemaire 969-9610
SARNIA 135 Water St Mgr. Keith Hood 337-2751
ST. CATHERINES 189 Bunting Road Mgr. John Neufeld 684-9581
HAMILTON 256 Gage St. S Mgr. Mark Hagan 549-7069
BRANTFORD 16 Morton Ave Mgr. John Baker 759-4633
CHATHAM 80 William St. S Mgr. Peter Antuma 354-3000

고급 수입품 벽지
BIG SALE
— 한국갈포벽지및 TAXTILE벽지
— 고급 이태리벽지
— 100% SILK천 (브라우스및 드레스용)
40% OFF
월~금 9시~5시
L. K. Trading Ltd.
7370 WOODBINE #8.
MARKAM, ONT.
(B)475-8610
(R)498-9877 대표 김 진명

East Asian Library
Rm 3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신용조합서 「오뚜기예금」 창설
이자율 오를수록 이득

금리변동에 따라 다달이 이자를 올려 받는 새다른 정기예금 제도가 생겼다.

총자산 $280만을 달성한 토론토한인신용조합(이사장 한상훈)은 신종예금 「오뚜기 정기예금」(Variable Term Deposit)을 마련, 예금자에게 수시로 오르는 금리의 혜택을 그대로 준다.

교회및 단체의 기금, 장기성 예금, 또는 모국방문, 성지순례등 특수목적을 위한 이자의 별도적립을 바라는 사람등을 대상으로 6개월 또는 1년의 두가지 기한을 가진 이 정기예금은 중도해약도 되며, 최소 연리 12%가 보장된다.

가입자는 은행 우대금리의 변동에 따라 자동적으로 이자를 올려서 매월말 정기적으로 받는다. 금리는 계약시의 이자율이하로 내려가지는 않는다.

은행보다 싼 이자로 대부하고 있는 신용조합은 자동차 구입값 대부와 모기지 대부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제까지의 정기예금은 가입때의 이자율만 적용받아 이자율이 크게 뛰어도 가입자에게는 하등 이득이 되지 못했다.

한인신용조합은 「오뚜기 정기예금」이 교민사회에서 큰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온」주 여인 첫 대리산모
사례비 1만달러
주정부는 반대, 법적문제될듯

아기분만 경험이 없는 온타리오주의 여성이 자녀불임중의 미국인부부를 위해 대리 산모가 되는 댓가로 1만달러를 받는다.

이혼녀인 31세의 샤론(가명)여인은 8·9월중 미국 미쉬건에 가서 인공수정을 받은뒤 미국에서 출산할 예정이다.

온타리오주에서는 어린아이를 놓고 돈을 거래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난자와 정자가 인공적으로 수정, 태아가 자랄 자궁만 제공하는 대리산모 문제는 지난7월 스카보로의 부부가 아기를 대신 낳아준 미 플로리다의 여성에게 1만달러의 사례금을 지불하려다가 온타리오주의 정부가 이를 지급치 못하도록 개입함으로써 크게 문제가 됐었다. 당시 프랭크·드레 주 공공복지장관은 "어린아이를 주고 받으며, 금전을 수수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못박았었다.

두 케이스는 모두 미 미쉬건의 법률회사가 취급한 것으로, 이 회사는 아기를 원하는 미국인부부의 신분은 밝히지 않았다.

"대리산모를 지원한 이유는 돈때문"이라고 밝힌 샤론여인은 아기가 정상적으로 출산되면 $1만, 사산일 경우 $1천을 받으며, 5개월내 유산되면 한푼도 못받는다.

미쉬건까지의 여행경비, 의료비용및 법률비용은 일체 미국인 부부가 부담한다.

의료직에 종사하는 샤론여인은 출산후 만일 미국부부가 아기를 거부할 경우에는입양기관에 넘기겠다고 말했다.

◆작년 제1회 체육대회때 과자따먹기 열중하는 꼬마들.

〈전대통령 내방환영사〉
많은 성과 있기를

박 인 순(토론토한인회장)

◆박인순회장

전두환대통령의 캐나다 방문을 환영합니다. 작년9월 트뤼도수상의 방한에 이어 캐나다의 국빈으로 초청, 오는 8월28일부터 캐나다를 방문하게 된 것은 뜻깊은 일이라 충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와같은 국가수반의 교류는 양국의 우의를 돈독히 하며,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교류를 증대시키는 일이기에 양국간에 좋은 영향을 미칠것을 확신하며, 82년 7월31일 전두환대통령이 제안한 「환태평양연안국 정상회담」이 조속히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이와같은 양국의 교류는 캐나다에 이민와서 사는 교포들에게 앞날의 희망을 불어 넣어주는 일이고, 전대통령의 이번 방문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기를 희망하며, 또 가급적이면 많은 교포들을 만나 그들의 삶을 직접 목격하고, 현실을 파악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캐나다 교포사회는 우리 모국의 국가수반이 처음으로 우리가 사는 땅을 방문하는 일에 기쁜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환영해 주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빠른 소식! 놀라운 광고 효과!
(416)
533 2361

〈독자의 광장〉
내가 즐긴 하루

송 종 남(실협회원)

약 한달전 신문지상을 통하여 실업인협회 골프대회가 8월2일에 개최된다는 것을 알고 그동안 집사람 눈치 살피며 몇번인가 연습한답시고 골프장에 나갔다.

어젯밤은 꼭 어렸을적 운동회에 나가기 위하여 새로 사온 신을 머리맡에 놓고 잠을 설치던 그런 기분으로 캇트(Cart)도 손보고 골프빽에 필요한 물건을 챙긴후에 Wife한테 시간 맞추어 일찍 깨워 달라는 최종다짐을 한번 더 단단히 해놓고 잠이 들었다. 사실 골프를 치는것이 즐겁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내일 하루는 가게일에 신경 안쓰고 온종일 해방된 기분을 만끽하는 유일한 날이기 때문에 더 한층 기대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파란잔디에서 허공에 포물선을 그리는 하얀공을 따라 무한한 시선을 줄 수 있는 낭만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다.

어쨌던 나의 Tee-off 시간은 상오9시30분인데 오늘따라 하늘이 잿빛으로 흐려지면서 비가 제법 줄기차게 나리고 있지 않는가?

작년대회는 진행의 차질로 인하여 좋은 평을 듣지 못했던 것이 사실인데 아마 오늘 골프대회를 순조롭게 치루기는 글렀다하면서 Richmond Hill골프장을 향해 차를 몰기 시작했다. 막상 도착하여 보니 내가 걱정을 하고 오던것이 잘못이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다. 이렇게 비가 억수로 나리는데도 불구하고 임원들이 환히 웃는 얼굴로 반갑게 맞아주며, 이미 질서 정연히 대회를 진행시키고 있지 않는가? 또한 참석한 골퍼들이 유유자적한 태도는 더욱 흐뭇하고 특히 한국사람들의 결점인 급하게 목표를 달성하려는 조바심이란 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다.

주최측은 골퍼들이 아침식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을 것을 염려하여 도나츠및 음료수를 제공하는 성의와 배려에 고마웠고, 골상품이 걸린 여섯군데는 줄자를 갖고 비를 맞아가며 충실하게 서있는 임원들의 모습에서 실협의 회원을 위한 공평한 일처리와 정확성을 엿볼수 있었다.

마지막팀이 어둠이 서서히 닥아오는 오후일곱시에 디너를 위한 홀에 입장할 때까지 아무런 사고와 불편없이 170여명의 골퍼들이 상쾌한 기분으로 자기의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여러가지 화제로 즐겁게 우정을 나눌수 있었다.

특히 30여명의 이곳 Supplier들의 참석은 그동안 협회가 힘없는 단체가 아니고 조직화된 강력한 단체임을 과시하는 계기가 되었고, 한인단체주관 행사로서는 퍽이나 깊은 인상을 주었고, 또 이들 회사간부진과의 좋은 유대는 결국 우리 실협회원가게와 매우 밀접한 관계로서 훌륭한 협동관계를 맺게하는 기회가 된줄 안다.

결론적으로 오늘의 대회는 일언하에 회원상호간에 친목과 대화의 기회를 가질수 있었던 뜻깊은 행사였고 대회진행을 알차게 이끌어간 실협실무진의 무리없는 사전계획과 임원간에 업무분담이 잘 조화된 걸작품으로 높이 평가받을 수 있다.

연예인쇼 장소, 시간변경
체육대회준비 카운트다운

제2회 캐나다전국체육대회가 14일상오8시30분 개막을 앞두고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대회를 이틀앞둔 11일 주최자인 캐나다 대한체육회(회장 이병권)은 "총46개 단체팀이 출전하는 준비작업을 스케줄대로 완료, 마무리를 끝냈다"고 발표했다.

한편 14일밤 8시께 체육행사후 같은 장소인 이토비콕 센테니알공원 스타디엄에서 가지려던 배삼룡등의 연예인쇼는 규정에 걸려 장소와 날짜가 변경됐다.

이토비콕의 주택가에서는 하오5시이후에는 마이크를 사용할 수 없다.

이병권회장은 "훌륭한 교민 위안의 밤을 갖도록 좋은 장소를 물색중이다"고 말했다.

전년도 우승팀인 베델교회등 각교회팀과 한인회 코리아타운번영회등 각종 단체가 출전하는 이번대회에는 지방팀으로 런던축구팀이 유일하게 출전한다.

런던축구팀은 청소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토론토의 공동우승자인 모나미팀과 한인장로교회팀의 승자와 대결한다.

이번대회 종목은 다음과 같다.

과자따먹기(유치원생), 1백미터 경주(중학생·고교생·대학생), 공바구니 넣기(국교생), 공굴리기(일반부인), 통치기(노년), 축구결승전, 바구니 터뜨리기(유치원), 200미터 릴레이(국교생), 바늘귀끼기(노년), 400미터 릴레이(중학생), 공나르기(노년), 200미터 경주(고교생), 줄다리기(일반), 1500미터 경주(대학생), 씨름(일반), 3발자전거 릴레이(유치원생), 장애물경주(중학생), 기마전(고교생), 10킬로미터 마라손.

◆양혜신 회장

바자·세미나 계획
부인회, 자문진도 확정

"회원간 친목, 교민복지와 여성지위 향상"등 목적으로 발족한 캐나다 한인총연합부인회(회장 양혜신)는 회칙에 의거, 올해 하반기 행사 계획을 세웠다.

(1)14일 전국체전에 출전.
(2)자선바자(9월)
(3)자녀교육문제 세미나 개최(10월)
(4)양로원 방문 두번(특히 성탄때 어린이합창단을 곁들인 선물방문)
(5)고전무용·꽃꽂이 강습
(6)연말 회원잔치

동부인회는 현재 여성상담실(담당 김옥자), 결혼상담실(담당 이응옥)을 개설 사무실을 물색중이다.

부인회 운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보강된 임원진과 위촉된 자문위원(남·녀각 6명)은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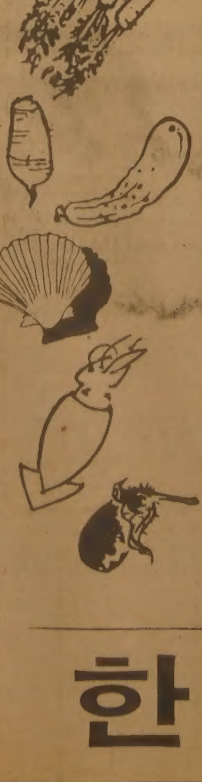
◆자문위원=김문량·전태균·강신봉·황대연·배형도·강찬영·유희자·이신복(Mrs.이영일치과의사)·김인자(Mrs.유재신박사)·박영숙(Mrs.윤여화 전 한인회장)·박옥선(Mrs.이석현 이민사자료실장)·박구현(Mrs. 박인순한인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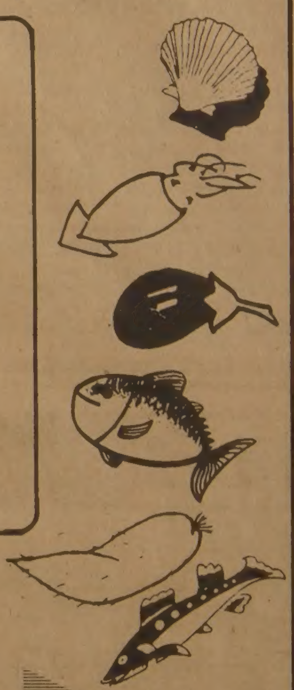
◆임원진
회 장 : 양혜신
부회장 : 오정숙
총 무 : 박경자
조직부장 : 이상온
조직차장 : 윤명자
교육부장 : 김혜숙
교육차장 : 조정자
사회봉사부장 : 박옥남
사회봉사차장 : 전오기
섭외부장 : 이칠영
섭외차장 : 정승원
홍보부장 : 장순옥
홍보차장 : 김경희
예능부장 : 이금복
예능차장 : 김용순
여성상담 : 김옥자
결혼상담 : 이응옥
연락처 : 494-1856(양혜신)·755-9288(오정숙)

한국일보
533-2361

한밭식품 마지막 여름세일

★영업시간 : 오전 9 시~밤10시





인기 상승

● 장미쌀 50 LB.	$14.95
● 햇조기 33 LB. (1 BOX)	$49.95
● 물오징어 22 LB. (1 BOX) (점보싸이즈, 아르헨티나산)	$24.95
● 물냉면 2인용 (2분즉석)	$1.79
● 낙지 2 LB.	$7.95
● 회조개 깐것 2.2 LB.	$7.95

※김치(총각무, 배추김치, 부추김치, 파김치, 깍두기 염가판매)
※갈비(양념도 재워드립니다) 그외도 도시락용, 김치통등 한국서 도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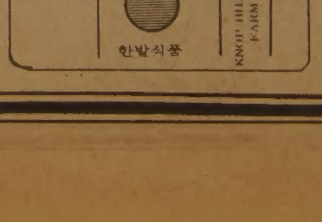
한밭식품 CASH 레지스터 영수증을 모아오세요.

$200.－마다 사뽀로라면 1BOX 무료
$300.－마다 가도야참기름 1병(60온스) 무료
$400.－마다 D.Y. 가주미(50파운드) 무료

주문에 신속배달

한밭식품

466 SOUTH SERVICE RD.
☎ : 274－5401



〈오바상〉의 작가 조이·코가와 본지와 특별인터뷰

인간에의 믿음을 신앙처럼
삶의 목표는 내적평정을 구하는 것

반백의 머리를 소녀처럼 단정히 빗어내린 작가 조이·코가와(47)와의 인터뷰는 부슬부슬 비내리는 8일저녁 토론토시내 크리스티 서쪽 블루어 남쪽 코가와의 작은 집에서 이루어졌다.

뱅쿠버에서 태어나 사스카추완에서 11년간 결혼(일본인 2세와) 생활을 한 뒤 이혼한 코가와여사는 오타와에서 살다 2년전 토론토로 왔다.

그녀는 그동안 코압(Co-Op:한집을 여러 사람이 나누어 쓰며, 부엌·목욕탕등을 공동사용)에서 방한칸만을 소유하다가 소설「오바상」이 성공한 덕분으로 작년에 한채집의 소유주가 되었다.

번쩍이는 것은 하나도 없는 그녀의 집에는 찡그린 불상, 낡은 쌀뒤주, 궤짝, 손으로 만든 두툼한 방석, 이민1세인 그녀의 할아버지의 초상이 담긴 흑백사진, 창호지로 바른 전등갓, 물고기모양의 요령, 아무렇게나 꽂혀있는 버쩍마른 갈대, 타다남은 굵은 양초, 동양풍의 그림들과 더불어 들어서는 방문객을 조용히 압도한다.

누가 감히 이집의 주인을 함부로 볼 수 있을 것인가?

황금제 장식품들 보다 소박하고 낡아보이는 그녀의 것들이 더욱 위압적인 까닭은 공기중에 문화의 뿌리, 그 알맹이들이 자유로이 떠돌아 다니기 때문일 것이다.

◆

1935년 뱅쿠버에서 일본인2세로 태어난 조이·코가와는 20대 중반부터 시를 쓰기 시작, 현재까지 3권의 영어시집을 냈다.

2차대전동안 캐나다의 일본인들이 겪은 고통을 5·6살의 나이에 감수했고, 그 당시의 기억이 최근「오바상」으로 엮어져 캐나다 지식인들에 충격을 주었다.

〈문〉 마가렛·앳우드가 작가는 작품으로서 나타나는 것이므로 작가의 인간적 면모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었지요. 그러나 오늘 이렇게 찾아뵌것은 성공한 일본계 작가 조이·코가와로서뿐 아니라, 선배 이민자로서 또한 하나의 여성으로서 어떻게 살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궁금한 까닭에서 입니다. 우선 「오바상」이 미국에 상륙(※캐나다의 출판시장은 우선 인구자체의 수적 제한때문에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에 진출한 것만으로도 성공으로 생각한다.)한 이후 과연 얼마나 성공하고 있는지? 근황을 말씀해 주셨으면….

〈답〉 한마디로 너무 예기치 않은 호평과 인기를 얻고 있어 저로서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미국 Godine 출판사에서 책을 내놓자마자 〈뉴요커〉, 〈LA타임스〉 등에서 금년도 최고의 소설이라는 평까지 해주니 단지 얼떨떨합니다. 3-4년 걸쳐 작품을 쓰느라 내 진이 다 빠졌기 때문에 「오바상」책을 보고 있노라면 저게 과연 내가 쓴 것인가 싶고, 다시는 돌아보고 싶지도 않을만큼 후련해요. 그런데다 좋은 평을 얻고 있다니…, 현재 일본에서 번역본 출판을 서두르고 있는 것도 기대되고 있고요. 누군가 한국어로도 번역해주면 더 좋겠군요.

〈문〉 이집에서는 혼자 사시는 것인지요?

〈답〉 22살난 딸과 함께 살아요. 피아노를 전공한 아들(24)은 오타와에 있구요. 「오바상」으로 캐나다 작가상(CAA)을 탔고, 그 상금 $5천을 보태 집을 장만했어요. 생전 처음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보니까 얼마나 집이 커졌는지, 내가 집을 소유한다기 보다 집이 나를 소유한 느낌입니다. 적게 가질수록 행복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는군요.

〈문〉 언젠가 모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한때 나는 「사랑과 봉사」의 생활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했었다. 그런데 결혼생활을 해보니 사랑과 봉사보다는 「자기를 추구하고, 실리적인」데로 흘러가 버리는게 피로왔었다"고 애기하셨더군요. 인간관계, 사랑의 문제에 관해 말씀해 주신다면….

〈답〉 21세의 나이에 결혼, 11년만에 이혼했어요. 나는 굉장히 말을 하고 싶어하고, 남편은 말을 하기 싫어하고…이런식으로 서로 너무 달랐어요. 결국 내가 견디어 내지 못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좀더 성숙했었다면 반드시 대화를 남편에게서만 기대할 것이 아니라는 생각도 들고, 헤어진 뒤에야 남편을 존경하게 되더군요. 지금은 서로 좋은 친구가 되었어요. 나는 굉장한 이상주의자예요. '사랑'이란 무엇인가 말로 표현하기 쉽지 않지만…. 하여간 "인간관계"에 믿음을 갖고 인간에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신앙처럼 굳게 지키고 있어요.

개개인의 인간관계는 늘 우리를 실망시키지요. 왜냐하면 '기대'가 '믿음'을 먹어버리니까. '믿음'은 지속성을 띠는 것인데, '기대'는 수시로 변합니다. 실제적 진실(Truth in Fact)보다 감성적 진실(Emotion Truth)이 더욱 중요하다고 믿어요. 내가 각 관계가 준 실제적 실망과 슬픔에도 불구하고 관계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사랑, 친절 등의 말이 다 이런식으로 설명될 수 있겠지요?

사람은 이따금씩 멀찌감치 떨어져 있다 볼 필요가 있어요. 지리적, 실제적인 뜻에서 뿐 아니라, 머릿속에서 일상에서 잠시 떨어져 혼자의 시간을 가진뒤 돌아와 보면 '믿음'과 '힘'이 생깁니다. 샤르뎅이 나치의 혹독한 압박에 시달리면서도 세계는 개선돼 나간다고 믿었던 것은 불안한 경제로 시달리는 요즈음 사람들에 필요한 말일 겁니다.

◆자택에서 인터뷰중인 조이·코가와. 손수 만든 보료와 방석, 돗자리가 보인다.

〈문〉 아버지가 목사여서 기독교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던데요.

〈답〉 아버지는 지금은 목회는 않으시지만, 뱅쿠버에서 초기 일본인(캐나다) 개척사를 쓰고 계시죠. 나는 기독교의 '성령'을 믿어요. 비록 내가 믿는 진실이 부정확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맹목적으로 믿어요. 그러나 기독교가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는, 타인의 진실을 거부하는 기독교의 배타성은 위험하다고 봅니다. 나는 내눈이 멀었음(Blindness)을 알아요. 그 "눈멈" 속에서 '성령'은 내가 알지 못하는 곳 까지도 인도해 준다고 믿으므로 내 믿음이 실패하더라도 자신을 향한 믿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믿음도 진실도 다 변해요. 그러나 모든 변화와 경험을 통해 인간은 뭔가를 배우므로 고통이 두려울 건 없읍니다. 믿음이 없는 삶은 의미가 없어지며, 무의미한 삶은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매일매일 목표(Goal)를 향해 조금씩 진전하는 사람, 같은 방향

고통속에서 인간은 커간다
가장 두려운 것은 의미없는 삶

을 걷는 사람들을 보는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문〉 목표라고 하셨는데, 무엇을 뜻하는지요?

〈답〉 내적평정(Inner Peace)를 얻는 것이지요. 나는 그 점에서 성공적이지 못해요. 어릴때 느끼던 불안감, 해침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많이 없어졌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만, 서양인(Westerner)으로서 내적평정을 찾도록 길들여지기란 쉽지 않거든요. 내적평정은 자신에 가장 충실할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글을 쓰는것도 어쩌면 불안감, 공포를 물리치고, 내적평정을 얻고자하는 때문일지도 몰라요. 혼돈의 시간을 헤쳐나갈 질서를 찾기위한 모색일 것입니다.

〈문〉 자신을 "서양인"이라고 생각하는군요.

〈답〉 캐나다란 나라에서 자랐으니까요. 그러나 내 근저에는 역시 일본의 뿌리가 깊게 도사리고 있읍니다. 나의 음악성, 예민한 감수성, 정열같은 것은 다 일본인의 기질입니다. 캐나다에서 평생을 살면서도 이게 내집이구나 하는 느낌이 그다지 강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일본에 갔을때 내집처럼 느꼈냐하면 그렇지도 않거든요. 이것이 이민2세들의 큰 고민입니다. 그러나 3세, 4세로 내려갈수록 이런 고민은 조금씩 줄어들겠지요. 내 아들과 딸을 보면 그들은 나와는 조금 다른 성질의 고민이겠지만 나처럼 아이덴티티 문제가 심각하진 않은 것 같아요. 3세들은 사회적으로 편안치 않게 느끼는 정도라고 할까요. 한 민족의 고유음식·고유문화는 오랫동안 역사를 타고 흘러가는 것인 만큼 이 문제는 오랜세월이 지나야 해결되리라 봅니다. 아이덴티티 문제만으로 본다면 이민1세는 2세의 불안을 잘 모르리라 생각해요. 이식된 사람들입에는 다 마찬가지이지만 1세는 어딘가 돌아갈데가 있고, 그리워할데가 있는 사람들이지 않을까요?

〈문〉 「오바상」을 쓴 특별한 동기라도 있는지요. 일본인 후예로서 사명감같은 걸 느꼈다든가….

〈답〉 시집을 출판했을때 많은 사람들이 너는 일본인 코뮤니티를 위해서 뭔가 해야하지 않느냐는 소리를 많이 했어요. 그러나 나는 정작 어렸을 때의 기억, 그 고통을 되도록 피해온 셈이라 굳이 그것을 소재로 뭔가를 쓸 생각은 하지 않았지요. 몇년전 오타와에서 트루도수상 사무실에서 일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일본인2세인 서지학자 뮤리엘·기다가와를 만났고, 그가 보관하고 있던 많은 기록문서가 큰 충동이 됐어요. 그러던 어느날 꿈속에서 단편을 쓰기 시작했고, 그다음부터는 힘에 밀리듯 써나가다 보니 장편

2세 아이덴티티 1세보다 심각

이 돼버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메이빗·스즈끼(일본인3세·과학자)나 하야까와(캐나다출신 일본인2세·미상원의원)와 같은 사람과 나를 비교하기도 하지만 스스로 그렇게 비중 큰 인물이라고 생각진 않습니다.

〈문〉 캐나다란 나라나 자유당이 내거는 복합문화주의 정책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지?

〈답〉 어떤 나라건 사람사는 곳은 다 마찬가지예요. 캐나다는 다른 나라들보다 덜하지도 더하지도 않은 곳이라 생각합니다. 50년대 남부 앨버타주에서 통계를 낸게 있는데, 당시만 해도 일본인중 약5%만이 다른민족과 결혼했어요. 그러나 80년대 들어서는 일본인의 결혼전수중 약90%가 일본계가 아닌 사람과의 결혼이었어요. 이는 캐나다에서 앞으로 약25년, 한세대 뒤에는 순수한 일본인은 거의 없어진다는 얘기가 되고, 그만큼 캐나다인은 서로 동화될 것이라는 말이 됩니다. 사람은 자신의 길을 선택합니다. 다른 누구도 그 선택을 대신해 주지 않아요. 내가 만약 이혼하지 않고 그냥 함께 살았더라면 어떤 더 좋은 행복이 왔을지, 혹은 더 불행해졌을지 그건 모르는 일이지요. 단지 한가지 분명한 것은 그때 내가 함께 살았더라면 나는 정신적으로 중병에 걸렸거나,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건 다른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고 나는 내가 택한 길이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아요. 요즈음같은 시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특히 여성들이 혼란을 일으키고 있을지 모릅니다만, 자신의 결정에 대한 책임감과 용기가 있다면 어떤 길이건 자신에 맞는 길을 찾아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글·사진 조미래 기자〉

치정과 恐怖의 추리소설

黃金의 사나이

〈46〉

金聖鍾 작

殺意의 斷層 ⑬

『뭐, 목욕까지 해?! 아니, 그럼 수가…. 식모도 봤어?』

『식모는 밖에 나가있었어요. 일부러 내보냈어요.』

『목욕만하고 돌아갔어?』

『아뇨. 내일까지 2천만원을 입금시키래요.』

두봉은 입을 딱 벌렸다.

『갈수록 태산이구나. 안 돼. 주지 마. 너 그러다가 너희 집안 알거지 된다. 한도 끝도 없을테니까 딱 잡아떼. 배짱있게 나가란 말이야. 남편한테 알려도 좋다. 얼마든지 말해라. 이렇게 나오란 말이야. 달라고 할때마다 꼬박꼬박 주니까 그놈이 맛을 들여 계속 그러는거지.』

『안돼요. 그럴 수 없어요. 그놈은 무서운 놈이에요. 그놈은 내일까지 돈을 입금시키지 않으면 틀림없이 남편한테 말할 놈이에요. 아주 잔인무도한 놈이에요.』

『도대체 어떤 놈인데 그래? 어떻게 생긴 놈인데 그래?』

『이름 밖에 몰라요. 이름은 모세라고 해요.』

『모세? 아니 구약에 나오는 모세말이야? 십계명으로 유명한…』

『아니예요. 한자로 이렇게 써요.』

그녀는 탁자 위에다 손가락으로 『毛世』라고 써보였다.

『하여간 괴이한 이름이구나. 가짜 이름인지도 모르지.』

『나이는 서른 넘은 것 같고 몸이 건장해요. 그리고 언제나 선글라스를 끼고 다녀요. 미남이고 뒤기 같이 생겼어요. 제가 알고 있는건 그것 뿐이에요.』

『주소도 몰라?』

『몰라요. 자기에 대해서는 일체 알려고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물어본다고 해서 말해줄리도 없어요.』

『그럼 그놈한테서 연락이 오기 전에는 연락할 방법이 없겠구나.』

『네, 그래요.』

"그 怪物같은 놈을 내가 한번 만나보지…"

『그 괴물을 내가 한번 만나보지. 만나서 요절을 내지.』

『당장 내일이 문제예요. 내일 2천을 입금시키지 않으면…』

『그래 넌 2천만원을 또 날리겠다는거냐?』

朴男 그림

두봉은 눈을 부릅뜨고 누이를 노려보았다. 문자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럼 어떡해요?』

『어떡하다니… 그게 말이라고 하는거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오빠한테 상의드리는거 아니예요.』

『난들 뭐 별수있니 이렇게 하는게 어떨까?』

『어떡해요?』

두봉은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다.

『이러다간 정말 너희 집안 알거지되고 망한다. 너 하나만 희생되면 되는거야. 희생도 아니지만 말이야. 그 사람한테 솔직이 털어놓는거야. 잡아 잡수라고 말이야. 그러면 용답이 있겠지. 너를 용서해주든가 아니면 이혼을 하든가….』

문자는 머리를 세차게 저었다.

『그이는 절대 용서해줄 사람이 아니예요. 보이기는 그렇게 보여도 얼마나 차가운 사람이라구요. 용서해준다 해도 평생동안 죽어지내기는 싫어요. 그 결과는 생각만 해도 무서워요.』

『그럼 할 수 없지 뭐. 깨끗이 이혼당하고 혼자 살든가 재혼하든가….』

『안돼요. 그럴 수는 없어요. 안돼요!』

그녀는 흥분해서 낮게 부르짖었다.

〈단 편〉

불루어스트리트의 하루〈3〉

이 태 준(문협회원)

비웃음이 곁들인 장갑주의 응답이었다.

"저 최감루때문에 이 근처 술집주인들은 골치가 아프대."

"왜? 술집에 가서도 목에 힘을 주나?"

"그게 아니고, 최감루가 나타났다 하면 최감루의 마누라가 나타나서 수라장을 만들어 버린대."

건너편 술집앞에서는 최감루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려는 최감루의 마누라와, 끌려가지 않으려는 최감루와의 실랑이가 점점 격렬해지고 있었다.

"이놈아 이짓도 하루 이틀이지, 허구헌날 나도 이제는 지쳤다. 가자! 아주 오늘은 변호사한테 직접 가서 깨끗이 끝장을 내버리자!"

"이놈의 여편네야! 멱살이나 놓고 말해. 남부끄럽게 "이것이 무슨 몰상식한 짓이여, 이년아!"

"어이구! 주제에 그래도 부끄러운 줄은 아누만. 너만 부끄럽고 나는 얼굴에 쇠가죽이라도 뒤집어써서 챙피도 모른줄 알아?"

그때 최감루가 마누라의 손에서 옷을 빼내려고 확 잡아채는 바람에 최감루의 와이셔츠가 북 찢겨나갔다.

"너 정말 이러면 죽여버릴거야!"

"죽여라 죽여! 내가 새끼들 때문에 이제까지 살아왔지, 살고 싶어서 산 줄 아나?"

최감루의 마누라는 멱살을 잡고 있는 손에 더욱 힘을 주며 찢어지게 소리를 질렀다.

"가서 말리든지 해야지, 저러다간 정말 무슨일이 벌어지겠는데…."

구경만해서는 안되겠다고 판단한 장갑주가 김웅서의 동의를 구하며 한 말이었다.

"남의 부부싸움에는 함부로 끼어드는 것이 아니여. 저러다가 결국은 최감루가 끌려갈거야."

그들이 말을 주고 받는 동안 머리채를 잡힌채 질질 끌리고 있던 최감루의 마누라가 결정타를 가하는 소리가 "찰싹!"들려왔다.

마누라로부터 뺨을 얻어맞은 최감루는 무척 당황하는 모습으로 주위를 두리번 거렸다. 혹시 아는 사람이라도 보지 않았나 하는 수치심때문이었다. 싸우느라고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던 최감루는 뺨을 얻어 맞은후에야 너무 많은 관전자가 자기를 주시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고개를 떨구며 마누라가 끄는대로 끌려갔다.

최감루의 마누라가 최감루를 끌고 간 곳은 교민으로서는 유일한 신기중변호사 사무실이었다.

잠시 한가한 틈을 이용해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던 신기중변호사는 예고도 없이 험악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난 최감루내외의 행위에 불쾌감이 앞섰으나, 감정을 억제시키며 그들을 정중하게 맞이했다.

"어서 오십시오. 날씨가 무척 덥지요?"

우선 그들을 사무실의 상담실로 안내하고 그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심한 가정불화로 인해 찾아온 것이라면 해결이 쉽지 않을것을 예상하고, 비서에게 오늘은 더 이상 예약을 받지 말도록 부탁의 말을 남기며 상담실로 들어갔다.

"죄송합니다. 기다리게 해서…."

신기중변호사가 의자를 당기며 말을 끝내기도 전에,

"오늘 이 자리에서 끝장을 낼려고 왔어요."

성급하게 튀어나오는 부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흥분한 상태에서는 감정이 앞서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려면 우선 흥분을 어느정도 진정시켜야겠다고 생각한 신기중변호사는 비서에게 시원한 음료수를 주문시킨 다음,

"아주머니, 법은 공정하고 냉정해야 합니다. 저의 임무는 두분의 의사에 따라서 법의 절차를 밟아 주는 것입니다. 원하시는대로 해드릴테니 우선 고정하십시오."

여자에게는 이 정도로 제동을 걸어놓고, 남자의 의견을 먼저 묻는것이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며,

"선생님께서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실수 있겠읍니까?"

눈길을 최감루에게 돌리며 의사를 타진해 보았다. 그런데 신기중이 자세히 보니 남자는 분명히 낯이 익은 사람이었다. 양복이 구겨지고, 머리칼이 엉겨서 진가 민가는 하지만 틀림없이 안면이 있었다. 최감루의 대답을 기다리며 기억을 더듬다 신기중은 하마터면 무릎을 칠뻔했다. 바로 그가 감루왕으로 이름난 최기철이라는 사실을 더듬어 냈기 때문이다.

"나도 이제는 자포자기요. 이 여자가 하자는 대로 하겠소!"

최감루역시 조금도 굽힐 것 같지 않는 대답이었다. 상대의 남자가 최기철이라는 것을 알아낸 신기중변호사는 이미 공식석상에서 서로 인사를 튼 사이라서 뒤늦게 인사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계속 모른척 할 수도 없어 난감했다.

〈계 속〉

8.15경축 제2회 전 캐나다 교민 체육대회

일 시 : 1982년 8 월14일(토요일) 오전 8 시30분   장 소 : Centennial Park Main Stadium

운동장 BUS편

Royal York(Subway Station)에서 BUS 2A를 타고(Centennial Park Dr. 로 가는것임) ※CENTENNIAL PARK STADIUM정문에서 내림.

사 과 문

금번 8.15체전과 함께 공연 예정이었던 연예인쇼는 Etobicoke시 By-law에 의해 운동장에서의 공연이 금지되었음에, 교민들께 지면을 통해 사과말씀 드립니다.

다음 기회에 교민위안의 밤을 꼭 마련할 것을 약속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알립니다

참가팀및 단체는 당일 8 : 30분까지 꼭 집합하여 입장식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최 : 재캐나다 대한체육회

실협뉴스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제공-

ONTARIO KOREAN BUSINESSMEN'S ASSOCIATION

627A Bloor St. W.
Toronto, Ontario
M6G 1K8
Phone: 533-7923
533-8344

입체안경(3D Glass)주문연장

4일간 34,900개 신청, 8월16일까지

8월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협회사무실에서 받은 3D Video Glasses의 1차 주문은 90여 상점으로 부터 총34,900개에 달했다.

8월17일부터 약3주 간격으로 정기적으로 방영되는 입체영화 감상을 위한 이 Video Glasses는 방영일자가 박두하면서 점점 인기를 더하고 있다.

협회에서는 미처 주문하지 못한 회원이나, 더 필요한 회원을 위하여 8월16일(월)까지 주문 배수 기간을 연장, 많이 이용해 주기 바라고 있다.

한편 협회에서 협정한 가격보다 싼 값으로 납품되고 있는 예가 있다는 소문에 대해 해당회사는 값이 싼 제품은 전자화(Electronise)가 되어 있지 않아 완전한 효과를 발생하지 못한다고 했다.

주문기간, 방법은 다음과 같다.

품명-3D Video Glasses
소매가격-99센트
공급가격-500개 미만 72센트, 500개 이상 70센트
주문기간-8월16일(월)까지
주문처-협회사무실(533-7923)

◆반품(Return)은 없으며 배달하여줌. 현재까지 확정된 입체영화 방영스케쥴은

8월17일 Ch6·22
9월 7일 Ch 11
9월27일 Ch 7
10월14일 Ch 79

◆알림◆

◉8월2일 실협골프대회시 한국산 부라운색 바탕에 청색 체크무늬의 100% Polyester 장바를 습득하였으니, 협회사무실로 연락바랍니다.

◉캐슈 레지스터에 부치는 7% Sales Tax Schedule을 협회에서 확보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회원은 사무실(533-7923)로 전화주시면 우송해 드리겠읍니다.

해밀톤 지구 실협회장단 내방

공동이익 위한 긴밀한 협조다짐

지난8월9일 해밀톤지구 실업인협회의 조용구회장을 위시하여 정덕 빌링톤지구 담당 부회장, 그리고 장홍규 해밀톤지구 담당부회장의 세분이 본협회를 방문하여 차선겸회장을 비롯한 협회간부와 여러가지 유익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조회장은 근간 실시된 7-Up, Frito-Lay등의 Promotion을 해밀톤지구의 회원들도 혜택을 받게되었음을 치하하고, 앞으로도 계속 긴밀한 유대를 가지고 상호협조, 모든 지역의 한인회원들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자고 말했다.

한편 차선겸회장은 해밀톤지구 실업인협회가 하루속히 튼튼한 재정적 기반위에 동지구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계속 활동하기를 희망하는 동시에 본 협회로서는 힘자라는데 까지 모든 지역의 회원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일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방침이라고 말하였다.

회원들의 Complaint 해결방법, 업자와의 딜 추진, 협회의 합리적 운영방법 등 협회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에 관하여 진지한 의견을 교환하고, 앞으로 상호이익을 위하여 더욱 긴밀한 협조를 하기로 다짐했다.

<법률상담> 유 서 <III>

Ralph M. Levine
강 공 선 역

◉부부재산
(Matrimonial Property)

부부재산 제도가 실시되고 있는 지역에서 결혼한 사람은 자기재산의 전체를 유서로 처분할 수 없다. 여기서는 배우자가 결혼과 동시에 일정한 재산권을 법률로서 취득하게 되어 있으므로 부인은 결혼기간중에 취득한 모든 재산의 절반에 대해서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 부부재산 제도가 실시되고 있는 어떤 지역에서는 해당 재산을 남편이 유서로서 처분할 수 없게 되어 있는 지역이 있다.

그러나 온타리오주는 부부재산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재산의 분리를 현행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다시말하면, 남편이나 부인이나 결혼 이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만 소유권이 있고, 결혼중에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각기 공로가 인정되는 부분의 재산만 소유할 수 있다. 온타리오주의 개정된 가정법은 배우자에게 보다 많은 재산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가족의 재산 절반에 대한 권리는 이혼이 성립되기 전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혼이 아닌 경우에는 남편이나 부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은 각자의 소유로서 각자의 유서로만 처분될 수 있다.

◉보험증서(Insurance Policy)

수익자가 지정되어 있는 보험의 수익은 유서에 의해서 양도될 수 없고, 그 수익은 사망자의 재산에 귀속될 수도 없다. 보험회사는 그 수익을 증서상에 지정된 특정인에게 직접 전달한다. 그러나 수익을 보험가입자의 재산에 귀속시키도록 규정해 놓은 보험증서의 수익은 사망자의 재산에 귀속되고 따라서 유서상에 지정된 수익자에게로 돌아갈 수가 있다.

이것을 좀 더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두아들을 가진 부부의 경우를 하나 생각해 보기로 한다.

남편은 죽은다음 부인에게 집과 차를 넘겨주기를 원하고 있고, 다해서 년$20,000정도의 수입이 나오는 여러개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 또한 부인에게 넘겨서 부인이 $20,000의 고정된 수입을 누릴수 있게 하기를 원하고 있다. 한편 그는 두아들에게 집이나 사업체를 사는데 보태쓸 수 있도록 현금을 증여하고자 수년전에 두 아들을 수익자로 하여 똑같이 나누어 가질수 있도록 $100,000의 생명보험을 들어놓았다.

이러한 생각에서 남편은 유서에다가 차와집은 부인에게, 그리고 두아들에게는 각각$50,000씩을 상속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잔여재산은 부인에게 주기로 하였다.

그런데 결과는 그 남편이 생각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그가 죽은후 두아들은 유산가운데에서 각각 $50,000씩을 받게 되었을뿐 아니라 보험수익금에 대한 $50,000도 받게된 것이다. 따라서 유언집행자(Executor)는 두아들에게 $50,000씩을 주기위해서 수입이 나오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해야 하게 된 것이다. 죽은 남편은 두아들에게 그렇게까지 후하게 해 줄 생각은 전혀 없었던 것이다. 이럴때에 정당한 절차는 두아들에 관한 내용을 유서에 삽입하지 말았든지, 아니면 보험수익금을 사망자의 재산에 귀속시키도록 해놓았어야 옳았던 것이다.

성장하는 우리 실협
성공하는 나의 사업

<비지네스 탐방>

BREAD MAN LTD

80년도 후반부터 한인교포사회에 코너스토아가 아닌 새로운 사업으로서 소개되기 시작, 현재 수명의 한인들이 이미 프렌차이즈 주인(Franchise Dealer)으로서 종사하고 있는 Rexdale 소재의 Bread Man Ltd의 본사로 탐방을 실시했다.

1977년초에 Gerald McCall 사장에 의해 설립 시작된 Bread Man은 현 토론토 지역에 10개 상점, 캐나다 전역에 총42개 업소의 프렌차이즈가 있다. 교포 오기환씨가 부사장으로 프렌차이즈부를 담당하고 있다.

오기환부사장과의 질문형식에 의한 사업내용을 소개해 본다.

문)Bread Man의 프렌차이즈를 위한 총투자액은 어느정도이며, 자기자본 투자는?

답)총투자액은 시설및 장비투자 10만5천불, 리스홀드(Lease Holds)3만불, Franchise Fee 1만5천불로서 총15만불 정도가 투자되며, 자기자본은 6만달러 정도 필요하다.

문)특별한 교육과정이 있는지?

답)프렌차이즈 주는 개업전에 토론토의 본사에서 1주간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개점후 2~3주간은 본사의 세일즈 스탭(Sales Staff)들이 프렌차이즈 주가 독자적으로 영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운영관리를 도와준다.

문)영업시간과 Baking에 소요되는 시간은?

답)영업시간은 주7일 오전7시부터 저녁9시까지가 일반적이며, 위치에따라서 조정될 수 있다. 보통 Baking에 소요되는 시간은 6시간 정도이며, 오전 6시부터 12시 사이이다.

문)상점당 평균 주매상과 재료비의 비중및 인건비 비중은?

답)현재 캐나다 전역 42개 업소의 주평균 매상은 $3,500선으로 년 17만5천불 정도이며,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총매상의 28%, 인건비는 자기노동이외에 풀타임 한사람, 파트타임 2사람으로 하여 년2만5천-3만불 선이며, 비중은 15~17%를 차지한다.

문)그러면 년 평균매상 17만5천불로 계산하여 프렌차이즈주가 차지하는 순이익(Net Profit)은?

답)모든 사업은 개개인의 경영관리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우리 본사에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자기노동을 계산하지 않는다면 년5만~6만불의 Return으로 분석한다.

문)한 프렌차이즈주가 1개 스토아 이상을 소유할 수 있으며, 임의로 처분 할 수 있는지?

답)프렌차이즈는 단순히 1개업소만을 사는것이 아니고 정해진 지역을 사는 것이므로 개인 경영 능력만 인정된다면 가능하며, 매매는 소정의 절차만 이행하면 언제나 가능하다.

◆브레드맨 프렌차이즈 스토아의 내부.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yr. $9./mo. 구독료(선금) 년$99. 월$9. 영구구독: $500,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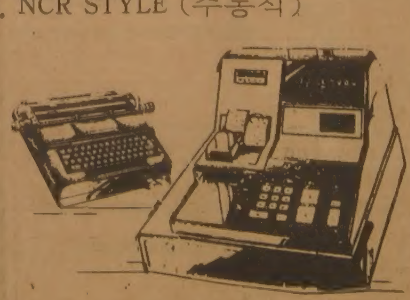
한국일보는 가장 넓은 지역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일간신문입니다

새로 개업한
서울식품 서부지점
☎: 243-9544
★배추김치·총각김치·파김치·부추김치·오이소백이
※좋은 품질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봉사합니다.
1391 WESTON RD

한국비데오센타
- 각종 비데오테잎 대여전문
- 품질보장·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TV판매
☎ 532-0210 손 병 헌

실협회원만이 가입할수있는 단체상해보험
당신의 가장 귀한 재산은 수입을 보장할수 있는 능력입니다.
CAROLINA LIFE & ACCIDENT INSURANCE COMPANY 는
당신의 수입의 손실을 보호해드립니다.
◇사고 당일부터 현금으로 드립니다.
◇별도 지정인이 없는한 본인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정부나 기타 보험회사의 보상에 관계없이 별도로 지급해 드립니다.
◇직장내외를 막론하고 24시간, 365일 보호합니다.
전화 224-2235 DEAN VERNON 을 불러 주세요.

SKYWAY BUSINESS MACHINES
SPECIAL 30% OFF FOR K.B.A. Members
1. 각종전자계산기 수리
2. PAPER ROLL
(Each Case=100 Rolls)
3. NCR STYLE (수동식)



◆캐쉬레지스타 ◆복사기 ◆계산기 ◆각종타자기
SHARP 3M, MITA COPYSTAR, IBM
SALES-LEASING, REPAIRS & SERVICES
215 Carlingview Dr. Unit 109 Rexdale
(B)675-1295~6, (R)671-0938 김 인 환

한인실업인 협회지정
GLOBE
PEST CONTROL
"WE KILL BUGS"
Residential.Comm.Industrial
MONTH FLAT : $8
NO INITIAL CHARGE
※다른조건의 비용청구는 없음.
전화주시면 즉시 달려가겠읍니다
WE'RE SMALL BUT WE'RE GOOD
ASK ABOUT OUR WRITTEN QUARANTEE
GOV'T LICENSED 491-1585 FREE ESTIMATES
789-2527

Beef Jerky
1 BOX(48 PKGS) $13.10
술안주·다이엩용 스낵으로
한번 잡수어 보신분은 꼭 다시찾는
알버타산 순 쇠고기 포!
본인은 금번 본사와 온타리오주 총판권 계약을 맺고 소매상을 경영하시는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온타리오주에서는 처음 취급되는 비프 절 -키를 판매중이오니 언제든지 주문하시면 즉시 배달해 드리겠읍니다.
BIG CHIEF ONTARIO 총판
정세용 244-2483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구독신청은 533-2361

自由中國도 日왜곡 거센反撥

臺北시내선 史上첫 反日示威도

"侵略史"은폐는 두손으로 하늘가리는格
신문·방송들 連日 규탄報道
한국의 움직임 非常한 관심

【臺北=李鍾九특파원】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사건은 자유중국에도 거센 反日회오리를 일으키고있다。이곳 신문과 방송등 전언론은 연일 교과서파문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특히 한국과 일본관계에 대해 깊은 관심으로 주목하고있다。이같은 대대적인 反日움직임은 자유중국정부 수립후 처음있는일로 중국인 자신들도 놀랄만큼 지극히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있다。그이유는 큰사건이 터져도 중국인 특유의「만만디」로별관심을 쏟지않는 이들도 이번교과서문제만은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고있기때문이다。

자유중국 문교부는 7일 일본의 침략사를 사회교재로 삼아 다음학기부터 각급 학교에 배포、학생들에게 민족의식을 고취키로했다。문교부 편수국 교과서심사위원회는 이날 상오 관계자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는데 초중등 교과서 편수위원회 위원장 黃發策씨는 성명을 통해『2세들에게 강한 민족정신을 배양시켜주기 위해서』라고 교과서 편찬이유를 밝히고 교과서 이름은『항일혈루사」라고 표현했다。교재편찬 작업은 현재 역사학자、2차대전참전 군사전문가 작가들이 맡고있다。또 이날 臺北시내 영화관협회는 오는 10일부터 특별제작된 항일 투쟁사를 그린「慘痛대전쟁」이라는 영화를 일제히 상영키로하고 그 수입금은 전부 정부에 기증키로 결정했다。

한편 臺北市경찰당국은 1주일전부터 시내 번화가인 衡陽路에 있는 中·日교류협회 사무실 부근에 정·사복 경찰관을 배치、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삼엄한 경비를 펴고있다。실제로 지난 6일에는 陽子明이라는 57세의남자가「타도 일본군국주의」「타도 일본오랑캐」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는데 이 시위는 정치에 관심을 기울이지않고있는 자유중국에서는 최근에 처음일어난 사건으로 시민들의 관심을 끌었다。신문방송의 보도의 톤도 상당히 격앙되어있다。CBS(차이나 TV)는 6일 하오 8시 골든아워에 30분짜리 특집으로「죽음의 도가니」라는 다큐멘터리를 방영했다。

이 특집은 2차대전때 일본의 세731부대(石井부대)가 기도했던 세균및 생화학전을 담은 내용으로 당시의 기록필름과 살아있는 증인들의 증언을 토대로 일본군국주의의 만행을 생생히폭로한것이다。이 프로에 출연한 한 분가는『만일 일본의 패망이 1~2년만 늦었더라도 연합군은 세균전으로 엄청난 인명피해를 입었을것이며 일본과의 싸움에서 졌을것』이라고 말했다。전국규모의 라디오 네트워크를가진 경찰방송국도 6일하오9시뉴스의 톱으로 反日운동을 벌이는 서울의 표정을 전하면서『1천명의 택시운전사가 反日시위를 벌이고 일본인을 안태워주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같은날 TV방송국은 저녁뉴스시간에 파고다공원에서 노인들이 反日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을 필름으로 비추었다。한편 최대신문인 聯合報는 7일자 외신면 톱으로 서울의 표정을 다루었고 6일자 신문에는 사회면 톱으로『일본이 침략을 숨기는것은 세계를 기만하는 것이다。이는 마치 두손을 들어 하늘을 가리는 것과같다』는 긴제목을 달아 일본의 교활함을 노골적으로 나무랐다。영자지 차이나·포스트도 7일자 외신면 톱으로 AP통신이 타전한 서울의 표정을 상세히 보도했는데코리아·타임스가 사설을통해 지적한일본의 히로시마 원폭 투하기념일의 평화운동과 새로운군국주의에로의 회귀라는 내용을 인용했다。

日, 특사派韓 거듭要請
自民일부의원, 스즈끼決斷 촉구

【東京7日=宋孝彬특파원】 일본정부는 교과서 검정문제에 대한 입장을 한국측에 설명하기 위해 특사파견을 거듭 한국정부에 요청했다고6하오 미야자와 관방장관이기자회견에서 밝혔다。

그러나 이날 미야자와장관의기자회견에 앞서열린 閣議에서 사꾸라우찌 일본외상은『한국정부가 교과서문제와 관련한 일본정부측의 對韓특사파견제의를 사실상 거부함으로써 일본정부로서는 당분간 특사파견을 단념할수밖에 없다』고 보고한바 있다。

사꾸라우찌외상은 이날 각의에서『5일밤 외교경로를 통해 특사파견문제를 조회했다』고 밝히고『그결과 중공으로부터는 아직 회답이없으나 한국은 시기상 다소 무리라는 잠정적 의견을 전해왔다』고 보고했다。

【東京7日=宋孝彬특파원】 일본 自民黨내의 일부 소장파 문교관계의원및 한일의원연맹간부들은 외교문제로 비화한 교과서 왜곡기술문제의 수습을 위해 스즈끼수상의정치적결단을 촉구했다고 7일字 아사히(朝日)신문이 보도했다。

"日의 再考요청 못받았다"
외무부소식통 駐日대사 一時귀환 不考

외무부는 7일 일본교과서 왜곡문제와관련、일본으로부터 特使파견의 재요청을 받은바없다고 밝혔다。

외무부의 한소식통은 이날『지난번 기우찌(木內昭胤) 외무성 亞洲국장과 다까이시(高石邦男)文部省관방장을특사로 파견하겠다는 일본측의 제의를 저부한것은 현시점에서 교과서시정문제에대한 명확한 답변이 없는한 실무자派韓이 시기적으로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않는다는 판단에서 취해진 조치』라고밝히고『만일 특사派韓의 재요청을 받게되면 그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본뒤결정하게 될것』이라고말했다。

이 소식통은 이어『한국정부는 일본의 교과서 왜곡문제로 야기된 韓日간의 문제들은 조속한 시일안에 해결돼야한다는 입장에서 외교적인 대화통로는 항상 열어놓고 있다』고 밝히고『그러나 서로 대화를 갖는것은 문제해결을위해 도움이되는 차원이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소식통은『崔慶祿 駐日대사를 일시소환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아직 그런생각은 하지않고 있다』고 밝히고『우리는 일본의 조치를 기다리고있지 사람을 오라는 입장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팔게릴라 武力除去"
美의 撤收요구를 拒否

【예루살렘6日UPI·聯合】 이스라엘은 6일 西베이루트에서 이스라엘軍을 철수시키라는 미국의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면서 팔레스타인 게릴라들을 무력으로 제거할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스라엘외무성의 한 대변인은 이날 회견에서 앞서 긴급각의후에 발표된 코뮈니케의 西베이루트 불철수방침을 재차강조한후 이스라엘의 군사행동이 필요하다는점을 미국에 납득시키도록 노력할것이라고 말했다。

이대변인은 또 西베이루트의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 전사들은『그들이 평화적으로 철수하지않을경우 이스라엘에의해 무력으로 축출될것』이라는점을 명심해야할것이라고 경고했다。

하비브·PLO 撤收문제 最終합의

【베이루트·유엔본부6日AP聯合】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와 필립·하비브 美중동특사는『극소수의 구체적·보충사항』을 제외하고는 PLO게릴라들의 베이루트 철수를 둘러싼 주요문제에 관해 최종적인 합의를 보았다고 PLO관리들이 6일 밝혔다。

PLO급진파의 하나인 팔레스타인해방인민전선(PFLP)의 대변인 자밀·힐랄은 야세르·아라파트 PLO의장외 다국적 평화유지군에 포함된 프랑스軍선발대의 베이루트도착이전에라도 2개대대 7백여명의 PLO전사들을 요르단의 아카바港으로 해상철수한다는 평화 해결안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安重根암살자云云 抗日독립운동모독"
李文公장관 논평

李振羲 문공부장관은 7일 하오 마쓰노(松野幸泰) 일본국토청장관이『한국교과서가 이또·히로부미(伊藤博文)를 원흉이라고 부르면서 암살자인 安重根을 영웅시하고 있다』고 발언한데 대해 논평을 요청받고『이는 帝國주의침략행위와 國權수호를 위한 의거를 혼동한 극히 유감된 발언으로 일본교과서 왜곡도 이런 발상에서 비롯된것』이라고 말했다。

李장관은『이같은 인식의 혼동과 왜곡이 잠재해있는한 韓日관계의 선린우호는 기대하기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고『安重根의사의 행위가 國權을 수호하기위한 의거란사실은 國籍을 초월해서 너무나 자명한 역사적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安重根의사의 의거를 암살자운운하는것은 한국국민의 抗日독립운동을 모독하는 역사로서 용납할수없는 망언』이라고 말했다。

한국 强硬조치 北京방송 보도

【서울=聯合】 中共의 北京방송은 5일 최근 국제적으로 물의를 빚고있는 日本역사교과서 왜곡사건과 관련、韓國정부가 이에대해「강경한 조치」를 취한 사실을 논평없이 보도했다。

中共의 이放送은 최근 韓國내에서는 日本의 이같은 歷史왜곡을 규탄하는 각종 규탄대회들이 연이어 열리고있다고 전했다。

"「侵入」대목 다시 고치겠다"
世界史집필 日고지마敎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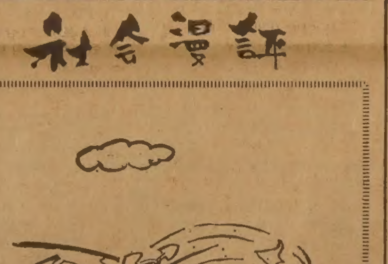
【東京7日=宋孝彬특파원】 일본학생들의 고교용 세계사를 집필한 고지마(小島淑男)교수(日本大)가 7일 문부성의 요청으로「침략」을「진입」으로 바꾸었던 대목을「正誤訂正」으로 다시 고치겠다고 밝혔다。

고지마교수는 오가와 문부상이 6일 국회답변을 통해『필자로부터「정오정정」을신청해왔을경우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발언한뒤 처음으로 재개정요청을 문부성에 낼뜻을 분명히 했다。

오가와 교수는 역사적사실의 왜곡부분을 그대로 방치하는것은 교과서의 미비를뜻하는 것이므로 잘못된 부분의 재수정요청을 문부성에내는것은 당연한 것이라고주장했다。

오가와교수는 고교용 새교과서에서 日本군이 대륙과 한반도를 침략한 사실을「진입」으로 고치고 독일 나치가 유럽에 침략한사실은 그대로 침략이란 용어를 사용토록한것은 전후 모순된일이라고 비난했다。

社會漫評



마음대로 할수만 있다면…

地平線

일본 검정교과서의 史實왜곡문제로 우리 여론이 들끓고있는 판국에 마쓰노(松野幸泰)란 일본 국토청장관은 安重根의사를 영웅으로 추존하는 우리나라 교과서에 대해 트집을 잡고 나섰다。그것도 다른자리 아닌 일본각의에서 정식으로한 발언이었다니 놀랍다。▼하기야 그는 지난 23일에도「한일합방이 어찌 침략인가」고 하여 우리나라서는 물론、심지어 일본안에서조차 한국인의 반발을 격화시킬 것이라 하여 비판과 우려의 소리가 높았던 처지고보면 아마도 말같지않은 말만 가려서 한는것을 즐기는 사람됨인듯 하다。▼도시 그들나라의 헌법과 그 맥락은 지난날 침략전쟁의 잘못을 고스란히 시인하고있는데 이 국토청장관께서만은 스스로 왕년의「대일본제국각료」쯤으로 착각하고 있는것이나 아닌지、의념을 품게한다。그들헌법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있다면 생각도 할수없는 망언이다。▼安重根의사는 1909년 10월26일 伊藤博文을 쏘아죽였다。그것은 당시의 明治天皇이 노·일전쟁을 하면서 전쟁목적이 동양의 평화를 유지하고 한국의 독립을 굳건히 한다는데 있다고 밝혔는데도 伊藤은 天皇의 뜻을 어기고 되려 한일협약으로 우리나라를 삼키려한 원흉이었기 때문이다。바로 그를 없앰으로써 독립을 쟁취하려 했던것이다。▼安重根의사의 의거는 나라를 빼앗긴 우리들의 무한한 민족적 분격을 발로시킨것이다。또 다른 한편으로는 국력이 팽창되자 재빨리 제국주의국가로 탈바꿈하여 이나라를 삼키고 중국대륙을 짓밟으며 그도모자라 아시아를 지배하려했던 일본에 대한 전아시아의 분노를 일찌감치 표징한것 이었다。▼정작 전후 일본의 史眼은、安의사의 총성이 당시 일본 지배층에 대한 경종이었는데도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단순한 총성으로만 듣고 흘려버린 어리석음때문에、대전을 일으켜 나라를 망하게한 화근이 되었다고 한탄하고있다。▼伊藤이 간지도 70여년。지금 아시아의 정세는 變轉을 거듭해서 그날과는 상황이 매우다르다。伊藤은 만년에「하늘과 땅은 변치않고(乾坤不變) 예과 이제는 서로 통하네(古今相通)」라고 읊었다。문득 마쓰노의 망언으로 멀쩡한 하늘아래서 고금이 상통하는 일본의 침략적 야욕을 읽을수 있어 새삼 소름이 끼친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日本쪽이래야만되는가 <7>

그러면…
거짓이 이길수없는「歷史戰」
더많은 眞實 共感帶 넓혀야

千寬宇 <史學者·한국일보 고문>

池內宏이라는 한국사·만주사 전문의 前동경대학교수。해방후 얼마만에작고했다고 들었으나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사연구자라면 누구나가 알고있는이름이다。그가 일본에서는 어떻게평가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른바 考證學的 방법으로 한국사에 많이 기여했다면했고 그만큼 우리에게 否定的인 업적이있었다면 있었던 학자라고본는것이 오늘날 한국에서의 일반적인 평가가 아닌가 한다。豆滿江北7백리 先春嶺까지 원정을 해서 碑왔다고 전해오는 고려때 尹瓘의 九城을 이른바 고증으로 咸興平野까지 끌어내린 것도그였다。

그런데 그의 晩年에관한 한두가지 에피소드를 들었다。하나는 2차대전중에『이전쟁은 豊臣秀吉의 조선출병과 마찬가지로 명분없는것이라 일본이 질수밖에 없다』고 했다가 붙들려가서 눈을 심하게다쳤다는 이야기。또 하나는『난, 교과서는 안쓴다。요즘 檢定같아서는 거짓말을 써야되니 말야』했다는 이야기다。

한국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좋은 결과만 남겼다고 할수는 없지만, 자기나름으로 믿는 역사의 眞實이라는 점에서는 이만큼의 毅然한데가 있었구나하는 느낌이다。 이번 교과서문제에서도 일본의 집필자들이 官憲의 부당한 처사를 나무라고있는것도 같은 문맥에서 파악됨직하다。

그런데 이번문제에서 과연 일본측이 우리의抗議를 받아들이겠는가 하는것은, 아직 8월하순까지 촉박하나마 며칠의 여유가 있고 또 일본의 유력한 言論들이「喝破而攻之」하고있는 터이라, 아직은 무어라 속단해 말하고싶지 않다。그러나 단한가지, 이번을 놓치면 앞으로 여러해 동안 아마도 다시는 좋은 기회가 있을것같지 않다는 생각이든다。직접의 被害者인 우리나 아시아 各國이 일제히 들고나서고 일본내의 良識있는 인사들이 또한 그들 스스로의 갈길을 심각하게 걱정하는, 이런 기회가 갈수록 그렇게 쉽지않을것 같아서이다。韓日양국의 전문가끼리 協議기구를 만든다는 것은 長期的으로는 있을법한 일이지만, 그것으로 이 고비를 넘길수는 없다。또 교과서가 그렇게된 것은 불행하지만 일본의 훌륭한 一線교육자들이 건재하는한,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걱정할것은 없다는 일본측 견해도 있다는데 더구나 위험천만이다。新聞人들이 즐겨 쓰는 말마따나, 이번 교과서의 문제점들은「명백하고도 현존하는」왜곡이요, 그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으면「명백하고도 현존하는」위협이 곧바로 닥쳐오기 때문이다。

어느 역사학자는 이것을 감히 歷史戰爭이라 부르고 싶다』고 하면서, 『이 뿌리깊은 상처를 치유하는데 政府와 歷史家는 물론 온國民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한것이 신문에보인다。戰爭이라니 말인데, 〈孫子〉병법에 이런말이있다。

—전쟁도 여러가지。그때마다 이편의 對應하는방법도 달라야 한다。

—상대가 義兵(의로운 군사)이면「應」으로 대해야되고, 상대가 強兵(힘만 믿는군사)이면「謙」으로 대해야되고, 상대가 剛兵(분풀이로 나온군사)이면「辭(사양)」로 대해야되고…。여기까지는 아마도 가능한데까지 온인자중하라는 뜻일까。

—그런데 상대가 暴兵(利만탐하는 군사)이면「諍」로 대해야 되고, 상대가 逆兵(나라가 피폐한데도 억지로 나온 군사)이면「權」으로 대해야 한다…。이쯤되면 수단방법 가릴것없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말일까。

用兵의 실제는 어떠해야 하는지 一介書生이 나설바 아니다。그러나「역사전쟁」에서는 역시「진실」로 대하는 수 밖에 없지 않을까。일본이 그 청소년들에게 더욱 그릇된 對韓觀을 심어주겠다 한다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진실」로 대할 수 밖에 없지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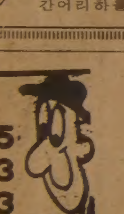
먼저 우리 자신이 더 많은 진실을 알아야 하겠다。近代일본이 우리에게 한것이「進出아닌 侵略」이었다는것, 3·1운동이「暴動아닌 獨立運動」이었다는것을 우리청소년들이 더욱 절실하게 알도록 해야 하겠다。

세칭 제1공화국때의 교육이 지나치게 反日的 排日的이었다는 평도 없지않았다。그러나 이제와서 보니 그정도나마 일본과 우리와의 정신적 斷絶이 한시기나마 없었던들 아주우습게 되었을뻔했다는 생각마저 없을수 없다。지금우리 청소년들이 일본인을대하기、그저 브라질사람보듯、이탈리아사람보듯、그以上도 그 以下도 아닌 것인양 떳떳한것은、그래도 그 정신적 단절의 한몫이 있었기 때문인것같다。이 청소년들이「침략 아닌 진출」이나「독립운동 아닌 폭동」이라는 역지를 看破할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겠다는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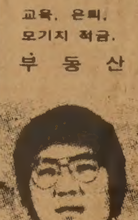
다음은 우리의 진실이 세계의 되도록 많은 人口에게 알려지도록 해야 하겠다。「진출 아닌 침략」이었다。「폭동 아닌 독립운동」이었다고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수두룩인지 금시에 알아들을수 있는 사람들은 특히 東南亞방면에 많을 것이다。우리에게 아직도 살아있는 證人이 많듯이 東南亞에도 아직 살아있는 證人이 많을테니 말이다。그러고 그들역시 그들의 청소년에게 진실을 남겨주고 싶어할테니 말이다。

이야기는 다소 빗나가지만, 西洋語로된 한국사通史로는 왕조말과 日本강점기의「그리피스」나「로스」나「헐버트」나「게일」의 것이 지금도 중요한 參考書目으로 손꼽히고있다。왕조말의 이 손들이 훌륭해서도 그렇겠지만, 해방후에나온 通史가운데 西洋語로 읽을수있게 되어있는 것이 너무나 數的으로 적기 때문이기도 하다。西洋語로된 東洋史도 대개는 중국과 일본이 主役이고 한국은 附錄정도인것이 실정이 아닐까。이래서는 안되겠다。

역사에는 많은전쟁이 기록되어 있지만 역사를 가지고 전쟁이라니 말이 너무 거창해진 것같다。전쟁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나。일본인이 그들의 역사를 榮光스러운 것으로 간직하고 싶듯이 한국인도 우리의 역사를 버젓하게、적어도 왜곡당하지 않은채로간직하고 싶은 것뿐이다。〈끝〉


533-2361 구독신청은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 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 동 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YOUNG SOOK'S
보석상

○각종보석
○나이아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뉴디자인
○보석개조
교환매매
○보증서
215 Yonge St.
368-7961(B)
690-5217(R)

부산대학 동창 야유회

성하의 계절에 동창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학을 맞이한 자녀분들과 더불어 야유회를 갖고져 하오니, 부디 참석하셔서 하루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일 시 : 1982년 8월21일(토) 오전11시
장 소 : ROWN TREE PARK
(이스링턴 & 휜치)
* 식사및 음료는 동창회에서 준비함.
연락처 : 530-0522, 267-9236, 276-59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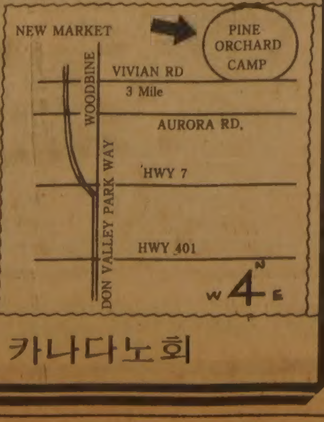
※ 많은 선물이 준비되었으니 회원각자 가족과 특히 어린이들은 빠짐없이 참석하기 바랍니다.
※ 우천시에는 다음주 토요일(8월28일)로 연기함.

재캐나다 부산대학 동창회

중 고등부 여름수양회 안내

강 사 : 남 정 숙 박사(LA영생교회 김혜성 목사 사모)
대 상 : 중학생(만12세) 이상의 청소년(대학생도 환영함)
기 간 : 1982년 8월23일(월)~8월27일(금)
장 소 : PINE ORCHARD CAMP
회 비 : 1인당 40불
등 록 : 1) 전화등록 : 961-8361(화~금요일 9시~5시)
2) 현지등록 : 8월23일 오후3시~5시
PINE ORCHARD CAMP 장에서

개인준비물 : 성경, 찬송가, 필기도구, 침구
(담요 혹은 스리핑백), 세면도구, 파자마,
긴팔상·하의(보온용 옷), 잠바, 손전등
기타 개인에 필요한 것들(악기등)그러나
Radio, 녹음기는 휴대금함.



교통편 : 1) 교회별단체 : 8월23일 오후3시까지 Camp장 도착
2) 개인참가자 : 8월23일 오후1시 중앙교회
(Bathurst + College)에서 Bus 출발
부탁사항 : 성경 요한복음과 사사기를 꼭 읽고 올것
(그 범위내에서 성경퀴즈대회가 있음)
문의연락처 : ☎ 423-5847 나희수 전도사
☎ 252-1741 정태영 전도사

주최 : 미주한인예수교 장로회 카나다노회

여성신앙 수련회

강 사 : 남 정 숙 박사
(LA영생교회 김혜성목사 사모)
일 시 : 1982년8월27일(금)~29일(주일)
매일 밤 7시30분,
주일 새벽기도 6시
장 소 : 토론토 중앙교회
(502 Bathurst St.)
(College & Bathurst)
연락처 : ☎ 961-8361(중앙교회 사무실)
☎ 745-5327(노회 여전도회 연합회장 이기선 집사)

주최 : 미주한인예수교
장로회 카나다노회

아침에

두 얼굴의 나라

D君, 일본의 젊은 엘리트였던 당신을 처음이자 마지막 만났던 일이 벌써 10년의 시간이 흘렀읍니다. 그동안 서로 연락이 없다가 별안간 웬일이냐고 놀라겠지만 그나마 내가 아는 일본 사람으로서는 이 글을 보낼 수 있는 오직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신은 출판사 편집사원으로서 내가 근무하는 회사와 「現代韓國文學選集」의 共同出版의 일로 한국땅을 밟게 되었고 나는 공항에서 맞을 때부터 慶州니 扶餘니 함께 여행도 하고 한국과 일본의 전후세대로서의 많은 意見交換을 가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過去를 넘어서서 새로운 理解와 共存의 번영을 기약했던 우리들의 기대를 무너뜨리는 역사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일이 지금 당신의 나라의 二世교육을 위한 교과서의 歪曲에서 비롯되어 일어나고 있읍니다.

D君, 당시 한국에 와서 제일 먼저 찾아보았던 존경하는 金素雲선생의 「木槿通信」을 읽었겠지요. 그분은 지난해 他界하셨읍니다만 정확히 31년전에 쓴 그글은 한일관계를두고는 영원한 名文章이 아닐 수 없읍니다.

『나는 3·4일전에 어느 친구집에서 우연히 30여년이 지난 헌 紀錄사진 몇장을 보았읍니다. 우리가 己未운동이라고 부르는 이른바 1919년〈獨立騷擾事件〉때 당신네들 손에 학살당한 그 처참한 송장들의 사진을 내가 그날 처음 본 것은 아닙니다. 20여년전 東京 시모찌 오아이(下落合) 오끼노(沖野岩三郞) 선생댁 서재에서 본 것도 바로 이사진이었읍니다. 그러나 나무에다 주렁 주렁 목을 매어 죽인 그사진을 그날 다시 대했을때 내감정은 다시 한번 설렜읍니다.

「죽일 놈들 같으니…, 이 죄 값으로 나라가 안 망할라구!」

그때 내입으로 복받쳐 나온말이 이것입니다. 倭敵이니 強盜니 하는 말로는 형용치 못할 더 한결 절실한 미움이 용솟음친 것을 고백합니다. 이 〈미움〉과 〈친애〉는 둘다 에누리없는 내 진실의 감정입니다.』

이것이 「木槿通信」의 서두입니다. 아시겠지만 金素雲 선생은 일본에서 문학적기반을 쌓았고 누구보다도 일본을 알고있으나 늘 恩讐란말을 써 왔읍니다. 그분만이 갖는 체험적감정의 표현이겠읍니다만 나는 恩惠와 怨讐에서 한자씩을 따버 이 矛盾의 복합어를 金선생의 글이 아닌 다른데서는 읽은 일이 없읍니다. 일본을 두고 〈가깝고도 먼 나라〉또는〈恩讐의나라〉라고 二律背反의 이름을 붙이지만 나는 〈두 얼굴의 나라〉라는 표현이 더 어울린다고 봅니다.

李根培 〈시인〉

안 망할라구!

D君, 일본이 전쟁에져서 韓半島에서 쫓겨난지 불과30여년, 저쪽, 그 殘虐相과 罪過는 筆舌로 할수없이 엄청난것이었고 아직도 두눈을뜨고 그것들을보았던 사람들이 이땅에 많이 살아있읍니다. 그러나 韓日會談이 시작되자 정작 항거하고 나선것은 젊은世代들이었읍니다. 日帝의 虐政에 시달린 旣成世代들은 지나간 쓰라린 記憶이 지워져서가아니라 언제까지 묵은 원한만을 들춰낼수없기에 새로운 善隣의시대로 이끌어서 비온뒤에 땅이 굳어지듯 평등한 國交를 이룩하고자 했던것입니다.

미움기로 말하면 내아버지도 일본 관헌들에 의해 모진 拷問과 獄苦를 치러야했기에 누구못지않게 일본이라는 나라를 저주하고 싶지만, 오히려 덮어두고 무관심함으로써 내 자존과 민족의 긍지를 찾는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읍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웃 사촌인 한국을 양처럼 대하다가도 갑자기 늑대의 얼굴로 변하는것을 때때로 느낍니다. 한국전쟁으로 패전의 누더기를벗고 번영의 하이웨이를 달린것은 말고라도 한국의 分斷의 현실을 함께 아파하는 척 하지만 실상은 그 약점을 교묘하게 파고들어 정치적 경제적 利益을 추구해온것은 말할것도 없고 언제나 名分보다는 實利를 앞세우는 경제동물의 根性과 表裏不同을 한두번 볼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못살고 일본이 잘산다고 해서 시기해서 하는 말이거나 劣等의식에 사로 잡힌말은 아닙니다. 가령 88년올림픽문제만 하더라도 다른나라도 아니고 바로 이웃나라인 한국과 굳이 誘致경쟁을 벌여야하는 그 졸스러움을 스스로 낯부끄럽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랜 貿易역조를 바탕으로 경제협력을 구했다고 해서 마치경제 屬國처럼 바라보는 視線도 결코너그러운 일은 못됩니다.

D君, 우리나라 속담에 〈개꼬리 삼년 묵어도 黃毛안된다〉는 말이 있읍니다. 일본이 경제대국이 되었다지만 얼마전 미국에서 있었던 產業스파이사건이라든지 조금 힘이 생겼다고 해서 國軍主義의 망령을 되살리려는 최근의 움직임은 다시 한번 敗亡을 부르는 경박한 판단이라는 것을 충고하고 싶습니다.

〈죽일 놈들 같으니, 나라가 안 망할라구!〉

金素雲의 꾸짖던 목소리가 지하에서도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저소리가 안들리는가"

史實歪曲, 世界가 두눈을 뜨고있다

歪曲과 倭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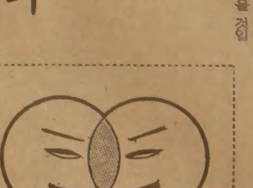
D君, 패전한 일본에대해 미국이일본의 말과 글을 못쓰게 했다는가 일본인의 이름을 미국이름으로 고치라고 했다는말을 듣지못했읍니다. 아무리 침략자이기로서니 일본이 한국에서 저지른 36년간의 掠奪과 만행을합리화시킬 말을 달리 찾을수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侵略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치기하는 속임수를 일본의 어른들은 자라나는 세대에게 가르치려 하고있읍니다.

보십시오. 역사와 인류는 두눈을똑바로 뜨고있읍니다. 자기네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못하는 비뚤어진 정신을 가진나라가 돈을 벌고 잘살면 얼마나 잘사는것입니까.

아들이 떡을 훔쳐먹지 않았다고 결백성을 보이기위해 떡집사람앞에서 칼로 아들의 배를 갈라보인 이른바 사무라이 정신은 어디두고 強者앞에 약하고 弱者앞에 허약성을 드러내보입니까.

하긴 일본이 그렇게 나오도록 만든 우리의 잘못도 큽니다. 歪曲과 倭曲은 우리의 발등을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술집 같은데선 무슨 日帝에 鄕愁病이라도 들린듯 어른들이 倭曲(일본노래)을 정감있게 불러댑니다.



D君이 한국에 왔을때 우리나라의 文壇元老들이 일본말로 D君과 얘기하는것을 들으면서 나는 갑자기 元老에게 가졌던 무한적존경심마저 잃어버리는듯한 허탈감을 느꼈읍니다. 한번은 일본의 대표 詩人들이 왔을때 歡迎宴에서 일본대표가 일본말로 答辭를 하고 치우려고 할때 成賛慶시인이 의젓했읍니다. 〈여기 李根培씨는 일본말을 모른다〉고. 그래서 나 한사람을 위해서 통역을 하는 번거로움을 끼쳤읍니다. 그러나 그때 나는 일본말을 모른다는 것이 뿌듯한 자랑스러움을 느꼈읍니다.

D君과의 만남에서도 外大生을 통역으로 하는 불편보다는 〈나만이라도!〉하는 자존심을 지켰던게 솔직한 심경이었읍니다.

D君, 그러지 않아도 오늘 한국은 일본에 대해 옛날의 怨恨을 품기보다는 오히려 다시 동등을 얻는 受惠의 입장에 선 것처럼 되었읍니다. 한때 國是처럼 내걸었던 「反日」도 사라지고 韓日會談을 반대하던 母國語세대들도 일본말을 배워 장사하기에 바쁩니다. 호텔로비에서 우리나라의 젊고 아름다운 여자들을 일본관광객들이 짝맞추어 다니는 것쯤은 예사입니다. 學兵으로 徵用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즐겨부르는 倭曲이 당신나라의 歪曲을 가져오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역사는 쉬지않고 흐릅니다. 지난 2천년의 역사에서 당신의 나라가 우리나라에 준것 보다 우리나라에서 가져간 것이 더 많은 것을 알것입니다. 우리 文化의 젖을 먹고자란 당신의나라, 언젠가는 우리앞에 다시무릎을 꿇을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石窟庵 大佛앞에서 몇번 씩이나 무릎을 꿇고 절하는 일을 거듭했듯이.

교과서 歪曲 몰고온

日本의 實相 〈3〉

『역사시간이나 사회·윤리시간에 한국에 관한 대목이 나오면 얼굴이 달아오르고 가슴이 두근거려 선생님얼굴을 쳐다볼수가 없었어요. 옆자리의 일본인학생이 금방이라도 『한국인, 한국으로 돌아가!』하고 소리칠것 같아 조마조마 했어요. 빨리 수업이 끝나서 집에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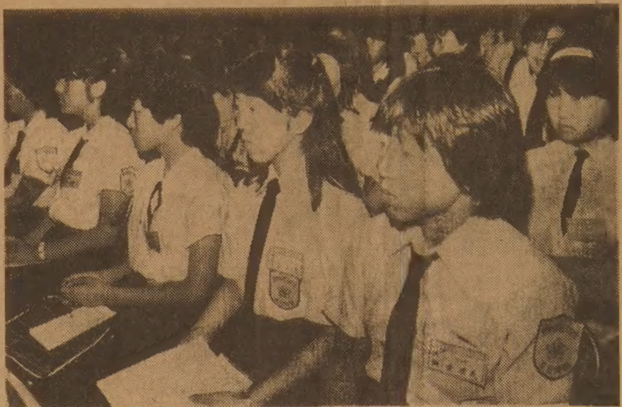
이 고백은 어느 재일동포학생의 악몽같은 회고이다.

『그것은 비단 특정한 어느 한사람의 기억이 아닙니다. 일본에서 학교에다니는 한국사람들이 지금 다니고있는 모든 재일동포학생들은 예외없이 모두 똑같은 기억을 갖고있읍니다』

재일동포 출신으로 高大법학과를 나와 東一트레이딩 과장대리로 일하고있는 李鍵雨씨(31)는 이렇게 증언한다.

『일본 교과서에 그려지는 韓國像이란 언제나 한국은 유사이래 끊임없이 주변강대국의 침략을 받아온 주체성없는 나라이고 독자적인 문화를 갖지못했던 미개한 나라로 그려져있기때문입니다. 거기다 도요또미·히데요시(豊臣秀吉)가 朝鮮을 정벌했다는등 韓日합방으로 일본이 한국을 개화시켜주었다는 식으로 표현돼있으니 한국학생들의 기분이 어떻겠읍니까』

李씨는 일본의 교과서가 한국을 악의적으로 비하시킨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 저들의 침략기부터 시작돼 패전후 37년간 계속돼온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학교 재외국민교육원에 개설된 하계학교에 입학한 재일동포학생들. 악의에찬 한국부정의 일본학교교육을 받아온 이들에겐 李舜臣장군의 이름도 3·1운동이란 말도 처음 듣는 말일수밖에 없다.

在日同胞의 설움

최근 「침략」을 「진출」로 「강제」를 「장려」로 바꾼 것등은 지엽 말단적인 것이고, 아직 오래전부터 한국을 업신여기는 교육으로 일관해 왔다는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일본인들이 한국에 대한 민족적 우월감을 갖게 되어 한국인을 멸시하게 되었으며 그러한 교육을 받은 한국인들은 민족적자부심은 커녕 열등의식을 갖게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토록 비뚤어진 일본의對韓史觀에 의해 조국을 배운

惡意的인 한국 卑下

「3·1運動」도 몰랐다

"歷史시간, 얼굴 달아오르고 가슴두근"

재일동포들은 본인의 의식적 노력이 없는한 참다운 조국의 역사와 참모습을 알 기회가 없다.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부끄러운 나머지, 혹은 일본인으로부터 차별과 멸시와 불이익을 당하지않기 위하여 일본이름으로 행세하기를 좋아하고 일본국적을 얻어 「합법적인 일본인」이 되고자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고등학교때 우리나라 역사를 배우고 느꼈던 충격은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가슴이 설레고 큰소리로 외쳐보고싶은 충동을 누르기 어려웠읍니다. 高句麗가 그토록 광대한 영토를 가졌었다는 사실과 新羅와 百濟의 뛰어난 문화, 그리고 일본의 식민지시대에 나라를 되찾기 위해 온겨레가 단결하여 그토록 노력했었다는 사실은 정말 자랑스러웠읍니다』

오오사까에서 2세동포로 태어나 일본인국민학교와 중학교를 나온 李씨는 민족학교인 建國고교에 진학해 처음으로 한국역사를 배워 민족의식에 눈을 떴다.

3·1절기념식장에서 들은 북소리가 가슴을 울려주었고 치마저고리 차림의 어머니모습이 너무 좋아져버렸다고했다. 학교를 졸업하고는 주위의 만류를 뿌리치고 고국유학의 길에 올랐으며, 고국에서 대학을 마치고는 고국처녀와 결혼하고 취직해서, 고국에 뿌리를 내렸다.

그러나 李씨처럼 남달리조국에대한 사랑의 눈을 뜬 재일동포는 너무나 적다. 대부분의 동포들이 일본학교에서 비뚤어진 日本史觀에의해 고국을 배웠고 지금도 배우고 있기 때문이다.

東京오차노미즈(御茶水)여자대학에서 일본사 박사과정을 이수중인 鄭夏美양(24)은 대학4학년때 교생실습을 나갔다가 동포학생들로부터 곤란한 질문을받은 일이있다고 밝혔다. 日本여대 부속중학교에 다니는 동포학생(鄭美子)이 찾아와『불교나 한자같은 문화가 모두 중국에서 朝鮮을통해 일본에 들어왔다는데 그렇다면 왜 唐나라의 唐과 韓國의 韓을 모두「가라」라고 읽느냐』는 질문이었다. 일본교과서에서는 한국을 대륙문화수입의 경유지로서 가르칠뿐 한국의 문화를 직수입한 사실은 가르치지 않고있기때문에 당시일본이 뛰어난 韓文化와 唐文化를 동일시, 韓과 唐을 같은 말로 불렀다는 사실이 의심스럽다는 말이었다.

물론 鄭양은 百濟의 王仁박사가 일본에 문자를 가르쳐준 史實과 교오또(京都) 아쓰까(明日香) 나라(奈良) 무사시노(武藏野) 지방등에 韓民族이 이루어놓은 찬란한 문화업적등을 설명해주고 일본문화의 뿌리가 한국임을 일깨워주었지만, 한국학생이 일본과 한국의 관계를 전혀 모르고있는 사실이 너무 안타까왔다는것이다.

『그것까지는 지나친 욕심이겠지요. 조국을 배우겠다고 여름방학을 틈타 한국에 오는 재일동포학생들 가운데 李舜臣장군을 아는학생이 드물어요. 3·1운동도 그렇습니다. 들어보지도 못했다는학생이 대다수이고 혹 들어본일이 있다는 몇몇학생들도 李舜臣장군과 壬辰倭亂을 연결시키는 학생은 없어요. 壬辰倭亂은 모르고 慶長의役(壬辰倭亂의 일본식용어)만 알고있는실정입니다.』

서울大 재외국민교육원장 崔文吉씨는 재일동포학생들의 「국어」에 대한 지식도를 이렇게 말했다. 물론 모국어를 말할줄아는 학생은 단 한사람도 없다는 것이다. 모국에 대한 지식과 모국어 실력이 이 정도이니 그들의 민족의식은 물어보나 마나라고 했다.

재외국민교육원이 몇해전 재일동포하계학생 4백29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의식조사를 보면 그들의 의식세계를 알수 있다. 당신이 한국인이라는 것을 처음 알았을때 소감이 어떠했는가하는 물음에 대해,『우월감을 느꼈다』는 학생은 56명(13·1%)뿐이었고, 1백80명(42%)은『열등감을느꼈다』83명(19·3%)은『당황했다』고 응답했다. 나머지 1백10명은「기타」로 분류되었는데 이들도『朝鮮人 돌아가라, 냄새난다!』는등 민족적모욕을 받았으나 그럴수록 약이 올라서한국인임을더욱 강조하게 되었다』는등의 곤혹스러웠던 기억을 덧붙였다.

당신이 한국인이라는 것을 일본인 친구들이 안다면 그들의 태도는 어떠하리라고생각하느냐는 설문에 대해서도 20%의 학생들은『차별과 멸시가 뒤따를것』이라고 대답했고 나머지는『전과 다름없을것』이라고 했으나『착한 친구들은 별문제겠지만 앞으로 취직이나 사업을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차별을받게 되리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 학생들중 58·5%가 집에서건 학교에서건완전한 일본이름을 쓰고 있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집에서 일본이름을 쓰고있기 때문』이 23·8%,『일본사회의 한국인 차별이 두려워서』가 6·5%,『습관적으로』가 40·1%였다.

『결국 모든것이 교육문제로 귀결되고 맙니다. 진실을 제대로 알고있다면 그토록 주눅이 들 까닭이 없는 것입니다. 민족적 자존심과 긍지를 갖게 된다면 한국인이라는사실을 숨길 필요가 있겠읍니까?』

교포문제연구소 사무국장 李求弘씨는 그들이 재일한국인으로서 일본땅에 영주하기를 원하고 있다 해도 그들의 교육을 일본인의 손에 모두 맡겨 버려서는 안된다는 적극론을 주장했다.

【文昌宰기자】

메아리

지용의 아들

鄭芝溶의 아들을 만났다.

詩人의 이름이 잊혀지다시피 하면서 가족의 행방을 아는사람이 없었는데 최근 숨어살던 그의 큰아들이 나타났다. 아버지를 復權시키기위한 진정서를 당국에 내기로하여 문인들의 서명을 얻으러 나선것이다.

아들의 이름은 鄭求寬. 올해54세. 서울에 주소를두고 강원도에서 광산업을 하고있다.

鄭芝溶은 동란때 행방불명이된 우리 詩人의 이름이다.

「고향에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고향은 아니러뇨」라는 노래는 대개 알지만 그詩가 芝溶의 것인줄 아는사람은 많지않다. 鄭芝溶이란 이름은 동란이래 말살되었기 때문이다. 越北文人이라고 해서다.

鄭求寬씨는 아버지는 越北이 아니라 拉北이니 모든 작품을 공개할수 있게해 달라는 진정서를 지난 6월28일 당국에 제출했다. 때마침 「現代文學」 7월호에는 한일본인이 쓴 「鄭芝溶의 생애와 문학」이라는 평론이 실렸다.

지난 78년 국토통일원이 월북작가라 할지라도 사상성이 없는 작품은 문학사 연구의 목적에 한해서면 거론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세운이래 일부 비평가들이 鄭芝溶論을 단편적으로 발표하기는 했으나 그의 詩를 읽는것은 아직도 터부가 되어있다.

求寬씨에 의하면 일가는 그동안 월북작가의 가족이라는 사회의 눈총을 피해 숨죽이며 살아왔다. 芝溶은 동란이 일어난 50년7월하순 제자로 보이는 몇명의 젊은이들이 집으로 찾아와 잠시 다녀온다면서 함께 나간후 돌아오지 않았고 그후 平壤의 형무소에 갇혀있었다는 증인만 나타났을뿐 그다음 소식은 아무도 모른다고 한다. 북한에서 살아움직인 흔적이 하나도 없는것으로보아 감옥에서 폭격에 맞아 폭사당한것이 아닌가 짐작될 뿐이다.

우리는 그동안 芝溶과 함께 그의 詩를 잃어왔다. 芝溶의 詩가 없는 우리의 詩選集들은 얼마나 쓸쓸했던가. 「넓은벌 동쪽끝으로／옛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하는, 온 겨레의 鄕愁가 담긴 詩情을 우리는 고향을 잊듯 잊고있었다. 芝溶없이 우리 抒情詩의 현대성은 그 始點이 흐려지고 그의 詩없이 우리의 詩史는 지금까지 우리가 그의 이름을 鄭○溶이라고 써온것처럼 커다란 구멍이 뚫린다. 그의 이름을 지워버린다면 우리의 國語는 가난해진다.

온겨레가 함께 노래할 名詩 한편을 얻자면 한 세대를 기다려야 할때도 있고 두 세대를 기다려야할때도 있다. 우리는 한 母國語의 자손으로서 素月의 아들이듯이 芝溶의 아들이기도 하다. 鄭求寬씨의 청원은 우리 모두의 청원이다. 더구나 越北이 아니라면 아무 思想性없는 芝溶의 詩가 지금까지 묶여있었다는것이 이상하다.

鄭芝溶뿐 아니라 따지자면 金起林도 있고 李泰俊도 있다. 金起林의 가족도 서울에 살고있다고 들린다. 가족의 진정을 기다릴것없이 그 증거가 불분명한 경우는 越北보다 拉北으로 寬容하는 여유가 우리에게있어도 괜찮을때다. 그리고 설령 越北이라 하더라도 북한에서 숙청된 작가의 越北이전의 사상성 없는 작품은 구제가 고려되어야 할것이다. 越北에서 쫓겨나고 南에서 버려진 작가들이 수두룩하다. 이들의 문학은 어디로 갈것인가.

작가에게 일시적 과오가 있더라도 그들의 작품은 우리의 문학이다. 더구나 그것이 우리문학사에서 가장 풍요로왔던 30년대의 수확일때 우리 모두의 찬란한 유산이다. 어찌 비무장지대의 쓰레기통에 버릴것인가. 이 失鄕의 문학, 失祖國의 유산을 우리가 건져야 한다. 民族文學의 正統을 우리가 이어가야 한다.

金聖佑 〈編輯委員〉

佛세송外相 離韓

프랑스의 클로드·세송外相은 2泊3日간의 공식訪韓일정을 모두 끝내고 7일 상오9시 KAL편으로 離韓했다.

세송외상은 訪韓기간중 李範錫외무장관과 韓佛외상회담을 갖고 韓半島 정세와 양국 경제협력방안등 양국의공동관심사에 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盧외무차관 케냐에

盧載源외무차관은 6일하오 케냐를 비공식방문하기위해 KAL편으로 현지로 떠났다.

盧차관의 케냐방문은 全斗煥대통령의 방문을 앞두고 케냐주재 한국대사관과의 政務협의를 위한것으로 알려졌다.

海外토픽

烈夫 조·디마지오

★몬로묘에 장미2만송이

세기적인 섹스의 심벌 마릴린·몬로 20주기를 맞아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그의 핑크대리석묘소는 그의 요절을 애도하는 전세계팬이 보내온 흰색 분홍색장미로뒤덮였다.

그중에서도 가장 눈길을끈 것은 몬로의 두번째 남편이었던 야구선수 조·디마지오가 이번에도 어김없이 보내온 6송이로된 프랑스의 흑장미.

조·디마지오는 몬로가 사망한날 부터 지금까지 일주일에 두번씩 꼭 이장미를 몬로묘소에 보낸다.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있는 조·디마지오는 프랑스 꽃장수에게 특별주문,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에 몬로묘소에 6송이의 프랑스흑장미를 한번도 빠짐없이 보내오고있다. 장미꽃값은 1년에 한번씩 지불된다.

조·디마지오가 몬로에 보낸 프랑스 흑장미는 모두 1만9천여송이에 이른다고 이 꽃장수는 말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익사사고로 사망한 나탈리·우드 묘소도 몬로묘소곁에 있어 몬로묘소를 찾는 그의 팬들은 돌아오는 길에 나탈리·우드의 묘소에도 한번씩 들른다고. 【外紙】

"같은상황땐 또原爆투하"

廣島원폭투하한 B29機조종사

37년전 히로시마(廣島)에 원자폭탄을 투하할때 B29폭격기의 조종사였던 폴·티베츠2세는 오늘날 그에게 똑같은 임무가 부여된다면 전쟁을 끝내기위해 주저하지않고 다시 원자폭탄을 투하할것이라고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다.

그는 15년전 현역에서 은퇴한후 콜롬비아에 있는 비행기대여회사 경영자 협회회장으로 있다.

티베츠씨는 히로시마 被爆 37주년에 즈음해서 가진 한 인터뷰에서 『나는 히로시마 원폭투하에서 맡은 역할에대해 아무런 후회도 없으며 미국민은 2차대전당시 월남전과는 달리 일치단결 했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에처한다면 또다시 원자폭탄을투하하는데 망설이지 않을것』이라 말했다.

核군비증강에 대해 티베츠씨는『특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한다. 하지만 다른사람보다 더많은 核폭탄을 갖기위해 이를제조하는것은 어리석은짓』이라고 말했다.

티베츠씨가 자기어머니 이름을따 이놀라·게이라 이름붙였던 그의 愛機는 현재 워싱턴에있는 스미드소니언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나는 愛機의 조종간을 놓은뒤 결코 나의 愛機를 다시 보러가지 않았다. 내가 마지막 보았을때 가졌던 나의 愛機에 대한 추억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기 때문이다. 나의 愛機는 아름다왔고 비행기중의 진짜 비행기 였다』라고 티베츠씨는 자신의 비행기에 대한 추억을 말했다.【올랜버스(美오하이오州)=聯】

◇폴·티베츠2세

제1회 교회음악 강좌

본 대학에서는 평신도 여러분들에 교회음악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자 제 1회 교회음악 강좌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이 기회를 선용하시기 바랍니다.

◉일 시: 1982년 8월3일, 10일, 17일, 24일, 31일
매주 화요일 오후 6시~9시 50분까지 (5주동안)
◉장 소: 754 INDIAN RD.(오순절장로교회)
◉강좌내용: ▲성악-발성법, 발성연습및 지도(이주연교수 담당)
▲교회음악사-교회음악의 유래및 발달과정 연구(유회자교수 담당)
▲성가대운영론과 실제-성가대운열 방법론및 찬송가 해설(박재훈교수 담당)
◉참가대상: 교회음악에 관심이 있는분, 일반교우, 성가대에 봉사하는 분들.
◉등록일자: 1982년 8월3일 오후5시30분까지
◉회 비: 1인당 $70
◉등 록 처: 754 INDIAN RD.(본 대학 서무과)
◉문의및 연락: 762-1495, 493-8894, 745-7370

1982학년도 미주장로회 신학대학(토론토 캠퍼스)

신·편입생 모집요강

본 대학에서는 아래와 같이 학생를 모집하오니 사명있는 많은 분들의 응모있으시기 바랍니다.

과정	과 구 분	자 격	수업연한	취득학위	특 전
학위	교역(신)학석사 (M.Div)	①수세후 2년이상자 ②정규대졸업자, 동등이상자	3	교역(신)학 석사 (M.Div)	①졸업후 총회고시를 거쳐 노회에서 안수한다. ②졸업생전원은 본총회와 모국총회산하에서 활동한다.
	신학사과정 (B.A)	①수세후 1년이상자 ②고졸자 동등이상자	4	문학사 (B.A)	①졸업후 교역학, 기, 교육학과 2년에 편입된다. ②졸업생전원은 본총회산하에서 전도사가 된다.
	교회음악과	①수세후 1년이상자 ②고졸자 동등이상자	4	교회음악학사 B. MUC.	①음악목사코스 ②졸업생은 노회에서 시행하는 장로고시 일부가 면제.
	교회음악석사	①음악학사 학위소지자 ②수세후 1년 이상자	2	교회음악석사 M.C.M	①음악목사코스 ②졸업생은 노회에서 시행하는 장로고시 일부가 면제.
비학위	성서과	학력제한 없음 ①수세후 1년이상자	2	수료증(노회인정)	졸업후 심사하에 본교에 진학할 수 있음.

1) 원서교부, 접수: 본대학교무과(오순절장로교회) 및 시험 장소 754 Indian Rd., Toronto, Ont. M6P 2E3 전화: (416)762-1495
2) 원서접수마감일: 1982년 9월6일(월) 오후5시30분
3) 전화문의할 곳: 762-1495, 746-2870, 745-7370, 881-7162, 493-0615
4) 구비서류: 1. 입학원서
2. 최종학교졸업증서및 성적증명서
3. 당회장 추천서
4. 사진 3매 (명함판)
5. 전형료 $50,00 (시험당일 지참)
★시험과목: 성경, 국어, 역사, 일반상식
5) 시험일시: 1982년 9월6일 오후6시부터
시험장소: 본대학 강의실
6) 합격자발표: 1982년 9월6일 당일발표
7) 수업시간: 월, 화, 목 오후6-10시
8) 등록금: 학위과정 학점당 30불, 비학위과정(성서과) 100불
9) 개교일시: 1982년 9월7일 오후6시(신입생 Orientation)

★본대학 교육기본방침
1. 미주한인장로회총회 헌법에 기준, 교역자 양성과 평신도를 훈련한다.
2. 장로회신학대학(서울 예장통합측)과 공동교육 프로그램을 형성한다.
3. 소명의식이 투철한 인재들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주어 복음사업에 동참케 한다.

★학장자문위원(Consultants)
1. 이종성 박사(장로회 신학대학(서울)학장)
2. Dr. Michael D. Ryan(Prof. of Drew Unv.)

미주장로회 신학대학 토론토분교장 최 양 선

한국일보
특집판

구독신청
533-2361

젖과 꿀이 흘러야할 가나안땅에 끝없는 핏자국을 남기며

◇무엇을위한 기도인가… 이스라엘병사와 팔레스타인 병사의 대조적인 전쟁중 기도 모습。양국병사의 전혀 다른 기도모습에서 두나라사이의 뿌리깊은 이질감을 엿볼수 있다。왼쪽사진은 이스라엘 탱크부대 병사가 舊約성경을 들고 예배를 보는 사진이고 오른쪽 사진은 한팔레스타인 병사가 베이루트 건물 옥상에서 AK-47소총을 기둥에 기대놓고서 메카쪽을 향해 엎드려 절하는 모습이다。【AP】

本土는 뺏기고 客土에선 쫓겨날 땅의 民族 팔레스타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땅을 물려받았기 때문일까。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땅에 대한 애착은 어느민족보다 더욱 간절하고 깊다。팔레스타인 민족 詩集은 어느것을 펼쳐보아도 그 사랑받는 땅과 그땅을 딛고 펴온 人情의 노래로 가득 차있다。그 노래들은 사랑받는 땅을 잃어서 더 호소력을 더하고 있다。『언젠가 아버지는 말했다。나라를 잃어버린 자는 온 천하에 제 무덤도 못갖는다。그리고 나더러 떠나지말라고 당부를했다』日帝에 쫓겨 北間島로 정처없이 떠난 우리의先代가 남겨주던 말처럼 뜨거운 情이 오늘날 1982년 팔레스타인민족의 숨결에 흐느끼며 묻어나오고있다。언젠가는 반드시 되찾아야할 땅 팔레스타인에서 한발짝이라도 가까이 머물고싶어서 남의나라땅 베이루트에서 죽기를 맹세하고 버티고 있던 팔레스타인사람들은 이젠 그 客土마저 비워주고 떠나야할 시각을 맞이하고있다。

지난6월6일 이스라엘은 정말 하찮은 사건을 계기로 레바논침공을 단행했었다。런던주재 이스라엘대사의 피습이 침공을 정당화한 묵시적 이유의 전부。그로부터 두달하고도 이틀째。

오늘날 베이루트 외곽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는 침략을 진출로 역사를 눈가림하려고 日帝후예들이 벌이는 奸弄의 속편이라도 보는 듯한 느낌도 든다。강자가 한 時代를 지배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후손에 씻지못할 속죄의 遺産을 넘겨주고 만다는 교훈을 아는가 모르는가。유태인과 일본인과 유사성이 설득력있게 고증되고 있는 오늘날 우연치않게도 東北亞에서 역사논쟁이 일고있는 같은해 같은달에 유태인의 強者논리가 세계의 지탄을 받고있는 사실이 유독 가슴을 치고있다。

오늘날 팔레스타인민족이 울면서 감당하고있는 강제離散의비극은 유명한「발포어宣言」에서 비롯되었다。때는1917년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 소용돌이 칠때다。독일과 오토만제국에 대항해서 싸우던 영국정부는 미국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있던 유태인을 회유해서 미국을 전쟁에 끌어들이기위해 당시 재상발포어의 이름으로「팔레스타인땅에 유태민족의 鄕土를 재건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었다。

이 선언은 기원전 6세기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떠난이후 2천5백년동안 계속된 流浪에지친 유태민족의 시온주의에 불을당겨붙이는 역사적 계기를 마련했다。시온주의는 알려지다시피 2천년도 훨씬 넘는 연고권을 근거로 팔레스타인땅에 유태인국가를 건설하자는 이상의 結集이다。

그러나 연고권으로 따진다면 4천년전부터이미 가나안땅에 자리잡고산 팔레스타인민족이, 이미 先占해놓은 권리다。역사에 假定이란 물론 무의미한것이지만 로마의 침략이 없었던들 오늘날 팔레스타인민족은 가나안 민족이라는 稱謂의 이름을 그대로 지니고 있었을 것이다。

어쨌든 발포어宣言은 日帝의 한국침략을 묵인해준 가쓰라(桂太郞)-태프트선언보다는 더욱 응어리가 큰 아픔을 팔레스타인민족에게 안겨주었다。20세기 여명에 뻗어나는 國勢의 慣性에밀린 미국은 동양진출의야심에 끌린나머지 美-스페인전쟁후 미국의 필리핀지배를 공고히 하기위해 일본의 한반도지배를 양해하는 오류를 범한것이 바로 가쓰라-태프트협정이었으니까。

땅을 사랑하는 민족은 본디 평화를 사랑하는 바탕을 지닌 민족이라는점에서 거의 예외가 없다。팔레스타인민족이 나라잃은 유태민족과 2천년이상 평화롭게 이웃을하고 살아온 팔레스타인사람들은 나치의 박해를 못이겨 물결치듯이 쫓겨온 2차대전후의 유태인을 받아들여 평화롭게 함께 살았다。나치독일에서 유태인이 겪은 대학살에 共憤을 느꼈기 때문에 팔레스타인人의 손길은 더 따뜻했다。그 따뜻한 손길에 비수를 들이대고 살던 집 짓던 농토를 등지고 떠나게한 자들이 바로 시온주의자들이었다。지금도 팔레스타인민족은 시온주의자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서기전 평화롭게 더불어 살았던 유태인이웃에 대한 우정은 잊지않고 있다。

亡命팔레스타인 헌법이랄수있는「팔레스타인국민헌장」에는 이렇게 쓰여있다。

『…1947년까지 팔레스타인땅에 정상적으로 살고있던 유태인도 팔레스타인人으로 간주한다』

파멸의 길을 자초했던 일본의 軍國주의자들과 史實왜곡의 중범죄를 저지르고있는 그 후예들이 선량한 다수일본인들의 배척을 받듯이 배타적 유태종교국가를 침략으로 건설하려는 狂信者들에 대한 배척또한 대단하다。

그런가운데 1947년여름과 1982년여름。34년간격을두고 中東에서 벌어지는 상황들은 되풀이되는 역사의 아이로니를 실감케 하고있다。

1947년은 美·英등 전승국들을 등에업은 시온주의자들의 조종에 따라 유엔이 팔레스타인 분할안을 가결했던해。그러나 아랍계의 반발에 부딪친 당시 점령국 영국이 분할을 단념하고 유엔신탁통치에 넘기려던 순간이었다。

팔레스타인땅에 유태인국가건설의 꿈을 霧散시키는 성명이 당시 영국외상 어네스트·베빈으로부터 나오자 유태인들은 팔레스타인지역내 영국인과 시설을 상대로 16건이상 함의 테러를 자행했다。이때 예루살렘의 골드스미드영국군장교클럽을 폭파, 장교13명이 죽고15명이 부상당한사건이 일어났다。당시 영국군은 반격에 나섰으나 유태인촌에 숨어든 소수 테러분자를 잡아낼 길이 없었다。그리하여 유태인 밀집지역인 텔아비브와 유태교 정통파들의 본거지 예루살렘의 메아 샤림지역을 봉쇄하고 이잡듯이 범인들을 수색하는 작전이 개시되었다。당시 영국의 주둔군사령관 R.N.게일소장은 『목적은 테러리스트를 색출하는데있다。이목적을 위해 영국군은 두 도시를 쑥밭으로 만들준비가 되어있다』고 선언했다。

팔레스타인세력을 쫓아내기위해 베이루트를 상대로 이스라엘 국방상 아리엘샤론이 요즘 엄포를 놓고있는 것과 꼭같다。

포위되었던 두도시엔 가가호호 수색이 개시되었다。역시 오늘날 베이루트처럼 공급이 끊겨 공장들이 문을 닫고 부녀자들은 먹이를 구하기 위해 무작정 거리를 나서야했다。

生死岐路의 軍事敗北 불구 「同情」의 보상…정치적勝者로

34년전 英에 당한「이」는 加害者로 變身

하지만 마침내 굴복한건 쫓기는 유태인이 아니라 영국군이었다。당시 영국군에는 물론 오늘날 西베이루트를 무조건 공격하는 아리엘·샤론같은 장성들이 없었던것은 아니다。영국의 후퇴는 죽음을 마다않는 열화같은 민족주의운동에 맞부딪칠때 아무리 군사력이 莫強해도 그 한계가 있다는점을 터득했기 때문이었다。그 민족주의의 반격을 시온주의자들은 오늘날 西베이루트에서 팔레스타인세력으로부터 받고 있다。

팔레스타인민족의 失地회복을 위한 운동은 行態상으론 테러로 비난받아야마땅하지만 요즘 西베이루트의 목을죄는 이스라엘의 행동은 國家테러로 규탄되고있다。

그것은 짐짓 덮어두고자했던 역사적과오를 상기시키고 한민족의 정신적 바탕마저 시비대상에 오르게한다。

오늘날 이스라엘을 영도하고있는 메나헴·베긴수상은 이스라엘독립전쟁의 선두에섰던 슈테른·갱과 쌍벽을이루는이르군단특공대장이었다。베긴은 문제의 골드스미드장교클럽 폭파등 일련의 테러를 주동했다고 공언한 장본인이다。그러나 그것은 독립운동의일환으로 강자에 대항했다는점에서 미화될수도있다。문제는 영국군이 물러가기 한달전인 48년4월 예루살렘근방 달 야신村의 팔레스타인 대학살을 지휘했다는점에서 섬뜩한주목을끈다。

極右군사조직 이르군은 그 때 남녀노소를 가림없이 2백54명을 학살 시체를 우물에 버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피투성이인채로 예루살렘시내에조리돌림을 시켰다。마치 3·1운동을 억누르고 붙잡힌 애국지사들을 작두살인을 한뒤 머리부분을 전시, 공포정치를했던 일본인들의만행과 다를바가 없다。그때문에 양심있는 유태인들은 머리를 돌리고 시온주의자들이 건국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것을 거부, 미국이나 유럽에 남아있다。

오늘날 아랍세계의 광범위한 저항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은 지리적으로 아시아에 속해 있으면서도 脫아시아적 사고가 지배하고 있다는점 또한 지적되고 있다。

시온주의의 이론가 디어도어·헤르츠에 의하면 유태인이 추구하는 鄕土는「아시아에 대한 유럽의 보루의일부」이고「야만주의에 대한 文明의전초」라고 정의되고 있다。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랍인을 비롯한 東洋人을 짓밟는 支配의 야망과 인종적 편견에의한 배타주의를 표방하고 있는것이다。

마치 서구 문물을 받아들여 明治유신이후 아시아人임을외면하고 西歐의 일부로 소속되어있는것처럼 일본인들이착각하고있는것에비유될수도있다。

西베이루트대결의 경우 2차대전때처럼 PLO에 무조건 항복을 받아낼처지가 안된다。조직된 군사력에 PLO는 일시 와해될지 모르나 그들이 지닌 정치적 열망까지 부수지는못할것이다。사태는 PLO가 군사적패배를 정치적승리로 보상받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金炳武기자】

◇『내땅에서 버티겠다』…70세의 할머니 9번째휴전이 이스라엘의砲擊을 침묵시킨 지난4일 西베이루트에 거주하는 70세된 팔레스타인 노파가 총을 움켜쥐고 피난하지 않겠다고 버티고있다。【AP】

한국의 쟈말·알씨가 말하는 「팔레스타인 失鄕34년」의 恨

함께살수는 없었을까요

그는 입을 굳게다물고 눈을감았다。그리고 조용히『슬픕니다』라고 첫마디를 꺼내고나서는 얼마간 말을 잇지 못했다。

쟈말·알氏(29)。한국에 살고있는 4명의 팔레스타인人중 한사람。이들 모두 나라가없어 요르단여권을갖고있다。나라를 잃은지 34년。가족은 뿔뿔이 흩어지고 쟈말씨 자신은 현재 한국땅에 발길을멈췄다。그러나 마음만은 언제나 멀고도 먼 하늘밑 팔레스타인 땅으로 치닫는다。

『어제밤에도아랍어단파방송을통해 레바논에서 겪고있는 팔레스타인동포의 비참한 소식을들으며 동포들과 아픔을 같이했읍니다。어찌 팔레스타인인만의 비극입니까。모든인류의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신을향해 우리팔레스타인민족에게 나라와평화를 주소서라고 기도했읍니다』

쟈말이 털어놓는 그의인생은 팔레스타인의 비운 그대로이다。요르단서 안 룰카림이란 고을에서 태어났을때 이미 아버지를 볼수가 없었다。이스라엘군이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농토를 점령해버리자 아버지는 그 충격때문에 심장마비로 사망했다。어머니는 구자(침략자)가 아버지를 죽였다고 늘 말하곤했다。8남매의 막내인 쟈말은 굶주림과 질병에 시달리는 난민의 생활을 시작했다。3살때 소아마비에 걸려 한쪽발을 저는 불운을 맞았다。때문에 그는 팔레스타인戰士가 될수없었던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있는듯했다。

被占에 農土잃고 아버지는 衝擊死 흩어진 8남매는 세계의 難民으로

68년 중동전이 발발하자 전화를 피해 요르단쪽으로 무조건 걸었다。14~24살까지 요르단의 후세인 난민캠프(3만명수용)에서 고달픈 생활을 계속했다。

그곳에서 고등학교과정을 마쳤다。

◇『팔레스타인아…』멀리서 베이루트에 남은 동포들을 걱정하는 쟈말·알氏。

쟈말은 지금도 선생님의 말씀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우리의 잃어버린 땅을 찾아야만 한다。그러나 항상 평화적으로 찾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고 선생님은 늘 말했다는것。같은 나이또래의 남자아이들은 게릴라훈련소에 들어가 군사훈련을 받는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쟈말은 홀로 베이루트로 가 대학2학년까지 다녔으나 학비가 모자라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와 요르단 국영TV아나운서로 일했다。

가족들은 살기가 힘든 요르단난민캠프를 떠나기로 결심했다。형 세분은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미국으로, 누나 한분은 사우디, 세분은 요르단에 눌러 앉았다。자신도 어디론지 가야만했던 쟈말은 79년6월 우연히도 한국땅을 밟게 됐다。

현재 모기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쟈말은 예쁜 한국색시를 아내로 맞아 아들 모르드까지 낳았다。

쟈말은『현재 서베이루트에서 벌어지고 있는 팔레스타인의 참상은 진실그대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다。유태인들은 세계곳곳에 오래퍼져살아 서방언론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다。생각보다도 너무늦게 유태인이란 말을 꺼냈다。말을 꺼내기조차 싫었을까?

『이 지구상에서 이스라엘의 레바논침공을 지지하고 있는사람은 오직 유태인 뿐입니다。유태인들도 2천여년간 나라없는 설움을당해 세계는 그들을 동정했었읍니다。그러나 점차 그 동정은 팔레스타인족으로 기울고 있읍니다』

언젠가는 팔레스타인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우리땅을 다시 찾게될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쟈말의 얼굴은 상기되고 있었다。

『팔레스타인과 유태인 모두같은 땅에서 살았었다는 점에서 뿌리는 같습니다。두민족 모두 얼굴모양과 체구가 비슷합니다。모두 단결력이 강하고 머리들도 좋다고 합니다。다만 말이 다르고 종교가 다르며 역사가 다를 뿐입니다。함께 평화롭게 살수가 없을까하고 가끔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쟈말의 눈에는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원하는 소망이 가득히 담겨 있었다。

얼마전 한국인 친구가 최근 발행된「팔레스타인민족詩集」을 가지고 와 아랍어로 번역해주면서 같이 읽었다고했다。

『한국민들도 나라를 잃어 본 적이 있기때문에 팔레스타인人의마음을 깊이 이해해 주고 있는 것같습니다』고 말하는 쟈말은 한국에서 독립되는 날까지 살고 싶다고 했다。그러나 어머니가 돌아가시기전에 자신의 손에 쥐어준 아랍어·영어·히브리어 3개국어로 쓰여진『두고 온땅, 팔레스타인땅』문서는 언젠가는 아들과 함께 그 땅으로 돌아가야만 한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다고 전했다。

쟈말은 팔레스타인이 國旗는있으나 國歌가 없다고 말했다。그러나 민족이 즐겨부르는 노래가 있단다。

『빌라디·빌라디·빌라디 (우리나라")와·안티 (당신은) 홉비(내사랑) 후와디 (내마음) 팔레스티노야 (팔레스타인아) ……』그는 읊듯 노래하듯 흥얼거렸다。

얘기하는 동안 그는 한번도 웃음을 짓지 않았다。【崔海雲기자】

그리운 고국은 KAL 기 에서 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만이 통하는 우리의 언어와
우리만이 가지는 우리의 예절로
정성을 다해 여러분을 모시는
우리들의 대한항공…

고풍 가득한 십장생 그림이 있는
B 747 점보기의
넓고 아늑한 분위기…
우리의 가곡이 흥겹게 흐르는 스테레오
씨스템과
우리 고유의 음식 써비스…
그리고 사뿐히 한복을 차려입은
우리 승무원들의 수줍은 미소…
그리운 고국은 KAL 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대한항공 TORONTO 영업소
390 BAY ST., SUITE 402•TORONTO
(416) 862-8250
(800) 268-9431 (QUEBEC)

정성껏 봉사하는 겨레의 날개
大韓航空

지정여행사
한 국 여 행 사 531-4607
신 세 계 여 행 사 536-2155
서 울 여 행 사 535-6004
제 일 여 행 사 535-2377

愛唱曲「선구자」는 模作인가

元老 朴泰俊씨의「님과 함께」와 거의 비슷

우리나라 최고 愛唱曲의하나로꼽히는「선구자」가 老音樂家 朴泰俊씨의 1922년도곡인「님과 함께」와 거의 비슷한 가락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조두남작곡,윤해영 작사의「선구자」는 朴泰俊씨의「님과 함께」작곡 연도보다 10년뒤인 1932년도에 작곡된 노래로,두 작품의 악보가 흡사하고 기악으로 연주했을때는 더욱같은 느낌을받는다。이 사실은 지난 봄 美國에서8년만에귀국한 朴泰俊씨를환영하는 귀국연주회에 朴泰俊씨가 80이넘은 老軀를이끌고 참석해 직접 자신의 곡을지휘한데서처음알려졌다。

朴泰俊씨는 지난 6월19일에열린 이 연주회에서「동무생각」「소낙비」「님과함께」등 60년전에 작곡한 노래들을 지휘했는데,후배음악인들과 청중들은「님과 함께」(李殷相작사)를 들으며『가사는 다르지만「선구자」를 지휘하신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하며,연주회가 끝난 다음 朴泰俊씨에게『새로 지으신 曲인가』하고 물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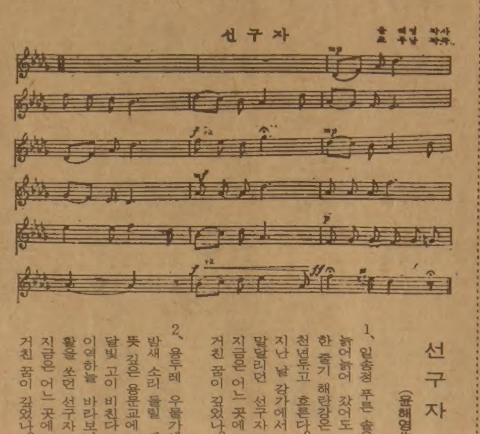
「님과…」22년도,「선구자」는 32년도 作曲

朴泰俊씨는 1922년作으로 돼 있는「님과함께」原本 악보를 내놓으며『조두남의「선구자」의 가락이「님과함께」를 빌린 것을 몰랐던 것은 아니지만,세상사람들이「선구자」를 사랑하며 즐겨 불러 이미 국민가요처럼 돼 있는데 이제 와서 물의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 조용히 있었다』고 말하고『큰 문제를 삼고 싶진 않다』고 괴롭게 털어 놓았다。그는『조두남이 나의 후배이고 후배로서 선생의 곡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해석하고 싶다』고 老大家답게 평하고 있다。그러나 후배음악인들은「선구자」가 어린이서 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좋아하며 부르는 곡이어서 模作의 眞僞를 가리는 것이 좋으며,두 작곡가 모두 살아 있을 때 밝히는 것이 오히려 두 작곡가를 존중하는 것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펴고 있다。

음악평론가 朴奉錫씨는 이 의견을 종합,음악지「月刊音樂」8월호에「님과함께」와「선구자」의 악보를 비교분석해 보이고 있다。朴奉錫씨는 두 작품의 악보를 비교분석하면서『조두남선생께심려를 끼쳐 드릴 생각은 조금도 없다。다만 한국 음악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돼야 하는가를 검토하기위해 이글을 쓰게 됐다』고 이사실을 밝히게 된 善意의意圖를 먼저 털어놓았다。그의 분석에 의하면 두 작품 모두 D플랫장조로 같은 調性이며,박자도 8분의6박자로 같고 기본리듬과 작곡형식도 동일하다。그리고 총 16마디중에서 똑같은 멜러디가 5마디,비슷한 멜러디가 8마디이고 나머지 3마디는 다른 멜러디이다。그는『16마디중 3마디가 다른 멜러디이지만 가락의 흐름으로는 서로 비슷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두作品 다 D플랫장조·8분의 6박자
멜러디 16마디중 3곳만 달라

이 두작품의 악보를 연주해본 評者는『朴泰俊씨의「님과 함께」와 조두남씨의「선구자」는 두세마디에서 조금 다를뿐 거의 비슷한 노래이며「님과함께」는 사랑을 노래한 가사이어서 다소 哀調的이나「선구자」는 滿洲 牧丹江근처에서 숨진 독립투사들의 魂을 위로하는 가사이기때문에 씩씩하고 유장한 인상을 받는다』고 말한다。음악계는「선구자」는 이미 너무많은사람들이 아끼며 즐겨부르는 곡이기 때문에「표절 시비」로 몰고가기에는 괴로움이 크지만 세월이 흘러 인생은 늙고 사라져가도 작품은 그대로남아 대대로 많은사람들의 情感을일으켜주는 숭고한 바탕이있으므로문젯점은추적해두어야한다고평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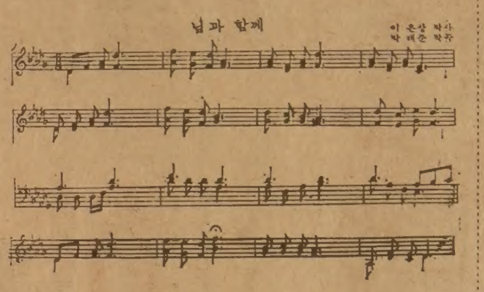


선구자 (윤해영作詞)

1、일송정 푸른 솔은
늙어늙어 갔어도
한 줄기 해란강은
천년두고 흐른다。
지난날 강가에서
말달리던 선구자
지금은 어느 곳에
거친 꿈이 깊었나。

2、용두레 우물가에
밤새 소리 들릴 때
뜻 깊은 용문교에
달빛 고이 비친다
이역하늘 바라보며
활을 쏘던 선구자
지금은 어느 곳에
거친 꿈이 깊었나。

◇□◇



님과 함께 (李殷相 作詞)

1、가을날 해는 지고
밤이 이미 깊었는데
고개숙여 생각하면
님의 모습 나타나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언제든지 웃던 그님
지금도 내 눈앞에
웃음 띄고 보이시네。

2、님 여윈 외론 몸이
천리 먼길 떠돌아도
님과 함께 같이가고
님과 함께 같이오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언제든지 웃던 그님
지금도 내 눈앞에
웃음띄고 보이시네。

팝토픽

「호랑이눈」2위서 1位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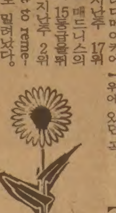
美 캐시박스選定

★…이번주 美國 텐톱팝의 톱은 지난주 2위였던 그룹 서바이버의「호랑이의눈」이 차지했다。캐시박스에 따르면 지난주 1위였던 존·쿠가의「Hurts so good」은2위로 밀려났으며 휴먼리그의「나를 원치 않으세요」는그대로 3위를 지키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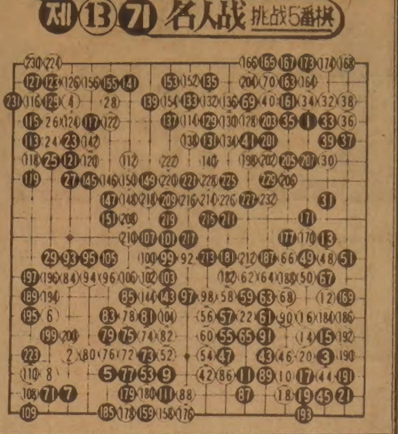
또 지난주 16위에 있던 시카고의「Hard to say I'm sorry」가 일약 9위로 뛰어오르는등 이번주 10위에랭크된 곡은 2곡이다。【AP】

「페임」3주째톱 英國 텐톱팝

★…영화「페임」의 주제곡인 아이린·카라의 페임이 3주째 英國싱글차트의 톱을고수하고있다。멜러디메이커에 따르면 2위는 지난주 17위에 머물러 있던 매드니스의「차를 몰면서」가 15등급을뛰어올라 있으며 지난주 2위였던「A night to remember」는 9위로 밀려났다。또 3위에는 지난주 10위였던 야주의「가지마오」가 올라있고 4위에도 지난주 20위에 있던 곡。【AP】



제13기 名人戰 挑戰5番棋



第4局 總譜232手完 白不計勝

(각5시간·덤5집반)

白(名 人)曺薰鉉〈3勝1敗〉

黑(挑戰者)徐奉洙〈1勝3敗〉

종국은 하오8시40분。名人이 작년도에 이어 두번째로「消項戰」에 승리,3차방어에 성공한순간이었다。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극적인분위기는 하나도 느껴지지 않았다。

名人은 이구동성으로 보내는 축하의 말을 가벼운 目禮로응하고 도전자는 위로의 말에 비교적 싹싹하게 답례했다 한동안 실감이 안난다는 그런표정들이었다。名人은 요행의매치였다는 생각이었겠고 도전자는 숫제 어이가 없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승부의세계에서 승과패의가혹한 현실은 어쩔수가 없다。얼마뒤 국후검토가 개시되었는데 적어도 그 무렵 도전자는『나머지 王位만은 결사방어하겠다』는 다짐을 굳게했을 것이다。하지만 名人은 그 王位戰마저 역전승,마침내 천하재패의 꿈을이룩했다。

名人 3차방어

名人에게 보내지는 온갖찬사중에서도「무서운끈기」는 호랑이에 날개까지 돋친격이라 표현할 박에없다。이번시리즈에서 제3국은 시종일관 고전을면치 못하다가 밀려났지만 제1、2국은 철저한 대세판단과 끈질긴 무지로 승리했고 특히 이바둑은 黑129로 인하여 재기의찬스를 잡을때까지 패배를 자인한것이 사실일것이다。

무적의 全冠王。그러나 당분간은 이일 徐7단의 격렬한 반격을 각오해야 될것이다。

160…154。162…133이음。172…48。175…49。183…159。소비시간 白=4·57、黑=4·35。【一凡】

◇제14기 名人戰은 [illegible]관계로 며칠간 지연되어 棋譜도 당분간休載、20일께부터 다시 連載할예정입니다。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朴婉緒 作
金光培 畵

<184>

양달⑲

『오빠가 그랬어요? 금시초문이에요。하긴 신방에서 일이니 금시초문일수밖에。오빠도 참 웃기는 사람이네』

수지는 그 얘기가 조금도 자기에게 갈등스럽지 않은걸 스스로도 이상하게 생각하며 이렇게 싱거운 소리를 하며 웃었다。

『육이오 콤플렉스죠 뭐』

영란이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얼굴에 강한 혐오감을 나타냈다。

『육이오 콤플렉스라뇨?』

『육이오때 허망하게 잃어버렸다는 막내누이말예요。요새는 아주 단념했지만몇해전까지만해도 지방신문까지 돌아가며 광고를 내는등 얼마나찾아보려고 애를 썼어요』

『지금와서 그게 어쨌다는거죠?』

수지는 영란의 뜻밖의말에 화들짝 경망스럽게 놀랐다。

『그 누이를 육이오때 잃어버린 것에 대해 오빠가 얼마나 자책하고 있는 줄 알아요?』

『그、그럴리가 없어요。그건 오빠 잘못이 아녜요。오빠가 자책할 일이 아녜요』

『아뭏든 오빠는 그 누이한테 못해준 몫까지 고모한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나한테도 그러길 강요했으니까요。시누이 둘 있는셈만 치고 그 애한테 해줘라。그럼 그애도 설마 부족함이 없을 테니까。그게 오빠 말버릇이었어요。그 말뿐이 아니라 감시까지했다면 말 다 했죠。행여 내가 고모한테 두 시누이 받드는 몫의 공경을 하나 안하나 줄창 감시 당하는 게 기분 좋은 일은 아니었어요』

『설마 감시까지야。그렇지만 언니가 나 때문에 그렇게 힘 들었다면 정말 미안하군요』

『다 지난 일이에요。젊어 두세요』

수지는 영란이 어려운 시집살이를 하고 있는 눈치를 챘적은 한번도 없었다。오히려 저렇게 거침 없이 제멋대로 사는 팔짜도 흔치않은 거란 시기심조차 있었는데도불구하고 처음으로 시집살이의 고충을 털어놓는 영란은 그 어느때보다도 정직하고 건강해보였다。

나이보다도 젊어보이기를 지상의 목표로 살아온 여자가 항용 그렇듯이 반해보아던 나녀가 제법 인간적인 부피마저 있어 보였다。

『진작 그런 말 해주지 그랬어요?』

『뭣 때문에요?의나 상하려고요』

『내 생각은 그 반대예요。우리가 서로 체면이나 남의 눈치 볼 것없이 각자의 감정에 충실했더라면 그래도 지금보다는 정이 좀 들었을 것 같잖아요?』

『내가 고모를 가면으로만 대했다고 생각지말아요。제발』

『그렇지만 철저하게 속마음을 숨기고 지낸 것만은 사실 아녜요』

『시누이 올케 사이가 구순하려니 별수없잖아요。난 그런 일로 후회하거나 가책받기 싫어요。고모를 속이거나미워한게 아니라 순전히 나자신과의 싸움이었으니까。다지난 얘기예요。우리 앞으로의 일이나 상의해요。약혼날、결혼날 택일하는 문제랑、혼수、지참금 문제랑。아까도 얘기했지만오빠는 고모한테 여떡하든 두몫을 주고싶어해요。난 좀 과하다싶은데도 오빠 고집이 그러니 어쩌겠어요。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고모생각으로 그집형편에 비해선 좀벌어지는것 같아도 우리형편으로는 두몫을 해주고있다고 생각해서 섭섭해하지 말아요』

아아、그래서 두몫이란 말이 아까부터 나왔구나。수지는 가슴이 철렁하도록 경탄했다。

블론디 딘·영作 本社特約·連載漫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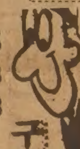
"오늘 아침엔 출근할 기분이 나지않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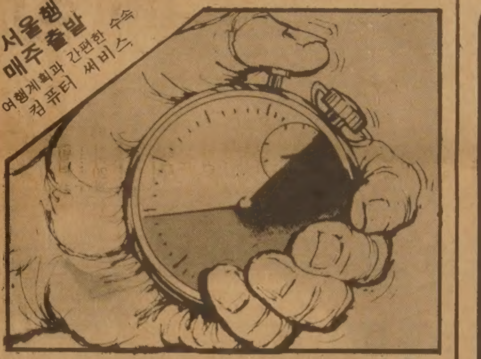
"사장 한테 전화해서 기분이좋지않다고 말해야겠어"

"사장 얘기가 뭐 래요?"

"지금 기분이 언짢다면 실직 당했을때 얼마나 참담하겠는가 생각해보라더군!"

조규혁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화재보험
● 상점보험
● 생명보험
233-6236
745-3236


533-2361 구독신청은



출발에서 도착까지!
서울여행사

여행계획과 간편한 수속,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분의
여행을 도와드리겠읍니다.

535-6004 535-8801

SEOUL TRAVEL 서울여행사
631 A BLOOR ST. W
최 동 주
(R)293-9970
IATA

맛 사 지

(near airport)
MISSISSAUGA

海城酒家
SEA CASTLE RESTAURANT
— 해성주가 —(구 : Sea King)

한국인 고객여러분, 과거 Sea King레스토랑이 장소를 옮겨 다시 Open했읍니다. 옛정을 잊지마시고 다시 찾아주십시오.

◈순수 중국광동식 음식 ◈일류 요리사들만 채용.
◈특히 해산물 전문. ◈ 1주내로 술허가 나올예정.

◎ 매일 OPEN(일요일포함) 오전10시~새벽3시까지

591 Gerrad St. E. (제랄드×브로드뷰)
새빌딩 Unit B1, B2, B3 (아래층지하실)
☎ 465-8272

Family Product Distributor

도매상과 값을 비교해 보십시요.
저렴한 가격으로 무료 배달($60이상일경우) 합니다.

취급품목
Paper towels, 화장지, Detergent,
각종 Soap, 세탁비누, Pampers,
종이봉지(Paper ba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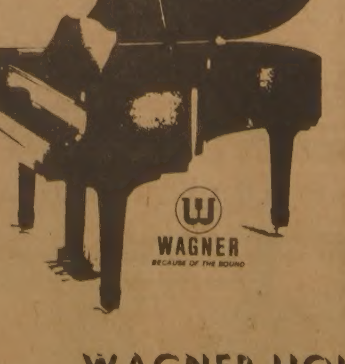
87 Green Lane, Unit 10 Thornhill
주문☎ : 889-9757

한국전집및
고전현대소설

◉한민족의 운명과 진로를 결정지어온 역사의 주역들-한국인물사(10권)
◉모든 여성에게 멋과 알뜰살림의 지혜를 심어주는 당신의 백과-현대여성 새생활백과(8권)
◉동양의 지혜, 처세의 경락서, 영원한 감동을 주는 불멸의 고전-박종화의 삼국지(6권)
◉피로 물들인 태평양! 인류사상 최대의 전쟁로망-태평양전쟁사
◉인간문화재 제38호 성대교수 황혜성의 가정요리(2권)외 박헬레나편 가정 꽃꽂이(2권)
◉소설로 쓴 한국 근대사라고 요약할 수 있는 박경리의 "토지"(6권)
◉유주현 역사소설군 대전집
◉동아방송편 광복20년(25권)
◉숲을 보되 나무를 논하지 말자의 옛날 옛날 한 옛날(이장우 저)
◉불멸의 작 천세옥편의 수호지
◉우리 어린이들의 벗 디즈니 유치원백과(12권)및 꽃동산(10권)
◉언제나 아껴지는 장삼직편의 대 한한사전
◉양방, 한방, 민간요법의 대 가정종합병원 외 수십종목 주문, 배달가능(단, 토론토지역)

범한서적북미주총판
1712 QUEEN ST. E. TORONTO
(416)690-2216 8am-10pm

Everybody's talking about WAGNER..
BECAUSE OF THE SOUND THE QUALITY AND THE VALUE



WAGNER PIANO는
* 품질의 높음이 세계적으로 알려져 구라파와 미국은 물론 카나다에서 수많은 음악전문가들의 호평을 받고 있으며
* 카나다의 최우수 대학인 몬트리올의 McGill University 음악대학, University of Alberta 음악대학, Humber College 음악과 등에는 이미 Wagner Piano를 다량 애용중이며,
* 상당수의 U of T음악교수들, 카나디안음악인들, 토론토한인음악인들이 Wagner Piano를 소유하고 있읍니다.
* Wagner Grand Piano는 카나다 전체 Grand Piano 판매량의3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마다 증가일로에 있읍니다.
* Wagner Piano는 12년간 본사에서 품질을 보증합니다.
* Clear and Precise Sound, Uncompromised Quality and Unbelievable Price는 Wagner의 자랑입니다.

WAGNER HOUSE OF MUSIC
JASTOM TRADING COMPANY LIMITED
101 DUNCAN MILL RD. SUITE G-5 DON MILLS, ONTARIO M3B 1Z3
☎ (B) 445-1516, 449-8644 (H) 286-1548 대표 박 성 희

Cooper Furs
밍크특별여름세일

밍크(모든 쉐이드), 비버-여우-라쿤-코요트-페르시안 양등을 이윤 없이 판매함.

비 정상적 가격
40% 할인

40년 전통, 수리, 재 재단, 세탁포함.
일요일은 예약자에 한해 영업함.

1978 Weston Rd. 정성주
(Lawrence 1블록 북쪽)
☎ : 241-8091, (R)276-4373

社長이 通情女工 살해暗葬

3년4개월만에 正瑞산업代表부부등 넷 檢擧

"관계清算" 댓가요구에 앙심
아내·情婦도움…安眠島 산에

자기회사 20대여공과 정분관계를 가져오다가 변심을 합의한는 여공을 살해한뒤 암매장케한 회사 사장과 그범행을 도운 사장의 부인과 제2의 정부(情婦), 정부의어머니등 4명이 범행3년4개월만에 검찰에 붙들려 사건전모가 드러났다. 서울지검형사5부는 7일 부동산임대업체인 正瑞산업 (서울中區茶洞183) 사장이며 전 로체스타상사 (Y셔츠제조업) 사장이었던 韓正羲씨 (43) 와 韓씨의부인 李京子씨 (33·서울永登浦區汝矣島洞 공작아파트A동508호) 韓씨의 정부李明子씨(27·다방마담·서울永登浦區鹽里洞 진주아파트) 李明子씨의 어머니 金南基씨(42·충남瑞山郡安眠面承彦里306)등 4명을 살인및 사체유기혐의로 구속영장을신청했다.

◇여공을살해, 암매장했던 韓正羲사장㊧부부。

自身도 위협느낀 부인이 발설 들통나

살 해 韓씨는 78년 10월께부터 자신이 경영하던 로체스타상사의 미싱여공 金点順양(22·서울中區新堂4洞330의268)과 6개월가량 관계를맺어오다 변심, 관계를 청산하자고 요구했다。 이때 金양은 위자료조로 싯가 1천만원상당의 레코드가게나 Y셔츠가게를 차려달라고요구,『거절하면 깡패를 시켜 칼로찌르고 관계를폭로해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고 협박했다。

金양을 살해하기로 결심한 韓씨는 79년3월20일 하오10시께 서울西大門區北阿峴洞1의579 당시 자기집으로 金양을유인, 안방에서 목을 졸라 숨지게했다。

당시 부인李씨는 남편의부탁으로 사체를 알몸으로만든후 홑이불에싸 장롱속에 사흘동안이나 숨겨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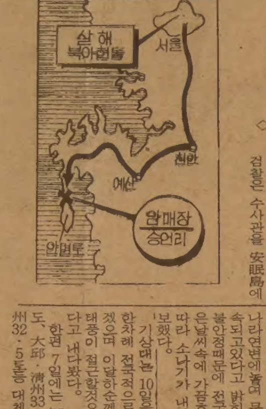
암매장 韓씨는 평소 깊은관계를맺어 오던 또다른 정부인 다방마담 李明子씨에게 사체를암매장해줄것을 부탁했다。

李씨는 79년 3월23일상오9시30분께 金양의 시체를포니승용차의 뒤트렁크에 싣고 자신의 고향인 충남瑞山郡安眠島로 내려가 어머니 金南基씨와 남동생의 도움을받아 뒷산콩밭에 암매장했다。

李씨는 암매장후 金양의옷과구두 핸드백등을 불태워증거물을 없애버렸다。

李씨는 암매장해준 댓가로 韓씨로부터 서울中區會賢洞에있는 스낵코너와 茶洞에있는다방、현재살고있는 鹽里洞J아파트、오토바이를 받았다。

◇피살암장된金点順양



수사경위 金양이 집을나간후 1주일째 돌아오지않자가족들은 경찰에 실종신고를해놓고 수소문을 했으나 찾지 못했다。 그로부터 3년이 흘렀는데 최근 검찰에는 韓씨의부인 李京子씨의 주변인물로부터 사건에대한 제보가들어왔다。

검찰은 지난4일 李京子씨를연행, 조사끝에 자백을받은뒤 다음날 韓씨와 李明子씨를 검거, 범행일체를 자백받았다。

李京子씨는 검찰에서『남편이 여공을 살해한뒤 나도죽일것같은 생각이 들었고 다방마담 李明子씨에게 아파트를 사주는등 지나친 친절을 베풀고 나에게는 관심을 보이지않아 여동생에게 불만을 털어놓은것』이라고 진술했다。

검찰은 수사관을 安眠島에 보내 7일상오10시30분께 金양의시체를 찾아냈다。

韓씨는 범행후 현장인 서울西大門區北阿峴洞1의579에서 79년5월25일 서울永登浦區汝矣島洞모아파트A동508호로 이사했다。

韓씨회사서 미싱공

숨진金양은서울에서 중학교를 졸업한뒤 집에서놀다 78년9월께부터 로체스타상사의 미싱공으로 취직했었다。

金양은 막노동을하는 金모씨 (50) 의 장녀로 가난하게 살아왔는데 취직후 생계에큰 도움을 주어왔다。

金양의 부모들은 6일검찰의 수사관들과함께 安眠島로 내려갔다。

正瑞빌딩 지하1층 지상7층, 연건평 1천여평의 건물로 시가20억원을 호가하고 있다。 이빌딩 803호실에는 있는 正瑞산업사무실에는 7일 남자직원 2명과 여직원 1명이 근무하고있다가 사건내용이 전해지자 모두 자리를떠 사무실이 텅비어있었다。

와이셔츠 製造業체 운영
韓씨, 犯行후 작년에처분

韓씨는 지난해까지 와이셔츠 제조업체인 로체스타상사를 경영하다 범행후 이를처분, 지난해 10월1일 서울中區茶洞183 正瑞빌딩을 태양산업대표 崔大李씨로부터 인수, 8층에 正瑞산업주식회사란 사무실을 차려놓고 부동산임대업을 해왔다。

韓씨는 전부인과의 사이에 세자녀까지 두고 이혼, 현재의 부인 李京子씨와 재혼했으며 다시 정부인 李明子씨와 숨진金양등 3명과 복잡한관계를맺어왔다。

韓씨는 金양을 살해한뒤 金양집을 찾아가『金양에게 무슨일이 있느냐, 어디갔느냐, 찾아봐야될것이냐』고 말하기도 했었다는것이다。

한편 韓씨의 정부 李明子씨는 고향이 충남瑞山郡安眠面承彦里로 지난 78년5월에 상경, 中區茶洞일대의 다방을 전전해오다 78년말부터 韓씨를 알게돼 로체스타상사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韓씨와관계를 맺어왔다。

李씨는 金양외신체를 암매장한뒤 80년9월 金모씨와결혼, 경북 榮州에서살다가 지난해2월 헤어지고 상경, 지난7월초부터는 韓씨로 부터 받은 茶洞 D다방을 경영해왔다。

韓進고속 3臺 減車처분

錦江추락사고로 死亡10명이상내
개정運輸사업法 첫적용
重傷者 數따라 추가減車

교통부는 7일 경부고속도로에서 대형사고를낸 韓進고속 (대표 金炯培) 에대해 개정된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최초로 적용, 사업면허일부를 취소했다。

이에따라 韓進고속은 11명의 사망자를냈기때문에 면허구간인 大田—大邱간 운행차량3대의 감차처분이 확정됐고 3주이상 중상자가 10명이 넘을경우 추가로 1대가 감차되기때문에 최소한 4대가 면허취소된다。

교통부는 대형교통사고를 줄이고 운수회사에대한 경각심을 높이기위해 사고수습에 우선하여 이같이 무거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밝히고 감차된 차량은 번호판을 회수하며 다른용도로 사용될수없다고 못박았다。 교통부는 또 감차로 야기되는 이 구간의 교통수요는 다른회사에 증차해주거나 신규면허로 메워 승객들에게는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개정공포된 사업면허 취소규정은 ▲10명이상 사망자를 내면 3대감차 ▲20명이상이면 운행구간 면허취소▲30명이상이면 운행구간 면허취소 및 다른구간의 2분의1감차처분을 내릴수있도록 되어있다。

개정된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면허취소시행규칙은 지난7월31일 공포됐는데 공포 6일만에 처음 적용된 것이다。

이에따라 韓進고속은 면허취소로 생기는 영업상의 불이익외에 大田—大邱간 운행버스8대 (싯가 1억5천만원짜리 벤츠) 가운데 최소3대이상을 폐차처분할수밖에 없고 차량도 매각하거나 다른용도로 사용할수밖에 없다。

死亡者 모두11명
42명 重輕傷

【沃川】속보=6일하오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한진고속버스추락사고로 羅건일씨 (39) 일가족 3명등 모두11명이 사망하고 42명이 중경상을 입은것으로 최종집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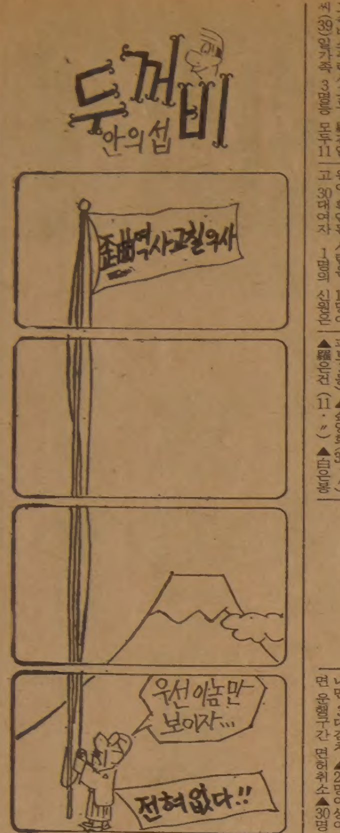
사망자중 7일하오현재 신원이 확인된 사람은 10명이고 30대여자 1명의 신원은 밝혀지지 않고있다。

확인된 사망자명단은 다음과같다。

▲尹기현 (29·경북月城郡陽南面羅兒里) ▲李춘우(30·공군장교) ▲羅건일 (39·대구壽城區泛魚3洞 대공원아파트3동) ▲金양희 (36·〃) ▲羅은건 (11·〃) ▲白은봉 (26·서울道峰區彌阿洞) ▲權경진 (15·전남務安郡務安邑) ▲金모련 (33·대구 동촌국교교사) ▲朴정순 (24·부산시南區鐵蠻1洞330) ▲文성훈 (33·서울城東區杏堂洞95의1) 【聯】

死亡者 보상 호프만 式으로

韓進고속버스 추락사고 수습대책본부는 7일 사망자에 대한 보상은 사고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돼있기 때문에 보험법에 의거, 호프만 방식으로 산출, 지급하게 되며 부상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치료경비가 보험회사에서 지급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韓進회사측은 유족들에게 시체1구당 위자료 40만원, 장례비 60만원등 1백만원씩을 우선 지급키로했다。 사고대책본부는 가족들이 원할경우 사상자에 대한 연고지 후송은 물론 입원치료를 위한 병원도 주선해주기로 했다。



결혼예물보석및시계
미도파
다이아몬드, 반지, 팔지, 목거리
B536-1692
H245-3539

절도피의자 拘束후
婦人에 돈뜯고욕뵈
경장 구속

서울지검은 7일 절도피의자를 구속시킨뒤 피의자부인으로부터 돈을 뜯어내고 몸까지뺏은 前서울九老경찰서 형사계소속 梁光錫경장(33)을 변호사법위반및 간통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의하면 梁경장은 지난해 9월30일 절도혐의로검거한 柳모씨 (34) 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재신청까지해 구속시킨뒤 柳씨의부인 李모씨 (30) 에게『검찰에 잘이야기해 풀어주도록 하겠다』며 지난3월까지 3백40만원을 받아냈고 李씨를 꾀어 관계까지 맺었다는것。

이같은 사실은 柳씨가 지난7월23일 서울고법에서 무죄판결로석방된후 관계기관에 진정, 검찰이 수사함으로써 밝혀진것이다。 검찰은 柳씨의 부인李씨도 간통혐의로 구속했다。

스포츠웨어輸出 大進통상
50여억不渡내고 代表잠적

스포츠웨어「아디다스」 제품수출업체인 大進통상 (회장金任植·59·서울道峰區放鶴洞115) 사장 金泰煥씨 (48) 가 50여억원의 부도를 내고 행방을감춰 경찰이 수사에나섰다。

경찰에 의하면 사장 金씨는 지난달 9일 외환은행南大門지점에서 5천6백만원의 어음을 부도낸것을 비롯, 외환은행南大門지점에서 7월말까지 20여억원, 하청업자 60명에게 납품대금조로발행한 어음 30여억원등 부도액이 모두50여억원에 이른다는것。

金씨가 달아나자 하청업자들은 채권단을 조직, 청산대책을 요구하고 있으며 종업원 3백여명도 6월분 봉급 9천여만원을 받지못해 노동부등 관계기관에 대책을 진정했다。

가을문턱…무더위 "發惡"
오늘立秋 10일께 전국에 한차례비

오늘 (8일) 은 가을의 문턱인 입추 (立秋)。

그러나 우리나라는 당분간 폭염이 계속돼 말복인 15일까지는 32~34도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같다。

중앙기상대는 7일 남쪽으로부터 확장되고있는 고온다습한 북태평양고기압이 우리나라연변에 걸쳐 무더위가 계속되고있다고 밝히고 대기의 불안정때문에 전국적으로 맑은날씨속에 가끔흐리고 곳에따라 소나기가 내리겠다고예보했다。

기상대는 10일을 전후해서 한차례 전국적으로 비가내리겠으며 이달하순께 한차례의 태풍이 접근할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한편 7일에는 江陵33·4도, 大邱·淸州33·1도, 全州32·5도등 대체로 무더운 날씨에 전국이 흐리고 지방에따라 소나기가 내렸다。

會社삥땅감시 항의
안내양들 탈출소동

【金海】7일새벽1시50분께 경남金海市府院洞849의14 우진여객 (대표 이우봉) 소속 시내버스안내양 36명중 이모양 (29) 등 21명이 회사측의부당한 삥땅감시에 항의, 기숙사에서 집단 탈출했다。

안내양들은 이날 기숙사에서 16㎞떨어진 金海郡菉山面까지 걸어 가다가 뒤따라온 회사간부들의 시정약속을 듣고 상오11시20분께 기숙사로 모두 되돌아왔다。【聯】

慶北 교육감에 李康鎬씨 선출

【大邱】경북도교위는 7일 상오11시 鄭採鎭경북도지사 주재로 회의를 열고 오는17일자로 임기만료되는 李鍾律교육감의 후임에 李康鎬浦項市교육장을 선출했다。

17대 교육감으로 선출된 李康鎬씨는 慶北사대수학과를 나와 慶北사대부고교감, 道교위장학사 경례여중 경상중 대명여중의 교장, 高靈郡교육청교육장등을 지냈다。【聯】

農藥안전사용 계몽
不正品단속·시한부販賣도

【釜山】慶南道는 7일부터 이달말까지를 농약 안전사용 운동기간으로 정하고 계몽과 함께 부정농약의 단속·농약의 시한부판매등을 펴나가기로 했다。

道는 市郡의 농산관계자및 농협·농지개량조합등의 임직원, 里洞長, 방제단장등을 농약안전살포 지도요원에 임명, 이들로 하여금 계몽을 철저히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하고 농약공동방제단에는 마스크및 방제복착용과 2시간이상 살포금지, 농약의 공동관리및 빈병수집등을 철저히 지키도록했다。

道는 또 부정농약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는한편 최근많이 쓰이는 도열병약은 출수전 10일을 전후해서만 사용토록 하고 문고병 약제는 출수후에 사용을 금지하는등, 안전사용시기가 지난후에는 해당농약의 사용과 판매를금지토록했다。

夏季봉사대 大學生
방역소독후 中毒症

【濟州】6일하오 11시30분께 北濟州郡舊左邑下德川里에서 하계봉사활동을 벌이던 오동주군 (19·濟州大學교학생회장) 이 마을방역소독을 한후 갑자기 머리가 아프고 의식이 흐려지는등 중독증세를 일으켜 병원으로 옮겨 가료중이다。【聯】

韓英洙 피고에 징역1년 宣告

간통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2년이 구형된 전民韓黨소속국회의원韓英洙피고인(47)과 가정주부 朴仁淑피고인 (34) 에게 각각 징역1년이 선고됐다。

서울형사지법8단독 魯元旭판사는 7일상오 제212호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韓·朴피고인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피고인들의 범행에대해서는 정상참작의 사유가 없으며 고소인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있다』고 밝히고『특히 가정이 제3자로부터 파괴되는 것을 막아야한다는것이 지금까지의 관습이므로 피고인들의 사회적지위로 보나 사회에 준 충격이 크기때문에 용서할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韓피고인의 변호인은 1심선고에 불복, 곧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5行뉴스

◆해수욕장서 나체쇼 即審에

【釜山】부산海雲臺경찰서는 7일 홍기봉씨 (28·부산東萊區蓮山4洞645) 를 즉심에 넘겼는데 홍씨는 6일 하오7시께 海雲臺백사장 제2망루대 뒤쪽 녹지대에 숨어있다가 여자들이 지나갈때마다 뛰쳐나와 나체쇼를 벌여 여자들을 놀라게 했다는것。

◆소주6병먹고 老人둘숨져

【釜山】6일하오 부산西區岩南洞407 유재봉씨 (30) 집앞에서 김해술노인 (65·부산西區岩南洞407) 과이해봉노인 (64·影島區新仙洞1가25) 이 2홉들이소주 6병을나눠마신후 평상위에쓰러져 병원으로옮기던중모두숨졌다。【聯】

◆쥐잡기용 電線에 感電死

【木浦】6일하오6시40분께 전남務安郡望雲面望南里 康春遠씨 (42) 논에서 이마을 康龍文씨 (45) 가 마을앞산에 매어둔 자기집 소가 康씨집 논에 들어가는것을 보고 이를 끌어내기위해 들어갔다가 논주인 康씨가 쥐를 잡기위해 3일전 논두렁에 연결해놓은 전선에 감전, 숨졌다。【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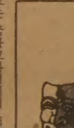
한국일보
533·2361

忠告
善隣商高 국사교사 田再秀씨
"순수한 國史연구 加速化 계기로"

일본의 교과서왜곡사건을 보면서 田再秀씨 (48·善隣商高·사진) 는 국사교사생활 25년만에 가장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한다。

田씨는 지금 일본이 잘못 쓴 내용을 어떻게 고쳐쓰느냐에 대한 관심보다 방학이 끝난 다음 학생들이 韓日관계의 역사에 대해 어떤 질문을 해 올것인가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다。

또 한편으로 이 사건이 학생들에게 국사공부의 학습의욕을 돋궈주는 긍적인 계기가 될 것을 은근히 기대하기도 한다。



그는 국사교과서에서 日帝침략사를 보강하여 詳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것은 우리민족의 자체 취약성이나 지배·예속되지 않으면 안됐던 상황을 조명해 본는것이 바른 역사교육의 길이 아니겠는가고 되묻기도 했다。

田씨는 일본에서 태어나 소학교를 그곳에서 다녔고 유년시절을 일제하에서 보냈기때문에 대학 (서울사대 사학과) 졸업후 25년간의 일선학교 국사교사로 일하면서 한일관계에 대해선 나름대로 이야기식 수업을 진행시켜왔다。

그는 역사교사의 대부분이 해방후 세대들로 대체되어가고 있기때문에 고대사에서 현대사에 이르기까지 한일관계만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교사용교재가 마련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했다。

『일본의 교과서왜곡이 그들의國粹주의적 自尊에서 비롯되었다 하더라도 우리의 국사연구나 교육이 민족적감정에만 치우쳐서는 안됩니다』

그는 사회각계에서 노도와 같이 일고있는 對日성토는 당연한것이지만 역사를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들은 동요할것이 못된다고 말한다。

『우리의국사가 日人史家들에의해 조성된 식민사관의 잔재를 많이 내포하고있다는데』하고 넌지시 물어봤더니 田교사는『우리세대는 이른바 日帝의 官학자로 지칭되는 사학들에게 배우기도했고 지난날 국사연구를 정치적인 실용주의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선배학자들을보고 눈살을 찌푸리기도했다』면서 이번 일본교과서왜곡사건이 순수한 국사의 연구열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길바랄뿐』이라고 답변했다。『동요하지말자』는 그의 충고의 참뜻이 그 답변안에 있었다。

【申鉉鈺기자】

건강한 치아는
정기적 검사에서
한인 치과의사 일동

서울하우스
고향의 맛!
한식, 중국식요리 각종음식준비
짬뽕·냉면 짜장면·잡탕밥 전문
615 BLOOR ST. W
☎: 532-0602
※일요일은 휴업
김 신우

Pendex Business Machines Ltd.
1436 QUEEN ST. W. (& LANSDOWNE) TORONTO
SPECIAL
Tel. 532-0111 Res. 259-5820
6주년 기념
SANYO
$595.00
분납 가능
교포 경영
김 성 수

거구장
신혼, 회갑, 생일잔치, 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 환영
★★ 매혹의 가수 배성 특별출연 ★★
⊙7, 8월 여름휴가중 영업시간
월~목 : 오후2시~새벽2시
금 : 오전11시~새벽2시
토~일 : 오후2시~새벽2시
5 BETHRIDGE RD. ETOBICOKE
☎: 742-1618

한국관
기계로 뽑는
냉면·짬뽕·짜장면
해장국·곰탕 전문
628 Bloor St. W. ☎: 531-0277

MODERN FURNITURE
ecosys
왜 에코시스 가구가 인기 있을까요?
◆그것은 최고급회사 제품들로서 물건이 특이하고
◆일반 가구점에서 볼수없는 차원높은 가구들이고
◆양심적으로 거래하며
◆사신후에 문제점을 책임지고
◆교포들 에게는 특별염가로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2360 YONGE ST. TOR. (In Yonge-Eglinton Centre)
TEL. 486-0397 김만구

진짜 일본음식
스시, 스끼야끼, 뎀부라등등
MASA
JAPANESE RESTAURANT
195 RICHMOND ST. W. (at Simcoe)
TORONTO
977-9519

내고향통닭집
냉면 칼국수 전문
658½ BLOOR ST. W.
☎: 537-0432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 한 구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LEASE 취급함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宋津宇(世光)、공포의 컴퓨터피칭

산발 3安打로완봉…서울堡壘 東商격침 8-0

◇東山 呂泰九의 3루타. 東山高공격 3회초 2死후 3번呂泰九㊨가 통렬한 우중월 3루타를 쳐 3루에서 세이프되고있다。徽文 3루수는 朴根成。呂는 9회초에도 좌중월 3루타로 타점을 올리고 나가 4번 金銀洙의 결승타로 결승점을 뽑았다。

제12회 봉황대기고교야구

東山도 徽文눌러 16强에 5-4

釜高、永同商 대파…慶南、京畿商 꺾어

<7일째>

世光高의 컴퓨터투수 宋津宇가 위력적인 슬라이더와 인코스 쾌속구로 서울세의 보루 東大門商高를 격침시켰다。世光高는 7일 서울운동장에서 벌어진 제12회 봉황대기쟁탈 전국고교야구대회 7일째 2회전경기서 2년생 왼손잡이 투수 宋津宇가 쾌조의 컨트롤로 東大門商高를 산발3안타·1포볼·6삼진으로 완봉하는 한편 8회말 연속6안타를 폭발시켜 7-0 8회 콜드게임승을 거두었다。

東山高는 우완 崔容男의 역투와 3번 呂泰九의 5타수 4안타·2타점 결승득점의 활약으로 徽文高를 5-4로 누르고 16개팀이 겨루는 3회전에 진출했다。

釜山高는 워밍업 하듯 7안타 7포볼 4적실을 모아 永同商高를 7-0 7회콜드게임으로 눌렀다。

한편 慶南高는 이날속행된 1회전 계속경기서 연장13회말 8번대타 曺秉喆의 결승타로 京畿商高에 3-2로 진승, 2회전에 진출했다。

◇世光高—東大門商

서울팬들이 철석같이 믿던 東大門商도 世光의 연타에 콜드게임으로 무너졌다。선발 金泰珍의 변화구도 구원에 나선 金應國의 승로볼도 世光의 막강 타선을 막아내지 못했다。

世光은 80년 대통기에서 우승했을때보다 더 안정된 마운드와 타력으로 봉황대기를 노리고있다。

2회말 첫안타를 기록했던 世光은 4회부터 東大門商 마운드를 두들기며 일방적인 리드를 굳혀나갔다。4회말 선두1번 盧龍龍이 빠른발을 이용、기습번트로 찬스를 만들어냈다。2번 玄相根이 중전적시타를 때리자 당황한 東商 중견수 張仁錫이 타구를 잡아 3루수 머리위로 악송구, 盧龍龍은 2·3루를 돌아 홈을 밟고 2루까지 갔던 玄相根도 3번 姜熙爽의 좌전적시타로 홈인, 선제2점을 올렸다。

東大門商은 반격의 안간힘을 다했으나 世光의 2년생 왼손투수 宋津宇의 위력적인 투구에 눌려 6개의 삼진을 빼앗겼다。

世光은 6회말 선두 玄相根의 좌전안타와 姜熙爽의 번트안타、패스트볼、5번 趙熙元의 좌전적시타로 1점을 추가하고 8회말에는 연속6안타를 몰아쳐 4득점、東大門商을 녹아웃 시켰다。

◇제7일전적

▲2회전

부산고 210 031 0 — 7
영동상고 000 000 0 — 0
<7회콜드게임>
▲부산투수=金宗爽·李英昊(4회)金昌基(6회)포수=田中東勳 ▲영동상투수=張在翼·龍南(2회) 포수=李忠根 ▲안타=부산고7-4영동상

세광고 000 201 04 — 7
동대문상 000 000 00 — 0
<8회콜드게임>
▲동대문투수=金泰珍·金應國(8회)포수=金大烈 ▲세광투수=宋津宇 포수=李想鐵 ▲안타=동대문3-14세광

동산고 100 200 002 — 5
휘문고 100 000 003 — 4
▲동산투수=崔容男 포수=金銀洙 ▲휘문투수=朴完淳·李明燮(4회)·李廷燮(6회) 포수=劉俊赫 ▲안타=동산14-8휘문

봉황스타

世光高 좌완투수 宋津宇

커브조차 삼가한 頂上級재목

世光高좌완투수 宋津宇(2년)는 서울의 강호 東大門商의 타봉을 산발3안타와 무실점 삼진6개로 완봉, 새로운 스타로 주목을받았다。

이날의 주무기는 슬라이더와 약간 가미한 직구·코너워크와 컨트롤이 일품이다。하지만 힘이 좀 약한 것이 흠。

하지만 金純聲감독은『아직 어려서 커브를 던지는 것도 삼가하고 있다。힘만 보완하면 내년엔 정상급의 훌륭한재목』이라고 장담한다。

3년생 林喜錫의 허리부상이후 올봄부터 주전으로 올라선 宋은 7월말 끝난 대봉기대회서도 완봉、世光을 결승까지 끌어올렸던 견인차。계속된 투구로 아직 피로가 회복되지 않았으나 이날 컨디션은 좋은 편이었다고。

충북국민학교 5년때부터 야구를 시작、世光中을 거쳐 세광고 투수로 활약했다。서울 宋炳洙씨(58·상업)의 4남중 막내로 취미는 독서。1m74㎝·63㎏。

東山高 3번타자 呂泰九

6할打率、北一투수 가장거북

東山高 3번 타자 呂泰九(3년)는 루상에 주자가 있으면 더욱 신이나는 대타자。어떤 긴박한 상황에서도 동요할줄을 모르는 활달한 성격이 그의 장점이다。올해 전국대회 본선 통산 타율은 6할대로 주자가 나가있을때 타율은 7할이 훨씬 넘는다。

對徽文高戰서도 5타수 4안타(3루타2)에 선제타점과 결승 득점을 올려 東山高 승리의 주역이 됐다。또 8회말 수비에서는 중견안타로 홈인하는 상대 2루 주자를 던진 홈송구로 잡아 강한 어깨를 자랑.

좌타자로서 몸쪽으로 흐르는 슬라이더를 좋아하며 좌투수는 北一高 투수 安聖洙라고。

선구안과 11초5의 준족이 강한 타력을 뒷받침한다。

東山中 2년때부터 야구생활을 시작, 3번타자로 활약했으며 자신과 같은 좌타자인 미국 프로야구의 안타제조기 피트로즈를 좋아한다。

富川서 목장을 경영하는 呂英萬씨(55)의 4형제중 막내로 仁荷大 진학예정。韓日고교교환경기대표선수。

姜義錫、대망의 金메달

세계大學유도 브라질 시노하라 꺾어

【야바스킬라(핀란드) 6日=閔炳宅특파원】 한국의 姜義錫(60㎏급)은 7일 이곳 스포츠홀에서 진행된 제7회 세계대학유도선수권대회 60㎏급 결승에서 일본계브라질 선수인 시노하라를 한판으로 꺾고 대망의 금메달을 따냈다。

한국선수가 국제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낸것은 작년7월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河亨柱(라이트헤비급)、네덜란드에서 열린 세계유도선수권대회에서 朴鍾學(라이트급)에 이어 姜義錫이 세번째이다。飛鳳高를 졸업하고 한국체대를 거쳐 雙龍에 소속된 姜義錫은 이날 준준결승에서 이대회에 처음참가한 중공의 참을 2분67초를 남기고 왼쪽허벅다리후리기로 한판을 제압, 준결승에 나갔다。

姜은 준결승서 프랑스의 로보팽을 맞아 초반효과를 허용, 고전했으나 1분을 남기고 유효를 얻어 역전승을 거두고 결승에 나갔다。

姜은 결승에서 브라질의 시노하라를 맞아 초반고전하는 듯 싶었으나 유효를 얻어 점수를 뒤집은 다음 2분41초를 남기고 주무기인 왼쪽허벅다리후리기로 다시 시노하라를 제압, 깨끗한 한판승을 거두고 우승했다。

한편 무제한급에서 程鉉瀞은 스페인의 가르샤와 대전도중 왼쪽팔굽탈절상을 당해 아깝게 여전패했다。

이번대회에서 한국은 金1、銅3으로 소련、일본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메달집계

순위	나라	금	은	동
①	일본	3	2	0
②	소련	3	1	1
③	한국	1	0	3
③	프랑스	1	0	3
⑤	폴란드	0	3	0
⑥	체코	0	1	2
⑦	브라질	0	1	1
⑧	캐나다	0	0	3
⑨	서독	0	0	2
⑩	스페인	0	0	1

全대통령 祝電보내

全斗煥대통령은 7일 핀란드에서 열린 제7회 세계대학유도선수권대회 엑스트라라이트급에서 세계대회참가사상 두번째 金메달을 차지한 姜義錫선수에게 축전을 보내 선전을 치하、격려했다。

◇姜義錫

경력10년의 輕量級 베테랑

LA五輪 金기대되는 호프

姜義錫선수

한국유도사상 세계대학에서 두번째 금메달을 획득한 姜義錫은 仁川출신으로 유도경력10년의 베테랑。

姜은 올해 22살로 유도명문고 飛鳳中·飛鳳高와 韓體大를 거쳐 현재 雙龍유도팀소속인데 1백65㎝의 작은 키에 힘이좋고 기술이 다양하며 특히 허벅다리후리기와 빗당겨치기가 일품이다。

대표팀 코치 張寅權씨의 지도로 기량이 급성장한 姜은 지난80년6월 전국체급별 선수권대회에서 엑스트라라이트급 왕좌에 올랐고 지난해 4월 아시아및 세계선수권대회 파견선수 선발전에서 우승을 차지하고도 대표자리를 다른 선수에게 빼앗기는등 한때 실의에 빠지기도 했으나 금년부터 분발, 이번대회에서 쾌거를 이룩했다。

80년9월 제6회 세계대학대회에서 은메달에 머물렀던 姜은 이번 대회서 금메달을 획득함으로써 오는 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기대할수있는 경량급의 호프로 등장했다。

홀어머니 安貞熙씨(61)의 4남1녀중 막내로 음식은 가리지 않고 잘 먹는다。

힘의 柔道로 바뀌고 있다

세계유도決算 몸좋은 유럽選手들 맹렬대시

심판判定 西洋위주…아쉬운脫落 많아

한국은 제7회 세계대학유도선수권대회서 금메달 3개를 목표했었다。한개 밖에 따지못한것은 선수들의 부상과 일부심판들의 부당한 판정때문이었다。78㎏급의 黃珍壽는 심판의 부당한 판정으로 동메달에 그쳤다。71㎏급의 安柄根은 심판의「경기중지」라는 말을 듣고 동작을 멈췄는데 상대방이 이 순간 기습 공격을 펼쳐 패했다。상대의 기습공격이「정지」라는 말보다 먼저 이루어졌다는 것이 심판의 해명이었다。이 체급에서 安에게 패배했던 폴란드의 블라크는 은메달을 땄는데 공정하게 경기가 진행됐다면 安은 최소한 은메달을 차지했을 것이다。

이번대회서 日本은 초반에 蘇聯에 패하여 하위에 쳐졌으나 막판의 경량급서 만회하고 역전 우승, 유도종주국의 체면을 세웠다。

蘇聯、폴란드、프랑스、체코등 힘좋은 유럽선수들이 맹렬히 日本을 추격, 이제 세계유도는 기술에서 힘의 유도로 변해 가고 있으며 실력도 평준화되고 있다。

河亨柱、程鉉瀞、趙容徹은 부상으로 고생했다。힘을 위주로 하는 유럽선수들과 부딪치는 바람에 부상이 심했다。

한국유도도 잔기술보다는 힘을 기르는데 비중을 두어야 할것 같다。

한국선수중 유일하게 금메달을 딴 姜義錫은 기술이 압도적으로 우세했다。힘이 부치면 다양한 기술을 가진 선수만이 정상을 차지할수있다는 반증이다。

세계유도의 스타일은 동양에서 서양으로 옮겨가고 있으며 심판 판정기준도 동양에서 서양으로 바뀌고 있다。유럽심판진이 숫적으로 우세하기 때문이다。【야바스킬라=閔炳宅특파원】

孔龍日、銀확보

세계J레슬링 蘇와 쟁패

한국은 7일 새벽(이하한국시간) 美國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벌어진 세계주니어 레슬링 자유형경기에서 이미 은메달 1개를 확보했다고 대표선수단이 협회로 알려왔다。

56㎏급의 孔龍日은 준결승서 승리한 여세를 몰아 8일 오후 蘇聯선수와 금메달을 놓고 결승전을 펼치게됐다。48㎏급의 魯昊壽은 8일상오 中共선수와 예선 마지막 경기를 벌이며 여기서 승리하면 美國선수와 결승진출을 다투게 된다。

한국, 세네갈에 零敗

메르데카盃 축구

【콸라룸푸르6日베르나마=聯合】 한국은 6일밤 콸라룸푸르 메르데카경기장에서 벌어진 제26회 메르데카배국제축구대회 A조 첫경기에서 아프리카의 신예 세네갈에 2-0으로 패했다。

◇첫날전적

▲A조 세네갈 2-0 한국 (1승) (1패)

▲B조 인도 0-0 태국 (1무) (1무)

종교서관
535-1920
●기독교및 일반서적
★ 일반서적 다량입하
월~토 : 오전10 : 30~오후7시
714 BLOOR ST. W.

교 회 안 내

교회명	담임목사	예배시간	주소	전화
가나안교회	이정준	주일오후 1 : 30	1428 Royal York Rd. (at Eglinton Av.W.)	244-2801 742-7010
갈보리교회	안병한	주일오전 7 : 30 영어설교 오후1 : 30 오후 2 : 00 금요저녁 9 : 00	3817 Lawrence Ave.E.	755-7979 431-3635
시민교회	조성관	주일오후 2 : 00 유년중고장년모임 : 3시 20분	662 Pape Ave. Tor	266-4918
대한교회	조남유	주일오후 2시	3819 Bloor St. W.	621-6340
순복음토론토	이필주	주일오후 2 : 00 금요기도 8 : 00	1 King St. Weston	881-7162 247-9577
동부한인장로	홍순관	주일대예배11 : 30 수요예배 오후 7 : 30 영어예배 오전10 : 30	251 Christie St.	530-1142 530-1143
딕시한인장로	차주성	주일새벽 6 : 30 주일 낮 12 : 00 주일오후 2 : 00	3065 Cawthra Rd. 미시사가	279-4356 279-6388
런던제일교회		주일낮 11시 수요예배 8시 주일찬양예배7시 주일새벽기도 6시	135 Briscoe St.E.	686-6302 전화선교 439-6331
런던한인교회	신용규	주일오전11 : 00 금요기도 밤10시 주일오후 1 : 00	530 Topping Lane London	473-5257 686-0224
성도교회	김용진 적춘수	주일오후 1시30분	87 Elmhurst Dr.	745-7370
반석교회	양세주	주일오후 1 : 30 토요기도 밤7시 성경공부 2 : 40	2840 Weston Rd. at Albion	746-5010
벧엘교회	최상봉	수요저녁 7 : 00 주일오후 1 : 00	395 Old Yonge St.	496-2967 221-1382
빌라델비아장로	김경진	주일오후 1 : 30 수요오후 7 : 00	7 Gretna Ave.(Victoria Pk.& Lawrence)	281-5706
새예루살렘교회	김승환	주일오후 2시 수요새벽5 : 30 중고등영어 오후1시 금요저녁7시30분	5 Grenoble Dr. Don Mills	429-1430 429-2685
선교교회	강제철	주일오후 1 : 00	1 Greenland Rd.	444-8002
서머나감리교회	박준하 김욱희	주일영어 1 : 00 주일성경 1 : 00 주일예배 2 : 00 수요예배 8 : 00	75 Canterbury Place Willowdale, Ont.	498-7960 752-9860
대한수도원	조권사	철야기도 금 밤11시 평일기도 오후2시 토요집회 오후2시 또는 수시	100 Lawlor Ave.Tor.	698-5363
베다니성결교회	김요환	주일오후 1시 성경공부 주일 오후3시	2799 Weston Rd.	248-9709 248-1653
성산교회	계화삼	주일예배 11 : 00 수요오후 7 : 30 12 : 30 토요일오후7시30분	1239 Jane St.& 1384 Weston Rd.	248-4130 233-2266

교회명	담임목사	예배시간	주소	전화
순복음카나다	조이식	주일오후 2 : 00 금요오후 8 : 00	1030 Albion Rd.	745-3884 743-4813
에덴침례교회	정태진	주일오후 2 : 00 금요오후 8 : 00 성경공부	1272 Weston Rd.	242-4964 665-2866
영락교회	김재광	주일오후 1 : 30 금요저녁10 : 30 수요저녁 7 : 30	126 O'connor Dr. at Pape Ave.	423-9880 423-8400 (복음다이알)
오순절장로교회	장세택	주일오전11 : 00 주일오후 4 : 00 금요오후 8 : 00	754 Indian Rd.	762-1495
임마누엘교회		일요오후 2 : 00	63 Dunblaine	488-4141
요한웨슬레감리교회	여웅순	주일오전11 : 00 금요예배 7 : 30	2385 Warden Ave.	444-8343 497-7122
제일장로교회	김웅출	주일오전11 : 00 주일오후 1 : 00 금요오후 7 : 30 (영어예배)	68 Collinson Blvd. North York	755-9766 636-1724
제7일안식일	박형종	금요오후 7 : 30 토요오전 9 : 30 11 : 00	255 Finch Ave. W.	630-4284
한인중앙교회	정관일	주일오후 1 : 00 금요오후 9 : 00 성경공부 2 : 20	502 Bathurst	961-8361 전화설교
천주교회	고종옥	주일오후 1 : 00 토요오후 5 : 30	439 Dundas St. E.	863-0415
침례교회	홍신웅	주일오후 2 : 00 금요오후 8 : 00	720 Ossington Ave.	531-7604
충현교회	박경남	주일오후 2 : 00 수요집회 밤8시 주일오후 4 : 30	240 Manor Rd.	447-6847 446-1211
키치너 워터루 한인교회		주일오후 1 : 30	54 Queen St. N. Kitchener	(519) 579-1819
펜티코스탈교회	심상대	주일오후 1 : 00 주일오후 2 : 00 (영어예배) (대예배)	300 Queen's Dr.Tor.	223-1914
한인장로교회	박희민	주일오전11 : 00, 수요오후 7 : 30 T. V. 예배 8 : 30~9 : 00A. M. CH. 79	1183 Davenport Rd.	535-6864 532-2121
해밀턴연합	김낙중	성경공부 2 : 30 주일학교 3 : 00 예배 3 : 00	1570 Main W. Hamilton	627-4329
메시아한인교회	조창환	주일오후 1 : 30 영어예배 12 : 30 새벽기도 6 : 00 (오전)토, 수요예배오후 8	1580 McCowan Rd.	298-1876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KIM'S ART GALLERY Picture Frame Warehouse
◉각종 유화·서양화
◉사진액자 전문으로 취급
◉동양화·초상화
1286 Weston Rd.
(에그링톤×웨스톤)
(B)243-0233 (R)651-2261 김 석환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트로피·감사패 전문
Golen Craft
◉특수인쇄(Silk Screen Printing)
◉ Engraving
◉간판 취급
(나무·유리·의류·프라스틱등 특수인쇄 전문)
1700 Wilson Ave.
(B)247-8870 (R)242-4319 김 국일

소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귀금속수리

M & J JEWELLERY REPAIR 시계및 귀금속 수리
1530 Albion Rd. Rexdale (Kipling × Albion)
전화 : 742-1205(B)(R)743-4842 Mr. 마

시설및수리

"가게및 집수리 일체"
시설및 수리 (상하수도, 전기제품, 페인팅)
성심 성의껏 봉사해드리겠읍니다.
전화 : 425-8585 Mr. 김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 · 보수 · 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전화: 438-3795 김 영 호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T. V. 출장 수리
전화: 431-0102 미스타 박

목수일 합니다.
◉제네랄·콘트랙터 면허취득 ◉각종건축수리및 신축상담
전화 : 249-0003 Mr. 최

K.D.K.Construction Co.
Met. Lic.B4298. Inside & Out
Renovations. Home Repairs.
Carpentry, Dry-Wall
Plastering, Ceiling
Concrete Work, Plumbing
Painting, Wall Papering
Tiles Etc.
921-8163
Mr. Reg. Kimura

식당

CHOI'S RESTAURANT
메뉴: 초밥, 튀김덮밥, 모밀국수, 갈비, 불고기,
덴뿌라, 스끼야끼, 기타 ◉일요일 휴업
시간: 주중:낮12-밤12시까지, 목금: 낮12-밤1시까지
토: 낮4시30분-밤11시반
주소: 2432 Eglinton Av. E. Scarboro (at Kennedy)
전화: 759-8512 최 영 호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서 울 하 우 스
615 BLOOR ST. W.
전화: 532-0602

Rose Garden (중국집)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일류요리사. 홍콩식 중국요리 취급
전화 : 656-0456, 654-6609 유 창균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클링톤하우스 각종모임(동창회·계등)을 위한 조용한 분위기 별실마련. 간단한 중국요리도 취급(저렴한 가격 봉사) 전화: 535-9541
693 Bloor St. W

광고문의 ☎ : 533-2361

식품점

삼복식품. (주7일 영업)
금요일 밤12시까지. 일요일 오후4시~오후10시까지
제일좋은 물건만을 골라, 제일 싼값으로 책임있게
봉사합니다. 여름철 야외 바베큐는 맛있고, 살많은
삼복갈비를 이용하세요. 시내어디든지 무료 배달합니다.
2437 Finch Ave. W. Weston. 전화: 743-8270

한 밭 식 품
◉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전화: 274-5401

제 일 식 품(구 단풍식품)
7 Days Open(오전10시~오후10시까지)
배달합니다
뒤에 파킹 LOT 마련.
전화: 532-1054 (아리랑식당 옆)

고 려 식 품 680 Bloor St. W. Tor.
주 7일영업(오전10시~오후11시까지)
배달가능, 각종서적및 월간잡지 전화:531-2242

서 울 식 품 (동부) ◉ 친절한 써비스, ◉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291-8317

서울식품(서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김치전문(도매가격)
1391 Weston Rd. 전화 : 243-9544

실내장식

"Fine Design"
설계및 허가, 시공
전화 : 622-5328 (공장) 676-1173 조 덕 남

악기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와그너 피아노
(B) 445-1516, 449-8644
(R) 286-1548. 박 성희

양장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MIRAGE BOUTIQUE(구 코스모스숙녀복집)
각종 고급 숙녀복 취급. 704 Bloor St.W. 전화 : 530-1870
오전 11시~6시30분 금요일은 오후 8시30분까지

의류수선

의류수선, 패턴양재, 주문배수
전화 : 530-1046 10a.m.~5p.m 368-7258 6p.m 이후

의류수선 (남녀분 양복·양장 다 취급함)
의자 카바, Zipper 수리등 성의껏 해드립니다.
전화 문의도 환영합니다. 전화 : 669-5784 (Mrs. Kim)

액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에어콘 히팅 냉장고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532-2880, 2889(B) 493-9945(R) 김 봉 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 24 HOUR SERVICE —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여행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
(김종조 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 366-0960(B) 임 태 호

광 고 접 수
533~2361

운전학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69-1960(B), 743-3377 Mr. Eastman

이삿짐운송

나 라 운 수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전화 : 630-6602

운동구점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단체 유니폼, 트로피, 기념타올, 각종골프채등 취급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인벤토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2)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 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 (공휴일 무관)
전화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인쇄

비둘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대표 : 이 인 용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 789-7351, 789-7352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O. K. AUTO BODY
자동차 사고 전문
138 SIXTEENTH ST. (New Toronto,)
전화: (B) 251-9889, (R) 242-4551 김 희 삼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Lisbon Auto Collision Inc.
★24시간 토잉써비스
★무료견적 ★수리중차 대여
★완전한 차체수리 ★교포특별대우
★Rust Proofing.
전화 : 533-8507, 533-8508이 영두·이건학

귀 사업체는—.
어디에서 무엇하는 곳입니까?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 : 533-2361

장의사

장의사(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써브웨이) 전화: 221-1159

카펫·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WINDOW SHADE
전화 : (B)252-4857 (R)252-6602 유 원 덕

카페트 크리닝: 카페트·소파·쉐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 박

태권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임송하 태권도장
1963 WESTON RD. (1층)
전화 : 247-7577 (웨스톤 × 로렌스) 로브로앞

정영수 태권도장
1065 St. Clair Ave. W.
전화 : 652-0000 사범 : 정 영 수

완인태권도/ 完人跆拳道
교포 할인우대
이경태, 이현우 사범 직접책임지도
중앙도장 : 2281 YONGE ST. 전화 : 483-4002
동부도장 : 1865 LAWRENCE AVE. E. 전화: 759-2500

T·V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페인트·벽지

페인트 또는 벽지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안심하시고 저희에게 맡겨보십시요.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기술로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합니다.
전화 : 731-4204 (Mr. 신)

하드웨어

Bloor & Bathurst Hardware
전화 : 531-6183 변 의섭

한방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하르빈한약상사 각종 디스토마 특효약 있음.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정확한 진단과 처방
한약으로 암환자를 치료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옆)
전화 ; (B)536-6854, (R)226-3874 시 춘봉

자연요법 및 지압치료. 왕진도 함(심 하섭)
요통(허리아프신 분), 두통·복통·류마치스·불면증
643A Bloor St.W.(신용조합옆)(B)536-6854 (R)635-8744

보 광 한 약 방
30여년의 (부산) 임상경험을 토대로 교민여러분의 건강관리에 미력하나마 이바지하기 위해 친근한 상담역이 되고자 하오니 한약및 침구에 대한 격의 없는 상담을 바랍니다.
주소 : 92 Brantwood Drive (스카보로 제너랄병원근처)
전화 : 439-6717 김 남 집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진품 웅담·녹용·인삼·우황·사향·경명등 취급.
전화 : (B)530-0522, 530-4900, (R)531-4165

침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 (내장질환) 박 영 숙
진료시간 : 매일 10AM~8PM 전화 : 922-7090
700 ONTARIO ST. #517(St. Jamestown)

김명종한약방
2433 Finch Ave. W. #411
전화 : 745-2058

동방체질개선연구원 전화: 745-8899(우 봉)
◉한약과 침·뜸·특수부항요법·지압·단식요법. ◉고혈압·신경통·요통·두통·심신불안과 불면증 ◉2433 Finch W. #516

화 랑

U.C.Painting Studio
미술 개인지도, 유화·수채화·뎃상
전화 : 530-4991

회계사무소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 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회계사무소
33 Cherryhills Rd. Concord. Ont.
전화 : 669-2710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

아세아 한약방

◉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각종보약, 각종병약
◉ 물리치료(식이요법, 단식요법, 무료상담)
◉ 무병장수의 비법은 한약과 건강식품으로
◉ 영업시간 : 월-토: 오전 8시 - 오후 8시

645 Bloor St. W. 530-4900(B)
전화 : 531-4165(R), 530-0522(B).

한국 CLASSIFIED

THE KOREA TIMES Toronto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BLACK SEA Fish Wholesale Ltd.
각종 생선 소·도매함.

〈영업시간〉
월 · 토: 8:00 a.m-5:00 p.m
화·수·목: 오전8시-오후6시
금 : 오전8시-오후7시
16 Osler St.
전화 762-7255,7256,2700

구인

Juice Bar에서 일하실 용모단정한 여자분 구함.
월~금(주말은 쉼) 11:00 a.m~4:00 p.m
전화 : 438-0403 (6시 이후. Mrs. 유)

Store Part Time Helper구함
남자분. 스카브로지역
전화 : 267-0847

가을까지 지렁이 잡으실분.
전화 : 633-5783 Mr. Lee

파출부 Club 모집
여가를 이용해서 남을 도와 주실수 있는분
선착순 약간명 모집. 상세 상담 매일 6시이후 직접 방문요함. 전화문의 사절.
714 Bloor St. W. 2층 2호실
제일식품 후문 옆집. (Mrs. 한)

경험있는 남자 풀타임 헬퍼 구함.
전화 : 532-6143 (낮)
532-9638 (밤)

여자사무원 구함. 영어와 한국어가 가능하며, 타자칠수 있는분. 오전9시부터 오후5시까지 근무함.
전화 : 449-8644 황용현부동산

Grocery & Variety Store Manager구함.
주매상 : $5,000. 보증금 : $10,000
매매도 가함. 전화 : 487-5000

Cashier 여자분 구함(주말 Helper 토·일)
Downtown지역.
전화 : 921-0624

Helper (주말: 토요일-6시간, 일요일-9시간)
두사람이 한조가 되어 일해주시면 보다 바람직함.
두사람에게 1주에 $120 지불함. 686-0491(B) 686-0848(R)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즉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베비시터

Baby Sitter 구함.(Jane & Finch 지역)
전화 : 665-4612

입주하셔서 애들 살펴 주실분 구함. (4살·5살)
한가족처럼 지내고져 함. (Lakeshore & Islington)
전화 : 259-6528.

광고문의
☎: 533-2361

광고료 · 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VISA master charge

구혼

결혼상담, 직업소개, 전자침 (한국기원내)
653A BLOOR ST. W. TORONTO. (18부터60세 사이)
전화 : 533-0168 매일1시~10시 Mr. 최·김

기타

걱정이 있으신 분은 오십시요.전화 : 652-1280 (Mrs. Adroe)
Card, 손금, Tarot등으로 당신의 걱정을 해결해 드리겠읍니다. 636 Vaughan Rd. #1

개인지도

바이올린 교습생 모집
전화 : 535-0708 박 명 진

기관및단체

총영사관	598-4608
한인회	755-9288
노년회	755-8079
실업인협회	533-7923
Y.M.C.A.	536-1166
외환은행	364-2890
외환은행 Bloor 지점	533-8593
한일은행	865-0456
코리아타운번영회	532-2727
무역진흥공사	977-8784
동우회	261-2917
캐나다체육회	533-9336
한인신용조합	533-9387
천주교신용조합	363-0097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매매

고급 콘도미니움 급매(Jane & Eglinton)
고층 APT로서 각종 운동시설이 되어 있음.
(옥외 정구장,Sauna,실내 Pool장,각종 오락시설등)
2Bed Rm+Den. 가격: $70,000
(B)534-1085, (R)244-9073(오후6시이후)Mr. Kim

성업중인 Variety Store for Sale
가정사정으로 급매. 저렴한 가격으로 양도하겠음.
주매상: $3,000 렌트: $300(M) 전화: 259-0323

Chemical Suply for the Printing Trade.
Small but Profitable I will Train the People.
251-8312 (9:00 a.m~5:00 p.m)

Variety Store(New Market지역)
아스킹 : $95,000+Stock. 리스 : 2년+5년 Option.
주매상 대단히 양호한편임. 전화 : 883-9335 (Mike)

Store Equipment for Sale
Two Ice Cream Cabinet, One Electronic Scale(1b) & 기타.
전화 : 746-0107, 727-5902

Small Business for Sale+3 Bed Rm.
중심가에 위치한 동전 빨래 세탁소. 1400 Sq.ft.의 넓이며, 살림집이 포함되어 있고, TV. Tower 그리고 커다란 창고도 포함되었으며, 주차장은 앞으로 더 크게 확장할수 있음. Norwood 7 HWY 선상에 있으며 건물은 7년된것이고 Coin Machine은 1년되었음. 낮은 Mortgage(10% Until'87)아스킹 :$70,000그리고 2nd Mortgage도 원한다면 주인이 잡아줄예정임.
전화문의 : 1-705-639-2148 (Jack)
서신연락 : Norwood Coin Wash P.O.Box 122 Norwood Ont. K0L 2V0

여자분 혼자서 운영가능한 Mall안에 있는 Variety Store
가정형편상 아주 싼 값에 드립니다. (내방 바람)
1250 South Service Rd. Miss. Ont. (Health Food & Cake)

Variety Store 매매. 주매상 : $4,800.
리스 : 3년+5년(Neagotiation) 아스킹 : $39,000+스탁
1000 Pape Ave. (관심있으신 분 내방바람)

Mall안에 있는 Convenience Store. 스카브로 지역.
주매상 : $4,000. 앞으로의 발전도 대단히 기대됨.
전 화 : 267-8747 (Tom)

Store Equipment for Sale
One Ice Cream Cabinet, One Electronic Scale (30 Lb.)
& 기타. 전화: 746-0107(오후8시 이후) 1-727-5902

77년도 폰티엑 파리지엔 매매.
4만2천마일.
전화 : 751-3723 김.

Variety Store for Sale
주매상: $4,000~$4,500 Extra 수입: $1,000
아스킹: $45,000+Stock 전화 : 1-525-2115(해밀톤 Mr.Kim)

▲Two Door(5ft.) Ice Cream Cooler (중고)
▲8.5 Galon 대형 Slush 퍼피머신(중고)
전화 : 690-2216 (Mr. 최)

Variety Corner Store for Sale
이층 살림집 포함. 주매상 : $4,000
전화 : (1)-529-0018 Mr. Kim (Hamilton)

조그만 가게 급매.
주매상 : $3,500 전화 : 923-9771

Private Sale. 파킹장 구비한 상업지역의 Building 매매. 8 Rooms. 어떤 Business에도 적합한 매우 좋은 조건의 위치임. 전화 :921-9847 (Willi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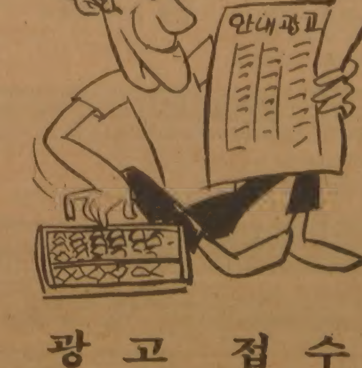
Building & Snack Bar Business for Sale
Asking: $95,000, Down: $25,000 1st mortgage at 13%. Weekly Turnover : $3,000
(Queen St. W. & East of Dufferin)
Call Olga Krawec 769-1723
Glen Park Real Estate

1) Fast Take Out 식당 팝니다.
주매상 : $2,000(일요일 쉼) 5년 리스.
렌트 : $350/M.
2) 5 Ft. 대형 Steam Table 팝니다.
23 Helen St. Miss. Ont. 274-7010 (Mr. 유)

아스킹 : $150,000. 14%. 5Years.
커다란 파킹장을 구비한 모퉁이의 2층 벽조건물
4 Apt. 2 Stores.
년수입(건물에서) : $24,500. 주매상 : $4,000(Stores)
Doris Burda 763-5555
Cholkan Real Estate. Realtor.

Fiat 128 급매. $1,000
Certified. Gas 절약형.
전화 : 762-3247. 533-2364 (Mr. 유)

Convenience Store for Sale. (Jane & Bloor)
주매상 : $5,000이상. 리스 : 5년+5년
아스킹 : $45,000+Stock (361 Windermere Ave.)



광 고 접 수
533~2361

집렌트

4 Bed Rm. House전체를 싸게 세놓음.
Bramalea 부근. $500/M.
전화 : 630-3095

5 일에 $ 13 로
원하시는 것을
찾으실 수 있읍니다.

도서판매

World Book (백과사전)
전화 : 533-2364, 242-5774 (Mrs. 김)

부동산

복덕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석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 (B) 497-0600

이훈모부동산
전화 : 225-1204

황용현부동산
(주택매매, 사업체 일체)
전화 : (B) 449-8644~5, (R) 286-1548

ROYAL TRUST (유 복 영)
전화 : 762-8255 West 지역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 순일 전화: 481-3443(B) 745-5485(R)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SINCERE REALTY INC. (채 준성: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차매매

GRANT BROWN
1575 Weston Rd.
전화 : 247-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세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권

CEDARBRAE VOLKSWAGEN
666 Markham Rd. Scarboro.
전화 : 438-1900(B), 499-8589(R) 손명철(Michael son)

간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J Studio Signs (각종 간판, Silk Screen, Graphic)
127 Manville Rd.
전화 : (B)755-9087, (R)755-5304 이종소

가구점

ECOSYS FURNITURE
2300 YONGE ST.
전화 : 486-0397 김 만 구

LEON'S 가구·카페트·전자제품
20 McLevin Ave(세파드×마캄)
전화 : (B) 291-3818, (R) 749-9687, 746-0981 조 석 민

꽃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렌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751-5851(B) 757-6711(R) 이 동 환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 B) 769-0609 R) 242-5194(여정웅)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 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외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쌍방울 메리야스
Weston Mall (웨스톤 × 핀치)
전화 : 746-3458

미용

킴스미용실
(코리아하우스 뒤)
전화 : 532-7094(B) 438-0628 (R) Mrs.Oh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 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스타미용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741-4410, (R)742-0827

마야미용실 631 Bloor St. W.
한국관 앞, 서울여행사 이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레이몬드미용실 (수잔: 한국인)
•남·녀 컷, 파마전문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2491 Lakeshore Blvd.(레이크셔×로얄욕) 전화: 255-4745

번역및통역

번역, 통역 (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 (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M4A 2R1 전화 : 759-9505 (5시 이후)

변호사

"이민법과 그에 따른 제반업무 전문"
새로 이전한 주소: 390 Bay St. 19층
Tor. Ont. ▲ 361-0404
▲ 593-1818
Barrister and Solicitor
SHELDON M. ROBINS

보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험

CANADA LIFE (강학수)
전화 : 868-0922

김종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알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SUN LIFE (김신명)
전화 : 791-8196

비데오 센타

◉ 각종 비데오 테이프 대여전문
◉ 품질보장,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T.V.판매
전화 : 532-0210 손 병 헌

빵 집

Health Bread Bakery
결혼·생일·파티케익등 전문 (배달가능)
534 St.Clair Ave. W. 전화 : 653-1149 Mrs.배

사무용구및계산기

S B S 캐쉬 레지스터 (퀸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보증)
전화 : 252-7377 (R)762-4536 Mr. 안 수일

사진

KIM'S CAMERA 여권사진 즉석촬영
각종카메라 · 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 증명사진
619 BLOOR ST. W. 전화 : 534-1085 김 춘 탁

새 한 칼 라 현 상 소 전화 : 535-7772
결혼 · 돌사진 · 각종 증명사진 · 회갑 ·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촬 영 전 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선물센타

거 북 이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

생선

K & R Sea Food
전화 : 259-1585
▲얼리지 않은 각종 생선.
▲싱싱한 회감 주문받음
765 The Queensway & Royal York.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